



6

1982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2. 6호

(루게 416)



◆◆◆◆◆◆◆◆◆◆

## 차 례

◆◆◆◆◆◆◆◆◆◆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립니다.....	4
달밝은 산촌의 밤에 .....	6
붉은기밭밑에서 .....	7
준엄한 전구 .....	8
충성 .....	15
사람들에게 혁명의 양식을 주는 참다운 교과서 .....	16
나에게 당은... ..	21
만경대로 간다 .....	22
아버이사랑 .....	24
여울물소리 .....	25
우리 당비서 .....	33
기밭이여 앞으로! .....	34
내가 사는 땅 .....	35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노래 .....	46
내가 그리는 화폭은 (외 1 편) .....	48
어서 오르자 나의 《전진》호야 .....	48
어머니 곳곳이 살아주세요 .....	49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	50
돌격대의 기발 .....	51
눈사태 .....	52

본데로 적는다 (외 1 편).....	62
또 읊노라.....	62
깊어지는 생각.....	63
영원한 전사.....	65
새벽 이슬.....	69
가렬한 싸움의 옛 전장에.....	69
손수건 흔드네.....	70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 .....	71
불빛 .....	73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싸운 우리 인민의 슬기와 용맹을 보여준 생동한 화폭 .....	77

#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립니다

크와자 아브돌 레흐만 라지

조선인민은  
슬기롭고 행복한 인민  
그들은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민족의 령도자, 향도자, 보호자로 모시였어라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애국자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전사  
**김정일**동지는 공산주의자의 귀감  
혁명적당을 령도하시는 정력적인 지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의 혁명과 건설  
이는 계속되어야 하리니  
완성의 그날까지  
혁명은 한세대에 끝날수 없고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할 일이어늘

그것은 조선인민뿐 아닌  
세계인민들의 운명파도 잇닿아있거니  
모든 나라 인민들 조선의 모범 본받아  
이 문제 풀어야 하리  
그들의 후대들을 위하여

조선의 혁명과 건설은 거창하거늘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여 이룩하신 눈부신 성과  
이 성스러운 위업을  
그이의 후계자께서 이어나아가신다  
주체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해나가신다

후계자는 지녀야 한다  
수령의 고매한 덕성을  
수령에 대한 충성심 간직하고  
당파 인민에게 충실해나감을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사상 완벽하게 체현하고  
혁명과 건설에 구현해나가야 한다  
후계자는 지녀야 한다  
비범한 지혜와 재능, 령도자의 고귀한 품모를  
지도자는 대중의 신망이 높아야 하며  
인민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민족과 대중의 신뢰를 받으며  
앞날을 위해 혁명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하신 인품  
우수하고 고귀한 모든 자질을 체현하신분  
그이는 뛰어난 재능과 예지를 지니시고  
수령님의 훌륭하신 성품 그대로 이어받으시었어

라  
위대한 수령이시며 민족의 구원자이신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그이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체득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 힘있게 밀고나가시여라

그이의 훌륭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행복하여라  
조선로동당원들은 한결같이 그이를 높이 모시고  
그이께 모든것 의탁하며  
그이를 하늘의 빛나는 태양마냥 우러러모시고  
있어라

1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노라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충심으로 축하를 보  
내노라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참다운 후계자 **김정일**동지를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행복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  
그이는 수령님의 혁명위업 빛내어나가시네

후계자 되신 그이를 충심으로 환영하노라  
조선인민을 공산주의미래에로 이끄시기를 바라  
노라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신 그이를 환영  
하노라  
바라노라 그이께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  
색화하시기를

**김정일**동지이시여 만수무강하시라  
진정 바라노라  
조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일떠세우시기를  
남북으로 갈라진 조선을 하나로 통일하시기를

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혁명적재능과 비범한 담력을 지니신분  
그이는 위대한 애국자, 참다운 공산주의자이시  
여라

천재적인 지도자동지께서는  
벌써 어리실 때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탐구하시여  
그것을 확고히 체현하시었고

실천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방법론을 체득하시었  
어라

그이는 선포하시었어라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하여  
그이는 또한 굳은 결의 표명하시었어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정확한 령도  
로 이끄시었어라  
사상과 기술, 문화혁명  
정치와 경제, 문화, 국방건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굳게 믿노라, 그이의 비범한 령도는 훌륭한 결  
실을 맺으리니

### 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혁명의 영재  
비범하고 능숙하신 지도자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방법  
그대로 이으시며 빛내이시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하신 정력가  
당과 국가 건설의 중하를 떠메시고  
승리의 앞길 휘황히 밝히시며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나가시여라  
혁명적변혁들은 편이어 일어나고  
주체위업의 전면적승리는 앞당겨지네

**김일성**동지는 통일단결의 중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그 실현으로 이  
끄시었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참다운 국제주의  
자  
뿔럭불가담나라들과의 친선을 도모해나가시여라

인민의 자유 위한 투쟁에 지지를 보내시고  
세계인민의 위업을 도우시여라  
그이는 세계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벗  
그들의 해방위업의 고무자이시여라

### 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  
고매한 덕성과 성품을 지니시고  
온갖 지혜와 재능 다 바치시며  
조국과 인민 위해 일하시는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시여라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 받들고  
인민을 행복과 번영, 자유에로 이끄시며  
인민들의 가장 큰 념원  
나라의 자주성을 튼튼히 담보하여나가시여라

전사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너그러우신 인품  
그이는 누구나 반가이 맞으시여라  
인민들과 기꺼이 마주앉아 허물없이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사업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여라

**김정일**동지는 인민들속에서 가장 신망이 높으신  
분  
조선인민은 그이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거나  
그이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 이룩하시여  
락원의 강산을 활짝 꽃피워가시네

### 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향도의 별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시여라  
조선로동당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여  
혁명적인 권위있는 당으로 되게 하시었어라

오늘 조선로동당은 강유력한 당  
당원들모두가 철석같이 단합되었나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 이룩해나가는  
이 강력한 당의 앞길 막을 힘 세상에 없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업적은 귀중하고 거대하나니  
이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의 기쁨이며 자랑이여라

모든 이름난 정치가, 진보적인사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크나큰 영광 드리여라  
조선인민은 커다란 자부심 안고  
그이를 가장 높이 우러러모시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위업 이어가시는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미래의 찬란한 태양  
주체의 그 빛발은 영원히 온 누리에 빛나리라  
(파키스탄시인)

# 달밝은 산촌의 밤에

김일광

휘영청 달은 밝아  
농가집 마당가에 흐르고  
이따금 밤새의 울음소리  
먼 앞산에서 들려오는 밤

지나치면 그냥 지나치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홀로 사는 그 로인을 찾으신 수령님  
채 가지지 않은 전쟁의 상처를  
따뜻이 위로해주고싶으시여 -

밤은 깊어... 가실 길은 멀어  
떠나실 시간을 아뢰이는가  
열어제낀 창너머 기우는 달빛  
조용한 방에선 단조로운 시계소리...

저물녘 들에서 온  
로인의 건장한 모습을 보시는듯  
달빛에 비치는 토방가의 농립모며  
지계에서 내리우지 않은 풀단들에도  
어버이수령님 이윽도록 눈길을 멈추시고

깊어가는 밤, 잠든 마을  
오랜 시간을 함께 계시고도  
떠나셔야 할 아쉬움에  
마당가를 천천히 걸으시고

박꽃이 하얗게 핀 텅빈 집  
한둘도 아닌 일가친척을 다 잃은  
전쟁의 나날을 다시 더듬으시는가  
홀로 남겨두고 떠나시자니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으시고

가실 길 오죽 바쁘시랴만  
대문가에 서시여  
오래도록 떠나실줄 모르시는 수령님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여라  
-이 집 주인과 함께  
하루밤을 자고 갑시다

밤은 깊어깊어  
달빛도 목메여 흐느끼며  
들창가에 머물고  
로인의 가슴 격정에 울먹이는데

이젠 그만 진정하라고  
손수 회포의 잔도 부어주시며  
그리고도 못다주신것이 있으신듯  
밤이 지새도록 잠못드시는  
아, 어버이사랑이여!

이 밤의 이 농가 환한 방안-  
은정깊은 어버이 말씀속에  
삶의 역센 기둥이 솟아나고  
자애깊으신 그 사랑에  
천진한 아이의 마음이 되어  
로인의 가슴속에 차오르는 목메임

그 사랑 그 품속에서  
이 땅을 지켜싸운 아들과 며느리...  
온 식솔이 다 살아있다면  
다 살아있다면 이 밤이 더 행복하련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끝없이 행복한 산촌의 밤이여  
흐르는 세월속에  
이 밤을 전설로 전하려는듯  
서산에 걸린 달도 질줄 모르는가  
아, 산촌의 이 한밤을  
억만의 은실, 금실로 수를 놓으며  
사랑의 이야기를 엮으며...

# 붉은기발밑에서

박희구

머리우엔 붉은 기발  
앞가슴엔 붉은넥타이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우러러  
아이들이 입단선서를 한다

하나같은 목소리는  
맹세의 메아리로 울리고  
하늘을 향한 나팔소리는  
어서 가자 길을 재촉하는가

창공에 펴터치는  
저 기념탑의 붉은 기발을  
우러러 희망에 불붙는 가슴들  
우러러 빛나는 새별눈동자들

우러러  
그 작은 가슴들이 들먹임은  
총창을 비껴든 저 투사의  
어린 날을 생각하는것이나

걸으면서도 책을 펼쳐든 저 투사의  
목에 넥타이를 두르고 자란  
아동단생활의  
그 나날을 더듬는것이나

장군님의 안녕을 부탁하며  
저 기폭에 엮고간  
선렬들의 불타는 넋을  
가슴 뜨거이 받아안는것이나

하늘엔 붉은 기발  
가슴엔 붉은넥타이

나래치며  
불타오르는  
입단선서의 이 아침

백두의 그날에는  
아동단의 넥타이를 날리며  
오늘의 기쁜 날에는  
소년단의 넥타이를 날리며  
자라며  
활개치며  
걸어온 우리 혁명의 후비대

아,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받들어  
내여딛는 너희들의 걸음걸음은  
저 기발이 가는 길  
너희들이 바라보는곳은  
저 기발이 가리키는 찬란한 조국의 앞날

행복하다!  
하늘과 땅의 축복속에  
붉은넥타이를  
가슴마다 날리며  
삶과 투쟁의  
첫걸음을 떼는 너희들은

활개쳐가라  
복소리 나팔소리  
소년단행진의 발구름소리 높이  
너희들의 그 가슴에  
가는 앞길에  
저 붉은 기폭이 휘날린다!

## 준엄한 전구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그 일부를 아래에 전제한다.

.....

수림이 울창한 산릉선을 타고 룡과송을 북쪽으로 우회하여 협신사에서 들어오는 큰 골짜기기슭에 내려선 부대는 거기서부터 골짜기를 타고 남하하여 곧추 룡과송으로 접근하였다. 7련대가 앞서고 사령부와 경위중대, 8련대가 뒤따라섰다.

도중에 중앙포대가 바라보이는 산굽이에서 폭파조가 갈라져가고 큰길을 건너설 때 차단조가 떨어 졌다. 기본중대는 그대로 어둠속에 몰흐르듯이 소리없이 행군하여 룡과송을 에워싸고 동남방향으로 돌아 로동자부락뒤 높지 않은 등성이에 당도하였다. 여기서는 룡과송 전경이 손바닥처럼 뵈히 내려다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등성이에 지휘부를 정하시였다. 7련대는 로동자부락 한복판을 질러 내려가 곧추 적병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사령관동지, 떠나겠습니다.》

오중훈이 사령관동지 앞에 나서며 조용히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오중훈의 손을 잡으시였다.

《가보우.》

어둠속이었지만 사령관동지의 안광에는 강한 빛이 흘렀다.

오중훈을 선두로 한 련대는 어두운 등성으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흘러내려갔다. 로동자부락은 벌써 잠들었는지 캄캄한데 목책안의 병실과 사무실 문들에서는 아직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왔다. 성문과 목책을 따라 돌아가며 군데군데 등불이 매달려 깜빡거렸다. 적의 병영과 사무실, 포대의 우중충한 지붕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있었다. 이따금 우우 소리를 지르며 건너편 산마루쪽에서 사나운 바람이 쏟아져내릴 때마다 산관부락위로 보양게 눈보라가 휩쓸어갔으며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는 가닥가닥 흩어지고 등불은 꺼질듯 빛을 잃었다.

7련대가 둔덕아래 어둠속으로 사라진지도 이속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로동자부락 뒤등성이에 서신 채 사라진 련대의 일거일동을 호홉으로 가늠하시는듯 어둠속을 응시하고계셨다. 그이께서는 군복저고리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셨다. 전달장강봉수가 병긋 전지불을 켜드렸다. 그이께서는 시계를 보시고는 도로 주머니에 넣으시더니 다시 적병영쪽을 응시하시였다. 눈보라는 휘유했우 사납게 소리치며 부락을 휩쓸었다.

사령부 둔덕아래에 대기하는 예비대와 선전대,

운반대원들도, 협신자쪽으로 한키로남짓 내려간 큰 길가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매복한 차단조대원들도 모두 긴장된 눈초리로 룡과송마을을 응시하고있었다. 녀대원들은 선전공작을 맡은 8련대대원들과 함께 있었다. 순녀는 입술을 가볍게 들먹거리며 줄곧 입속으로 무엇인가 외우고있었다. 그는 로동자합속에 들어가 일상 선동연설을 하게 되어있었다.

녀대원들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 운반대를 책임진 조진범이 언제 보나 무엇인가 꼼꼼히 타산하는듯싶은 그 침착한 표정으로 어둠속을 바라보고있었다.

오중훈은 철조망돌파조인 4중대 1소대원들과 함께 협신사에서 들어오는 큰길 둔덕밑에 었드려 길 좌우를 살폈다. 뒤미처 중대들이 당도하여 둔덕밑에 전개하였다. 불빛도 멀고 보초가 서있는 대문도 먼것이 안심맞춤이다. 다만 포대가 가까운게 불리하다. 그러나 그것은 폭파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대신 최대의 은밀성을 보장해야겠다. 만약 포대를 폭파하기전에 발각되면 전투가 어렵게 될수 있다.

오중훈은 옆을 돌아보았다. 4중대장 한용수가 옆에 었드려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오중훈이 고개를 끄떡하였다. 그러자 한용수가 저쪽 옆에 대고 뭐이라 입속말을 하였다. 동시에 눈가루 날리는 길우로 시커먼 그림자들이 바람처럼 날아넘어가 목책의 컴컴한 그들속으로 사라졌다. 이윽고 그쪽에서 흰 기발같은것이 얼른거렸다. 오중훈이 날렵하게 행길을 넘어가고 그뒤로 영남이, 한용수중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이 몰흐르듯 넘어갔다. 구멍빠진 목책어구에 대원 한명이 서서 흰 수건으로 신호하고있었다. 구멍으로는 한사람이 겨우 빠지겠다. 오중훈이 목책안에 들어서니 코앞에 철조망이 막아섰다. 어둠속에서도 날카로운 쇠가시가 사납게 번쩍거린다. 세겹이나 둘러친 철조망 저편으로 넓은 마당이 펼쳐져있고 마당끝에 둔덕진곳이 있는데 그우에 병영이 올라앉았다. 병영 오른편 뒤로 거뭇하게 흘러내린 산릉선우에 포대가 우뚝 도사리고있었다. 벌써 잘각잘각 쇠줄 끊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게 불인스럽다. 가시쇠줄에 주렁주렁 달린 깡통들이 눈가루를 쏘며 지나가는 바람을 타고 간단없이 건들거렸다. 조금만 더건드리면 펄렁소리가 나겠다. 쇠줄 끊는 소리가 멎고 철조망언저리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인다. 관섭이네 분



대가 제1선철조망을 돌파한 모양이다.

제2선에서 다시 잘각잘각 소리가 들렸다. 휘익 지나가는 바람에 더 크게 흔들리는 깡통들, 들릴락말락 덩거거리는 소리... 온몸을 바짝 조이는 것 같다. 검은 그림자들이 제3선으로 옮겨가고있다. 갑자기 둔덕우의 병영에서 덜컹 소리가 나더니 마당으로 불빛이 환히 쏟아져나왔다. 출입문이 열린것이다. 3선으로 다가가던 관섭이네 분대는 그 자리에 었드렸다. 마당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와 둔덕우에 서서 회파람을 휘휘 분다. 빌어먹을놈, 변소에 가기 싫어 거기서 용무들 보는 모양이다.

잠시후에 그는 회파람을 불면서 다시 병영안에 들어갔다.

이윽고 제3선철조망언저리에서 흰 수건이 얼른 거렸다. 철조망은 드디어 열린것이다.

오중훈은 재빨리 좌우를 살폈다. 이미 런대는 목책안에 들어와 좌우로 쪽 벌려 었드렸다. 오중훈이 성큼 일어나 허리를 굽히고 철조망으로 달려갔다. 목책밑에 몰려던 런대가 다시 그의 뒤를 따라 병영마당을 향하여 흘러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제3선철조망결에 관섭이와 장호가 끊은 가시 쇠줄을 잡아다리고 서있었다. 오중훈의 뒤를 따라 중대들이 흘러나온다. 4중대가 먼저 나오고 잇달아 3중대, 2중대가 나왔다. 오중훈은 철조망결에 서서 손에 든 권총으로 중대들에 전개할 방향을 가리켰다. 4중대는 빠져나온 철조망 바로 앞에, 3중대는 좌로, 2중대는 우로 벌려나간다. 마지막으로 1중대가 나온다. 오중훈은 시계를 꺼내볼수 없었으나 마음의 감각으로 바늘이 10시를 짚어가는것을 느끼고있었다. 비슷하게 맞아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적병영과 중앙포대를 살피었다.

바로 이때에 난데없이 찼러덩하는 소리가 났다.

오중훈은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깡통소리다. 잇달아 포대우에서 떠찌르듯한 고탈소리가 들리고 동시에 뚜르르 기관총소리가 터졌다. 포대우에서 불비가 쏟아져내린다. 처음에는 웅글은 중기관총소리, 뒤미처 두문의 경기관총이 짚어대며 불을 토한다. 목책으로부터 철조망으로, 거기서 병영마당으로, 병영두리를 비자루질하듯 휘둘러대는 사격이었다. 병영안에서도 왁작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었드렸-》

목청껏 부르짖는 오중훈은 잠시 적포대와 병영을 침착하게 살폈다. 아직은 놀란 적들의 눈먼 사격이다. 그렇다면 전투는 크게 혼란될것이 없다. 인제 포대는 2소대가 폭파할것이다. 다만 병영의 적들에게 잠시 정신차릴 틈을 준것이 불리하지만 그대신 포대만 폭파하면 벼락치듯 돌격전을 들이 대야 한다.

바로 오중훈이 이런 결심을 하는 순간에 포대우에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뒤따라 우르릉 땅을 흔드는 폭음이 울렸다. 불기둥은 또 한번 솟아 올랐다. 순간 병긔하는 백광속에 송두리채 뿔었다 무너져버리는 포대가 드러나보였다.

잘한다. 두방 다 터뜨렸구나!

《사격- 때려라-》

오중훈은 우뚝 몸을 솟구며 웨쳤다. 병영을 반달형으로 에워싼 런대의 기관총과 보총들이 일제히 불을 토하였다. 병영에 불비가 쏟아지는것 같다.

적들도 대응사격을 시작하였다. 병실 창구멍마다에서 기관총, 보총들이 불을 토한다.

비록 순간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발각된 습격전이라 이제 더 지체하면 적들이 병실에서 기여나와 언덕받이에 방어태세로 전개할수도 있다. 그렇게만 되면 진공전은 뜻하지 않은 결과으로 굴러떨어 질수도 있지 않는가? 이 순간이 전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것을 오중훈은 룩감으로 느꼈다. 그는 침착하게 좌우를 돌아보았다. 2, 3중대는 좌우로 벌려나가다가 그대로 었드려 사격하고 있으며 1중대는 철조망을 채 빠지지 못한채 었드려있었다. 4중대만은 그의 좌우에 완전한 전투태세로 전개하여 적병실에 맹렬한 집중사격을 들이댄다.

오중훈이 어둠속에 우뚝 일어섰다. 그는 목갑총을 머리우에 높이 쳐들며 웨쳤다.

《내 구령 들소. 2, 3중대와 기관총수들은 적병실에 집중사격할것, 4중대는 날따라 돌격앞으로 옷!》

오중훈이 병실둔덕을 향하여 비호처럼 내달렸다. 4중대는 함성을 울리며 뒤따라 일어섰다. 런대의 모든 기관총들과 보병총들이 적병실 창구멍들을 향하여 날리는 불찌가 내달리는 돌격서열 머리우로 정확한 호를 그리며 날아가고있었다. 오중훈이 둔덕에 올라섰을 때 한용수중대장이 한패의 병사들과 함께 앞서더니 병실을 에워싸고 돌입하며 수류탄을 던지고 총란을 퍼부었다. 적의 사격은 숨을 죽이기 시작하였다. 한용수네 대원들이 창문으로, 출입문으로 날듯이 뛰어들어갔다. 둔덕아래 었드렸던 중대들이 함성을 터뜨리며 밀물처럼 달려올라온다.

《한놈도 남기지 말라!》

오중훈은 목갑총을 쏘아들고 부르짖으며 병실 현관문으로 뛰어들어갔다. 영남이 뒤따랐다. 오중훈이 첫병실에 뛰어들었을 때 벌써 적의 기관총들은 아주 숨이 죽어버리고 ㄷ자로 런달린 긴 병실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총소리만 몇방씩 울려왔다. 잠시후 총성은 아주 멎어버렸다. 마루를 구르며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갑자기 깃든 정적을 더욱 강조하였다. 둔덕아래에서 달려올라온 중대들이 병실들에 뛰어든 모양이다.

한용수를 비롯한 중대장들이 달려와 병실점령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ㄷ자병실, 채벌회사 사무실, 창고, 포대들을 완전히 점거하였다. 그러는 데 사령부 전령병 장문철이 달려들어왔다.

《방금 병실과 포대를 점령하였소. 런대는 계속 수색전으로 넘어갔다는것을 사령관동지께 보고 드려주오.》

문철이에게 한마디 한 오중훈은 중대장들을 돌아보며 명령하였다.

《병실주변을 봉쇄하고 수색을 계속할것, 어디 더러 숨은놈들이 있는것 같소. 태세를 수습해가지고 반항할수 있으니 한놈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살살이 뒤져내오.》

그리고는 자신도 다음 병실을 향하여 빠른 걸음을 옮겼다.

총소리가 가라앉고 장문철이 달려와 7련대가 병실을 점령하였다는 보고를 드리자 사령관동지께서는 대기하던 선전대를 데리시고 부락으로 내려가셨다.

그이께서는 부락어구에 있는 로동자합숙에 들어가시였다. 리철범과 전령병들이 따라들어갔다.

그이께서 로동자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한참 담화를 하시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터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담화를 중단하시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7련대의 최관섭분대장이 달려와 보고를 드리였다.

《사령관동지, 우리 련대장동무... 련대장동무가... 증상을 입었습니다...》

최관섭은 주먹으로 불을 닦으며 혈떡거렸다.

《뭐? 그게 무슨 소리요?》

《련대장동무는 수색전을 지휘하다가 암만해도 병실밑에 지하포대가 있는것 같다. 거기 놈들이 절반나마 들어박힌것 같다고 하면서 지하포대 입구를 찾아돌아가다가 그 입구 뚜껑을 발견하고 막 잡아젓히는데 그만 놈들이 밑에서 기관총을 울리 썩서...》

최관섭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비틀었다.

《그래 오중훈이가, 중훈이가 상했던말이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최관섭의 어깨를 꼭 잡아당기시였다.

《예, 가슴이랑...》

최관섭은 말을 잊지 못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달려가실듯 몇걸음 떼시다가 멈춰서시였다. 부락의 골목골목들에서 밀려나온 로동자들이 그이를 에워싸며 모여들고있었던것이다. 총소리 어지러운 병영쪽을 세찬 빛 번쩍거리는 안광으로 쏘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뒤에 있는 리철범에게로 고개를 돌리시였다.

《가보우, 최인관선생을 모시고 가오. 오중훈이를 후송시키오. 4중대를 달아서. 어떻게 하나 살려내야 하오! 그리고 지하실의 적들을 요정내오, 한놈도 남기지 말고!》

사령관동지의 눈곱에서는 시퍼런 섬광이 번쩍거렸다.

×

《련대장동지- 련대장동지-》

한용수중대장은 오중훈을 두손으로 무릎우에 안아일키며 부르짖었다.

《왜 이래요? 정신 차리랴오! 련대장동지-》

영남이 오중훈의 몸을 잡아흔들며 울부짖었다. 장호를 비롯한 4중대원들이 련대장을 에워싸고 어쩔줄을 모른다.

오중훈이 번쩍 눈을 떴다. 그는 둘러선 사람들을 살펴보더니 움쩍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뭇들 하우? 어서... 이불에 석유를 쳐서... 지하포대... 아구리에 틀어막고 불을... 불을 지르오!...》

오중훈은 아직도 손에 쥐고있는 권총으로 병영을 가리키며 말을 맺지 못하고 혈떡거린다. 가슴에 피가 질퍽하였다.

《련대장동지-》

한용수는 권총을 받아쥐며 또 한번 부르짖었다.

《어서!... 순간을... 순간을... 다투는데 뭇들...》

끝내 말을 맺지 못한 오중훈은 고개를 젓히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가슴에서 팔팔 선혈이 솟아나온다.

《중대장동무, 빨리 후송합시다. 최선생한테루, 어서!》

영남이 이렇게 소리쳤다.

한용수도 그제야 정신을 차린듯 고개를 들었다.

《동무들, 구급봉대와 약수를 있는대로 내놓으시오!》

대원들은 저마끔 안주머니에 건사하여 가지고 다니는 구급주머니를 꺼냈다. 오중훈의 저고리설을 터친 다음 상처에 가제를 칭칭 감았다. 그러나 피는 다시 흰 봉대우로 질퍽하게 피어올라왔다.

적의 지하포대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불을 토했다. 지하포대가 들장나자 놈들은 병실 중방 아래로 돌아가며 뿔어놓은 공기창으로 기관총, 보총을 내대고 미친듯이 쏘아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한용수는 오중훈을 옆에 있는 소대장의 가슴에 맡기고 일어났다. 그는 성큼 현관문으로 뛰어들어갔다. 현관에는 어느새 장호가 석유냄새 물씬 풍기는 이불을 안고서서 방안을 노려보고있었다. 큰 눈에서 눈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마루방구석 열려진 지하포대 입구에서는 접근시키지 않으려고 계속 기관총을 울려쏘고있었다.

한용수중대장은 수류탄을 뽑아 휘익 집어던졌다. 요란한 폭음이 터지더니 지하실입구는 숨을 죽였다. 한용수는 달려들어가며 웨쳤다.

《따라오우, 빨리!》

한용수는 장호가 안고 다가서는 이불자락에 성냥을 그어댔다.

《들어막소!》

장호는 불길에 확 번져오르는 이불통구리를 켜 열려진 지하실입구에 침착하게 다져넣기 시작하였다. 이불통구리는 삽시에 삼단같은 불길에 싸였다. 그러나 장호는 물러서지 않고 총가목으로 이불자락을 꺾꺾 다져넣었다. 두사람은 밖으로 뛰어나왔다.

지하실에 연기가 꾸역꾸역 들어차기 시작하였다. 밑에서 아우성치는 소리와 함께 들어막은 이불통구리가 들썩들썩하였다. 뚱치쳐내려는 모양이다.

《기관총수, 갈기오!》

현관앞에 서서 지켜보던 한용수가 뒤에 대고 소리치자 키큰 대원이 기관총을 안고 닝큼 한쪽 벽 창턱에 올라서서 마루바닥에 대고 뚜루룩 몰사격을 들이박았다.

삽시에 온 집채가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탄알을 내뿜던 공기창들도 인제는 하나 둘 숨을 죽이고 시커먼 연기를 꾸역꾸역 토하기 시작하였다.

《나가기오!》

한용수는 현관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때 둔덕아래에서 리철범이 달려올라왔다.

《중훈이... 오중훈이 어데 있소?》

철범은 한용수의 팔을 잡고 부르짖었다. 그의 뒤를 따라온 최인관도 숨을 헐떡거리고 서있었다. 한용수가 현관앞을 가리켰다.

《중훈이-》

철범은 외락 덤벼들어 소대장의 품에 안긴 오중훈의 손목을 잡고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최인관이 오중훈의 맥을 짚어보고 상처를 살피었다. 옆구리에 찬 위생가방을 열더니 주사약을 꺼냈다.

《어떻습니까?》

철범이 물었다.

《예, 아직...》

인관은 오중훈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으며 대답하였다. 철범은 성큼 일어났다.

《한용수동무, 여긴 나한테 맡기고 곧 련대장을 후송하시오. 중대를 데리고 가오. 룡과송 서남쪽 고지에서 부대를 기다리시오.》

《알았습니다.》

《어서 가우. 선생님, 함께 가주십시오. 어떻게 하나 살려주시우. 사령관동지께서 오중훈인 죽을 수 없다고 꼭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관이 주사 한대를 더 놓으며 대답하였다.

오중훈의 담가를 떠나보낸 철범은 성큼 일어서더니 적병영을 쏘아보았다. 중대들이 병영을 둘러 싸고 사격을 퍼붓고있었다. 지하포대안에서는

적들의 아비규환이 일어났다. 적들은 열려진 창문들과 현관문으로 불속에 든 메뚜기새끼들처럼 벌떡 벌떡 뛰어나오기 시작하였다.

철범이 번쩍 목갑총을 쳐들며 웨쳤다.

《한놈도 놓치지 말라!》

그의 총구에서 번쩍 하고 사나운 물이 튀었다. 창문에서 뛰어내리던놈이 으악 소리를 지르며 나가곤드라졌다. 뒤따라 총성이 벼락치듯 터지더니 집밖으로 뛰어나온놈들이 여기저기서 짐승의 소리 같은 괴성을 지르며 허공을 안고 나뒹굴었다.

《공기창구멍으로 기여나온다-》

누군가 이렇게 웨쳤다. 집밑동아리에 주련이 돌아가며 뿔러있는 창구멍마다 적들이 주렁주렁 대가리를 내밀고 거꾸로 매달려 자벌레처럼 꿈지럭 거리고있었다. 탕탕 몇방의 총소리가 나자 놈들은 그대로 공기창구멍을 막은채 늘어져버렸다. 갑자기 병영건물우에 불끈 불기둥이 솟구쳐올랐다.

《사격- 사격- 한놈도 살려주지 말라-》

철범의 노한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오중훈련대장이 누운 담가를 에워싸고 철수하는 4중대는 룡과송 서남쪽등성이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고있었다.

《가만!》

담가옆에 붙어서서 오중훈의 손목을 잡고 걸어 가던 최인관이 걸음을 멈췄다. 역시 담가에 붙어 따라가던 한용수와 영남은 무슨 일인가 불안한 빛으로 외투를 덮고 누워있는 련대장과 최인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담가 앞채를 들었던 최장호도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내려놓으시오, 조용히...》

전나무밑 부드러운 눈무지우에 담가를 내려놓았다. 최인관이 연거퍼 주사 석대를 놓았다. 오중훈은 갑자기 가슴을 세차게 들먹거리더니 머리를 쳐들려고 모대졌다.

《련대장동지!...》

모두들 다급하게 부르짖으며 그를 에워쌌다. 오중훈이 눈을 떴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물었다.

《어떻게... 됐소?... 지하... 포대...》

그는 함성소리 일어나는쪽으로 고개를 젓히려고 모지름을 썼다.

《요정났습니다. 불바다가 되었습시다. 만세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한무릎 꿇고앉은 한용수가 오중훈의 손목을 잡고 부르짖었다.

《나 줌...》

오중훈은 일어나려는듯 몸을 뒤틀었다. 장호와 한용수가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오중훈은 하늘에 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뭉게뭉게 증천에 솟아올라가는 불구름, 사방에서 일어나는

함성소리... 오중훈의 입가에 가는 미소가 흐른다.

《수고들했소... 그런데...》

오중훈이 말을 잊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인관이 다급히 약물을 가득 채운 주사대를 들고 다가와 오중훈의 팔에 또 바늘을 꽂았다.

《선생님...》

최인관을 떨끄러미 바리보며 숨을 튕던 오중훈이 이렇게 부르며 손을 움직거렸다. 주사바늘을 뽑은 인관이 대답을 못하고 오중훈의 손목을 잡으며 고개를 끄떡하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난... 틀렸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최인관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였다.

《아닙니다. 런대장동지!》

《런대장동지, 기운을 내십시오!》

《사령관동지께서 곧... 오십니다!》

한용수, 김영남, 최장호가 저마끔 부르짖으며 오중훈의 옷자락을 잡아흔들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오중훈의 눈곱에 한가닥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빛은 이내 스러지고 눈에는 뿌연 이슬이 그렁하게 어리었다.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런대장동무...》

인관은 점점 맥박이 진해가는 오중훈의 손목을 짊 그러쥐며 눈을 습벅거렸다.

《작전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는데... 그이 결을 떠나다니...》

오중훈은 입술을 깨문다. 눈곱에 피였던 이슬이 가는 줄기가 되어 피기 가신 불을 타고 흘러내린다. 점점 숨이 가빠진다.

《런대장동지-》

모두들 부르짖으며 꺾꺾 울음을 삼킨다. 오중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돌아보았다.

《울지 말고 동무들이... 나를 대신하여... 장군님을 잘 모시고... 철범이... 배정식... 조진범동무들에게도 내 부탁을...》

오중훈이 말을 맺지 못하고 갑자기 헐떡거리며 고개를 젓혔다. 모두들 놀라서 런대장을 부른다. 인관은 다시 주사대에 약을 채웠다. 그것이 오히려 오중훈을 피롭히는것인줄 변연히 알면서도 그는 주시를 놓았다. 오중훈이 다시 눈을 떴으나 아까보다 더 흐리고 가늘어졌다.

《전투가방...》

부르튼 입술을 간신히 움직거렸다. 영남이 전투가방을 가슴에 안겨주었다. 오중훈은 피에 절은 전투가방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었다.

《사령관동지께... 이걸...》

오중훈은 힘없이 눈을 감고 가쁘게 숨을 모았다.

《런대장어른!》

인관은 목메인 웅글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인관은 그것이 오중훈의 마지막 숨결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어찌 이런 사람이 죽는단말인가! 그는 죽음을 많이 보는 직업을 가졌으나 평생 이처럼 가슴더지는 죽음을 처음 당한다.

《런대장동지- 왜 이럽니까! 예, 이러지 마십시오!》

영남이 오중훈의 손목을 쥐고 흔들었다.

《영남아... 울지 말아... 그리구... 장호...》

다시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어깨를 들먹거리는 영남이를 달래고 주먹으로 눈곱을 훑치는 장호를 돌아보던 오중훈은 턱을 쳐들고 더욱 가쁜 숨을 모았다.

지하포대에 들여박혔던 적들은 한놈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기여나오던놈들은 복수탄에 대가리가 터지고 안에 있던놈들은 솟덩어리가 되었다. 솟덩어리 주검속에 긴 칼을 차고 누런 금줄견장을 단 대장놈도 있었다. 병영과 현장사무실, 창고 등 목성안의 적소굴은 불바다가 되었다. 급보는 협신자, 마호를 거쳐 돈화의 현경찰국과 수비대 본부에 날아갔으나 아님밤중에 벼락을 맞은놈들은 어쩔줄을 몰랐다. 마호에 주둔하는 수비대장놈이 부랴부랴 중대를 몰아세워 협신자에 당도하였으나 룡파송하늘이 불바다가 된것을 보고는 오금이 떨려 주저앉고말았다.

마침내 철수의 신호나팔소리가 여운을 끌며 산판끝안에 울려갔다. 부대의 긴 대오는 서남쪽 산기슭을 향하여 움직였다. 로동자들이 저마끔 로획물자를 지고 따라나섰다. 백명, 이백명 연연 장사진을 쳤다. 나머지 로동자들도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며 산기슭까지 따라왔다.

숲에 들어서자 사령관동지께서는 전령병들만 데리시고 부대보다 한걸음 앞서시였다. 걸음을 다그치시며 이따금 산말랭이쪽을 쳐다보시는 그의 눈길에는 불안과 초조의 빛이 실려있었다.

그이께서 웬일인지 발을 헛짚으시고 비칠거리셨다.

《사령관동지!》

뒤따르던 문철이 당황하여 다가섰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그대로 서시여 산등성이를 쳐다보셨다. 가쁜 숨을 태우시는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다잡으시는것인지 알수 없었다.

《분명 맥박이 있다고 했지?》

그이께서 문철이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물으시는 말씀이었다.

《예, 의사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적은 왜 기적이라고 그러오? 가지요!》

그이께서는 확신에 찬 빛으로 말씀하시며 비로소 다시 걸음을 떼시였다. 재영은 한숨을 삼키며 뒤따랐다. 최인관이 보고드리라던 말은 더 남아있었다. 그러나 아까도 지금도 그 말만은 그이께 드릴수가 없었다.

등성이우에 올라섰다. 그이께서 우뚝 걸음을 멈추시었다. 가까운곳에 큰 전나무가 서있고 그 밑에 검은 그림자들이 모여있었다. 빙둘러 담장을 치고 섰다. 누군가 욱 욱 울음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흠칫 멈추어서시더니 움직이지 않으셨다.

채영이 빠른 걸음으로 전나무밑에 다가갔다.

《사령관동지께서… 오셨습니다…》

모두 나무밑에서 물러나 길을 내었다. 모자를 벗어진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자리가 번들거렸다.

전나무밑에는 담가가 놓여있고 담가결에 한용수와 최인관, 장호들이 주저앉은채 번쩍거리는 얼굴을 들고 사령관동지를 쳐다보며 오열을 삼켰다. 영남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오중훈의 가슴우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울었다.

오래도록 사령관동지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서계셨다. 언제까지나 그대로 서계실것만 같았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한걸음 떼시었다. 마치 산이라도 들어옮기시듯 무겁게 한발한발 옮기셨다. 담가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다시 우뚝 멈추어서시여 자는듯이 누워있는 오중훈의 얼굴을 들여다보셨다.

《사령관동지!》

한용수와 관섭이 부르짖으며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어깨를 흔들며 끄끙 울음을 삼켰다.

《아!》

영남이 고개를 번쩍 들고 사령관동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다가 다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저앉아서 오중훈의 손목을 잡고 부르짖었다.

《련대장동지, 일어나세요. 사령관동지께서 오셨어요! 예? 어서 일어나요…》

그리고는 또 목놓아 울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윽도록 오중훈의 얼굴을 굽어보시더니 천천히 모자를 벗어드시며 한무릎을 꿇으시고 오중훈의 머리맡에 앉으셨다.

《중훈동무!…》

목메이신 음성이었다. 그이께서는 손을 드시여 오중훈의 얼굴에 가져가시더니 주저앉으시듯 잠시 망설이시다가 오중훈의 눈시울을 쓸어내리셨다. 눈은 감겨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한무릎 굽히시여 땅을 짚으신채 움직이지 않으셨다.

철범이 고개를 비틀며 큰 주먹으로 눈굽을 닦았다.

《영남이…》

사령관동지께서 문득, 이렇게 웅글은 음성으로 부르시더니 옆에서 흐느껴울고있는 영남이를 돌아보셨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들먹거리는 영남이

의 어깨를 안으시었다.

《사령관동지!》

영남은 부르짖으며 사령관동지의 품속에 온몸을 던지었다. 그이께서는 영남이를 꼭 껴안으셨다. 껴안으시는것이 아니라 다잡으실수 없는 몸을 영남이의 어깨에 의지하시는듯이 느껴졌다. 그이께서는 손으로 영남의 어깨를 더듬으시며 수연히 얼굴을 드시었다. 흰눈을 무겁게 이고 내리드러운 전나무가지가 바람결에 설레었다.

《련대장은… 중훈이는… 우리를 두고… 갔구나…》

마디마디 끊어지는 그이의 목메이신 음성이었다. 전나무가지에서 푸시시 눈가루가 흘러내렸다. 밤하늘을 쳐다보시는 그이의 눈굽에 이슬빛이 번쩍하였다. 이마전으로 형클어져내린 그이의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날린다.

《중훈동무… 중훈이…》

그이께서는 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시었다. 황막한 대륙의 하늘과 산발과 밀림은 가없는 심연속에 꺼져들어간듯 아득해보이였다. 부르면 언제나 대답하고 나서던 그 무게있고 은근한 목소리를 다시 들을수 없으며 침착하고도 정력에 넘치는 그 얼굴도 이 하늘아래서는 다시 볼수 없다는 허무감이 갑자기 울컥 가슴에 치밀어오르는것을 참기 어려우시었다.

×

깊은 밀림속에 불구름이 타래쳐오르고있었다. 굵은 전대나무들을 산더미처럼 무저울린 우등불이였다. 불길은 어쩌도 세찬지 가뭇게 높은 숲머리까지 솟아올라가 캄캄한 밤하늘을 태우고있었다.

10년동안 풍찬로숙 우등불과 함께 살며 싸워온 유격대원들도 일찌기 보지 못한 엄청난 우등불이였다.

우등불을 가운데에 두고 전 부대가 둘러섰다.

붉은 기폭에 덮인 오중훈의 시체가 놓여있고 그 뒤에 경위중대와 기관총소대가 늘어섰다. 그 오른 편으로 7련대, 왼편으로는 8련대가 둘러섰다. 7련 대와 8련대 사이에 룡파송에서 짐을 지고 따라온 수백명 로동자들이 모여있었다.

솟아오르던 불길이 점점 수그리지더니 마침내 우등불은 시퍼런 화염만 이글이글 피어오르는 솟불무지가 되었다. 리철범과 배정식, 조진범을 비롯한 수십명의 대원들이 불무지로 다가갔다. 그들은 긴 장대기며 공병삽, 치도 같은것을 손에 들었다. 장대기를 든 대원들이 먼저 시뻘건 솟불덩어리들을 옆으로 떠옮겼다. 드러난 우등불자리에서는 뜬김이 몽게몽게 피어올랐다. 공병삽과 치도를 가진 대원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점점 높이 쌓이는 검은 흙무지우에도 뜬김이 서렸다.

묘자리를 다 파자 그들은 그대로 구덩이두리에

돌려섰다.

사령관동지께서 강봉수, 문철이, 영남이를 데리시고 경위중대앞으로 걸어오셨다. 영남이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린다. 그도 발꿈치에 부상을 입었다. 철범이 사령관동지 앞에 다가가 자세를 바로 잡고 서서 말없는 보고를 드렸다. 그이께서도 아무 말씀 없이 천천히 붉은 기폭에 싸인 오중훈에게로 다가가셨다. 철범이와 배정식, 한용수, 김영규를 비롯한 지휘관들이 그이의 뒤를 따라나가 오중훈을 돌려섰다.

그이께서 허리를 굽히시며 오중훈을 안치한 담가체를 잡으셨다. 다른 지휘관들도 허리를 굽혔다. 담가는 묘자리를 향하여 천천히 옮겨져갔다.

이때에 둘러선 대원들속에서 누군가 청청한 목소리로 추도가를 떼었다. 청청한 그 목소리가 더욱 애를 끊는다.

하나 둘 격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그에 합쳐졌다.

노래소리는 무겁게 흘러간다. 숲머리우에 썩바람소리가 일어났다.

기폭에 덮인 담가는 묘자리결에 내려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담가체를 내려놓으셨으나 그대로 굳어지신듯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썩- 밀림우에 바람소리가 지나가고 길길이 솟아오르는 우등불우로 눈가루가 흰 안개처럼 흩어져내린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담가결에 한무릎 꿇고 앉으시더니 붉은 기폭을 들치고 오중훈을 들여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오중훈의 군복팔소매를 더듬으시며 지난 초겨울 3도백하기술전투에서 탄환에 터진 자리를 찾으시였다. 실로 께맨것이 다시 터져서 솜결이 빼죽이 내밀었다.

그이께서는 그 자리를 더듬으시더니 문득 일어서시며 외투를 벗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외투자락을 펼쳐드시고 오중훈의 몸우에 조심스레 덮어주시였다. 발치로부터 허리와 가슴으로 천천히 덮어올라가시던 그이께서는 머리는 덮지 못하시고 손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시 한무릎 세우고 앉으시며 표정없는 오중훈의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계셨다. 둘러싼 지휘관들이 모두 고개를 옆으로 꺾었다. 너대원들속에서 흐흐 흐느끼는 소리가 일어났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언제까지나 움직이지 않으실듯 오중훈의 머리맡에 앉아계셨다.

리철범과 배정식이 난감한 표정으로 마주 바라보았다. 리철범이 결심한듯 그이께 바투 다가섰다.

《사령관동지...》

그는 이렇게 부르기는 하였으나 말은 잇지 못하였다. 오중훈을 얼음땅밑에 묻으실수 없는, 자신의 따뜻한 체온이 스며있는 외투를 가져주시었건만 그래도 오중훈의 몸에 찬흙을 덮으실수 없

는 그이의 애틋한 심정이 가슴을 지진다.

아아 중훈아! 것처럼 애절한 사령관동지의 사랑이 네 온몸을 감싸안았건만 네 어찌 벌떡 눈을 뜨고 일어나지 못하느냐?

철범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눈물을 삼키었다.

이윽하여서야 사령관동지께서는 떨리시는 손으로 오중훈의 얼굴을 가리워주시고 일어서시였다. 담가는 묘바닥에 내려졌다. 철범이 두손으로 흙을 움켜쥐고 그이 곁에 다가가셨다. 철범의 얼굴을 잠시 여겨보신 다음에야 그이께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신듯 흙을 받아드시더니 다시 묘자리에 다가가시며 주르르 구덩이안에 쏟으시였다.

둘러선 대원들속에서 흐느낌소리가 더 높아졌다. 잠시 멎었는가싶던 추도가소리가 갑자기 격조를 울리며 계속되었다.

홀로 선 나무밑에 한을 품고 쓰러졌다...

너대원들의 목소리가 류달리 애끓게 청청하였다. 상금이, 순녀 등 너대원들의 두볼에 눈물자리가 어지럽다. 고개를 외로 돌리시는 사령관동지의 눈굽에 이슬이 번쩍 빛났다.

철범, 배정식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모두 사령관동지의 본을 따라 한줌씩 흙을 던졌다. 도구들 든 대원들이 모여 무덤을 쌓았다. 이윽고 불무지결에는 봉긋한 봉분이 솟았다.

사령관동지께서 봉분앞에 다가서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손에 묘자를 벗어드신채 숲속으로 새어드는 바람결에 머리카락을 날리시며 서계셨다. 추도가도 멎고 숲속은 조용해졌다. 이따금 숲머리를 지나가는 바람소리만 스산하였다.

《중훈이...》

사령관동지께서는 생전에 마주앉아 허물없이 대화할 때 부르시듯 이렇게 부르셨으나 목이 메이시며 말씀을 잊지 못하셨다.

아, 이승과 저승이 얼마나 멀다더냐, 눈을 뜨면 이승이요 감으면 저승인데 어찌하여 한번 간 사람은 오지 못하며 한번 보낸 사람은 다시 찾아볼 길 없이 된단말이냐!

그이께서는 북받치는 슬픔을 참기 어려우신듯 얼음덩어리같이 찬 무덤흙에 손을 얹으시며 목메이신 음성으로 계속하셨다.

《동무를 이렇게 묻을줄을... 조국땅도 아니고... 두만강기슭도 아닌... 머나먼 이 북만의 얼음땅 밑에 널 한장 깔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묻을줄을... 누가... 누가 알았겠소...》

그이께서는 말씀을 못이시고 떨리는 손으로 무덤을 어루만지기만 하시더니 갑자기 격하신 음성으로 계속하셨다.

《무심하오 중훈이, 너무 무심하단말이요. 우리

가 함께 총을 잡고 걸어온 길은 십만리도 넘고  
이십만리도 더 될텐데 그 험한 길을 이날이때까  
지 함께 걸어오다가 어찌 이렇게 불쑥... 우리를  
남겨두고 동무 혼자 가는법이 있단말이요!...》

그이께서는 끝내 몇말씀 더 잊지 못하시였다.

숲속에 흐느낌소리가 흘렀다. 녀대원들은 손으  
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세차게 흐느껴 울  
었다. 손바닥으로 눈굽을 싸쥐고 우는 남대원도  
있고 고개를 젓히며 바람소리 사나운 숲머리를  
쳐다보며 굵은 눈물을 짹짹 쏟는 대원들도 있었  
다.

사령관동지 맞은편에 삽자루를 들고 선 장호는  
그 큰 주먹으로 연방 눈굽을 훑어냈다. 철범은  
성난 사람처럼 두눈을 부릅뜨고 먼 숲속을 쏘아  
보는데 눈굽에 뿌연 물이 넘칠듯이 피어있었다.

너무도 절통하시고 원통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끝내 추도의 말씀을 맺지 못하시고 무덤만 어루  
만지시였다.

경위중대대원들이 총을 들고 절컹절컹 격발기  
를 재웠다. 수십자루의 총대가 일제히 머리로  
솟아 올랐다.

탕!

요란한 총성이 터졌다.

탕 탕 탕...

총소리는 연방 숲속에 메아리쳐갔다. 우드득우  
드득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눈가루가  
하얗게 흩어져내렸다.

원정군은 복수의 함성 드높이 룡과송과 린접한  
요충지인 협신자애로 진격하였다.

두차례 련속적인 진공전으로 돈화땅은 발각 뒤  
집혔다.

## 총성

### 최승철

예전엔 딱히 몰랐네

총성이란 말

그 말 그리도 뜻이 높아서

세상의 온갖 귀한 말들도

별처럼 자리찾아 빛나는것을

대지에는 억센 등줄기 있어

끝마다 푸른 강물 흘러내리고

우리엔 총성, 그것이 있어

재능과 지혜도 용맹과 사랑도

나라에 힘이 되고 보배로 되네

벌나비 천만송이 꽃꿀을 모으듯

총성은 애태워 큰 공을 세우고도

고개숙여 뒤에 숨는 전사의 자세

다만 경애하는 수령님의 치하의 손길을

어깨에 느껴 눈물짓는 마음

소리높이 다지는 맹세보다 소중한것

정성껏 가꾸어내는 열매이더라

세상에 소중한 말 그속에 울리나니

총성은 말보다도 조국의 대지에

창조물로 엮는 불멸의 노래

총성은 수령님의 심려가 미치는곳마다에

남먼저 놓고가는 심혈의 선물

지은 사람 이름도 주소도 없는 선물

펼치면 그 속엔 태양을 우러르는

해바라기의 티없이 맑은 마음

소원은 오직 하나 수령님의 기쁨!

가시는 걸음걸음 보시는곳마다

창조의 과원이 끝없이 설레이

우리 수령님 언제나 어디서나

봄날처럼 환하게 웃으시는것

보아라, 땅속의, 마음속의 온갖 재부를

주체의 빛발속에 다투어 펼쳐드는

저 불을 뿜는 호흡, 비호같은 몸짓

그 열정 죽음도 삶에 이어주고

삶은 영생으로 이끌어주네

아, 총성!

사람마다 너를 알고 태어났거니

예전엔 날개없이 덩굴던 우리

너를 지너

태양으로 끝추 날아올라라!

# 사람들에게 혁명의 양식을 주는 참다운 교과서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 대하여-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오늘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1939년 9월부터 1940년 3월까지의 사이에 대부대선회작전으로 일제의 대대적인 《토벌공세》를 짓부시고 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품모를 실지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여 문학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 있다.

장편소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실성과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무조건성,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곤난극복의 혁명정신, 군민일치와 반제민족통일전선문제 등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그 내용의 혁명성과 심오성,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혁명의 양식을 주고 혁명할 결심을 굳게 다지게 하는 혁명의 참다운 교과서이며 발전하는 우리 소설문학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여주는 특출한 혁명적대작이다.

이 장편소설이 이처럼 빛나는 걸작으로 완성되게 된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문제를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근본문제에 내세우고 창작 리론에서와 실천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원칙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현명한 지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력사적인 사실에 충실히 의거하는것은 우리 당이 밝혀준 수령형상에서 건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먼저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구상하시고 그를 강철의 의지와 령활한 유격전법, 헌신적인 투쟁과 끝없는 로고로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당시 정세는 매우 엄혹하였다.

1939년 9월 일제는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토벌계획》을 꾸며내어 백두산동북부에 무려 20만 대군을 집결시키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2중3중의 포위봉쇄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놈들이 공산군과의 10년간의 전쟁경험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세운 《전략》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한 포위망속에 가두어넣고

집요한 추격작전으로 《일격에 소멸》하여 공산군과의 전쟁을 끝장내려는것이였다.

적의 발악적인 포위봉쇄속에서 벗어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만큼 그것은 면밀하게 타산되고 전례없이 강화된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이였다.

실로 조선혁명앞에는 일대 위기가 닥쳐왔다. 일제의 《토벌공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비상한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으로 적의 전략전술적기도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놈들의 《토벌공세》를 분쇄할수 있는 새로운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을 구상하시였다. 종전과 같이 밀영을 거점으로 하여 활동하는것이 아니라 광활한 지역에 비밀로정을 정하고 그 로정을 따라 대부대로 선회하면서 적들이 전혀 예상할수 없는곳에 불의에 나타나서 령활한 전법으로 놈들에게 련속 된대를 안기는 이 방침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방침이며 전투에서 계속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겨줄수 있는 탁월한 방침이며 조선인민혁명군의 령활을 보존강화하고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양양시킬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방침이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미 예견한 비밀로정을 따라 적들이 전혀 예상할수 없었던 목단령의 천고원시림을 뚫고

부대를 갑자기 돈화지방으로 진출시켜 적의 뒤통수를 치고 놈들의 대병력을 돈화오지로 끌어들이게 하시였으며 그러시고는 또다시 그 원시림을 쭉빠져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고 백석탄밀영에서 군정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신 다음 두만강반대로 진군하시여 대마목구를 치고 홍기하골짜기에서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시는데있다.

이처럼 장편소설은 대부대선회작전의 력사적으로 정을 작품의 줄거리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 이끄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비범한 군사예술과 현명한 령도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할데 대한 원칙의 커다란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우리 당중앙이 밝혀준 수령형상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력사적사실에 의거하는것과 함께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그리는것이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이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인민들과 대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으로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의 첫머리에서 독자들은 일제의 발광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비상한 군사적대책이 인차 취해질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소설에는 잔잔한 생활이 펼쳐져있다.

울기강밀영에서 정치공작원들과 통신원들로부터 급변하는 정세의 추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조용히 사색하시며 약품들을 구해들이며 부상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전사들을 친어버이사람으로 보살피시며 추석날을 즐겁게 쇠도록 하여주신다.

놈들이 포위봉쇄를 강화하고있을 때 울기강밀영은 이렇게 조용하고 태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일제와의 준엄한 대결의 시작이었다.

그러면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엇을 믿으시고 어찌하여 적의 그 어마어마한 《공세》앞에서도 것처럼 태연자약하시며 전사들을 돌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시었는가?

이것은 신입대원 덕만이형제의 고향마을 근처를 지나오면서도 급변하는 정세만 생각하여 그들을 집에 틀리게 하지 않은 중대장을 타이르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말씀에서 뚜렷이 밝혀진다.

《지금 형세가 험악하게 급변하는것은 사실ियो.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싸우겠는가? 적보다 병력이 우세한가, 무기가 월등한가?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것은 오로지 우리 인민과 우리 대원들의 철석같은 결심과 신념뿐이 아니요?

지휘관들은 형세가 어려운 때일수록 작전지도보다 먼저 대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오. 물론 우리는 급변한 정세에 대처할 여러가지 전략전술적대책을 세우고있지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사람들의 혁명신념과 의지란말ियो.》

사람들의 사상과 의지, 사람들의 슬기와 힘에 대한 믿음, 이것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주체철학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확고한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 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인민들과 대원들의 철석같은 결심과 혁명적신념에서 수십, 수백배로 우세한 일제의 《토벌공

세》를 짓부실 위대한 힘을 보시였기에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처럼 전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였으며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량강구방면에 나가시여 식량을 마련하는 사업을 지도하시는 한편 인민들을 친히 만나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 적의 대대적인 《토벌공세》에 대처하여 세우신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의 그 전략전술적기초에도 인민들과 대원들의 힘에 대한 그이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놓여있었다.

그 어떤 군사가도 감히 뚫고넘어갈수 있으리라고 타산할수 없었던 눈덮인 목단령의 천고원시림을 돌파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돈화원정으로 진출시키신것도, 인민들속에서 200여명의 새 대원들을 받아들이시고 단기간의 군정련습을 통하여 그들을 일당백의 혁명전사들로 키워내신것도 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 인간의 슬기와 잠재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때문이다.

대포와 비행기까지 동원한 적의 수십만대군이 달려들 때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민과 대원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인간의 슬기와 힘으로 대응하시였으며 적의 량적, 기술적 우세를 사상적우세와 전술적우세로 타승하시였다.

장편소설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 문제해결의 결정적력량인 사람의 힘을 믿으시고 사람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며 그들의 힘을 역세게 키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짓부신 그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간고한 행군과 긴장한 군정훈련, 가렬한 전투로 이어져있는 대부대선회작전의 전로정이 인민들과 대원들에 대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한없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수놓아져있는 데서, 특히는 그이의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경쟁하고 불굴의 투사로 자라나는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감명깊게 확증되고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은 리성림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뜨겁게 구현되어있다.

인간은 인간을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 준엄한 환경에서 정치적파오가 있는 인간, 믿기 어려운 인간을 믿는다는것은 누구나가 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숭고한 인간애의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지니셨기에 엄중한 파오를 범한 리성림을 용서할수 없다고 모두가 들고일어났을 때에도 그의 얼굴에서 참다운 회오의 빛을 읽으시고 그를 혁

명동지로 믿어주시었고 그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는 그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대마루구예까지 가서 의사를 데려오게 하시고 수술을 하도록 용단을 내리시어 그를 살려주시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을 때에는 의사에게 그는 꼭 일어나 총을 잡고 싸워야 할 《남다른 사연이 있는 동무》라고 하시며 몸소 의약품까지 구해주시고 그가 사령부에 돌아올 날자에 돌아오지 못하였을 때에는 두만강반으로 진군을 다그치시는 그 긴장한 행군길도 멈추시고 재차 소부대를 파견하시어 기진하여 눈속에 쓰러진 그를 끝끝내 구원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믿음, 이런 사랑속에 모든 전사들이 조선혁명의 주춧돌로, 기둥으로 자리나는것이다.

혁명전사에 대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사랑은 오중훈전대장에 대한 사랑을 통해 더욱 숭고하게 그려져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잠뱅이를 입은 오중훈을 입대시키신 첫날부터 근 10년세월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면서 병사로부터 분대장, 소대장, 정치지도원, 중대장을 거쳐 전대장으로까지 체계적으로 키워주시었고 어려운 때마다 그를 기둥같이 믿으시고 대오의 맨 앞장에 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평소에 오중훈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였는가 하는것은 적들의 《토벌공세》가 시작되는 그 긴박한 정세속에서도 한주일 동안이나 밀영의 후방병원에 보내시어 《환자》로 휴식하도록 배려하여주시는데서 감동적으로 볼수 있다.

손바닥에 난 별치 않은 상처까지도 그토록 극진히 돌보아주시던 사랑하는 전사를 일으킨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슬픔은 참으로 절통하기 그지 없으시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숨을 거둔 오중훈의 몸에 자신의 따뜻한 체온이 스며있는 외투를 덮어 주시고도 사랑하는 전사를 언땅 밑에 차마 묻으실수 없으시어 그의 머리맡에 언제까지나 움직이지 않고 앉아계시었다.

《아, 이승과 저승이 얼마나 멀다더냐, 눈을 뜨면 이승이요 감으면 저승인데 어찌하여 한번 간 사람은 오지 못하며 한번 보낸 사람은 다시 찾아볼길 없이 된단말이나!

그이께서는 복받치는 슬픔을 참기 어려우신듯 얼음덩어리같이 찬 무덤흙에 손을 얹으시며 목메이신 음성으로 계속하셨다.

<동무를 이렇게 묻을줄을... 조국땅도 아니고... 두만강기슭도 아닌... 머나먼 이 북만의 얼음땅 밑에 널 한장 깔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묻을줄을... 누가... 누가 알았겠소...>》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적품모와 전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이 장면은 눈물 없이는 읽을수 없는 예술적화폭의 극치이다.

오중훈에 대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사랑은 그이께서 최인관에게 마음속을 털어놓으시는 장면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보다 더 귀중한 혁명동지에 대한 사랑, 부모처자를 떠나서는 살수 있지만 혁명동지를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것을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 몸소 체험하시고 신념으로 새겨넣으신 그 고귀한 사랑, 인간관계에서 혁명적동지애를 가장 귀중한것으로 여기시는 주체의 인생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숭고하고 뜨거운 사랑이다.

전사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어 혁명가로 키워주시고도 그들의 사랑 없이는 어떻게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겠는가 하고 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고마운 은인으로 여기시고 한량없는 동지적사랑과 고결한 인간적의리로 돌보아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인간애의 세계가 있다.

소설은 실재하였던 원형에 기초하여 창조한 최인관의 형상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혁명적의리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은 머리는 종교에 마비되고 육신은 유산자의 안락한 생활에 관습되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항상 의혹과 불신을 가지고 대하였으며 밀영에 와서는 불안과 공포, 심각한 내적동요를 겪던 최인관과 같은 사람이 1940년초에, 혁명에 참가하였다가도 신심을 잃고 대오에서 떨어져나가는 자들이 나오곤하던 그 준엄한 시기에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고결한 인품과 뜨거운 인간애에 감화되어 자진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운명을 같이하게 되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준다.

최인관은 성립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서 난생처음 맑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인간애의 빛을 가슴에 받아안고 여기 밀영에서 자기가 예측하였던 뱅혹하고 무자비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후덥고 순결한 인간성이 차넘치는 참다운 인간애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오중훈전대장을 잃으시고 끝없는 슬픔에 잠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와 같은 인간에게 마음속을 털어놓으시는 그 고결한 인품과 숭고한 의리에 감동되어 장군님을 다문 얼마간이라도 더 모시고싶은 간절한 마음을 안고 인민혁명군에 남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새 인간으로 갱생하는 최인관의 형상은 인간의 슬기와 잠재력에 대한 수령님의 신념을 확증하여주는 동시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제민족통일전선방침의 정당성을

체현한 뜻깊은 형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하여 혁명이란 말조차 번지지 못하던 신입대원들이 것처럼 빨리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자라날뿐 아니라 살기가 죽기보다 더 어려웠던 우리 인민들이 조국광복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고 곳곳이 살아나가게 된다.

이처럼 소설은 인간들의 경쟁과 성장, 그들의 투쟁과 운명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신념, 사랑과 의리가 우리 인민들과 대원들을 항일무장투쟁의 한길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일제를 타도하는 성전에 불려일으킨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인민들과 대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에 대부대선회작전승리의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의 종자를 똑똑히 쥐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탁월한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뿐 아니라 숭고한 인간애와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간으로 빛나게 형상한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가 달성한 가장 커다란 사상에술적 성과가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혁명의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사상성격적 특징이며 혁명적세계관의 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투사 오중훈동지를 원형으로 하여 창조된 오중훈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의도와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불굴의 혁명투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이다.

그는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뿐 아니라 사령관동지께서 지시하거나 명령하시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이의 의도를 심장으로 파악하고 자진하여 수행한다. 이것은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 달을 쳐다보시며 추석이 다가온다고 한마디 하시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그 이야기를 옮긴 당자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한 사령관동지의 심중을 깊이 헤아리어 추석 설 물자를 해결하여 사령부에 보내는데서 감동적으로 볼수 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옹호보위하는 것을 혁명전사의 첫째가는 본분으로, 최고의 의무로 여기고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오중훈의 숭고한 풍모를 3도백하기슁전투장면을 비롯한 여러 장면들에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특히 적의 흉탄에 맞아 운명하는 순간에도 가슴속깊이 묻어둔 한가닥 희망이었던 자기의 어린 아들에 대해서조차 한마디 비치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장군님을 잘 모셔달라는 한가지 부탁만을 동무들에게 남기고 최후를 마치는 오중훈의 모습은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린다.

참으로 오중훈의 형상은 살아서는 물론 죽으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고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바든 참다운 충신의 구상이다.

그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성의 화신으로 되게 된것은 수령님의 위대성과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누구보다 심장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고있었기때문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오중훈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을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모시고 받들어 나가는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빛나는 예술적전형으로 되게 되었다.

한때 반혁명분자에게 통락당하기까지 한 나약한 인간이었던 리성림이도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간직하고 불굴의 투사로 자라난다.

부상을 입은데다가 모진 주립과 혹한에 시달려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렵게 된 성림이가 중상당한 춘옥이를 쪽발구에 앉히고 끌고가다가는 쓰러지고 쓰러졌다가는 또다시 일어나 눈덮인 높은 령길을 넘어 사령부로 찾아가는 장면은 혁명동지에 대한 고결한 사랑과 곤난극복의 혁명정신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술적화폭이다.

소설은 이처럼 가장 엄혹한 정황에 가장 나약하였던 인간을 세워놓고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심장으로 간직하고 어떻게 가장 굳세고 아름다운 불굴의 투사로 자라나 시대의 영웅으로 행동하게 되는가 하는것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동지를 사랑하는 숭고한 동지에도, 곤난을 이겨내는 곤난극복의 혁명정신도 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뜨거운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다.

성림이와 춘옥이가 서로 의지하고 고무하며 이처럼 엄혹한 난관을 이겨내고 죽기보다 어려운 길을 한치한치 걸어올수 있는것은 오직 그들의 심장이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불타고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한 인간은 그 어떤 곤난,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혁명가의 보람과 절개를 지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바로 여기에 이 형상들이 가지는 커다란 교양적의의가 있다.

장편소설에는 귀족같은 마에다부대에 의하여 마을이 《토벌》을 맞는 참경이 묘사되어있는데

이 장면은 참으로 슬프고 가슴아프기 그지없는 장면이다.

칠성이 어머니의 형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기동처럼 믿고있었기에 어떤 참변, 어떤 시련도 꺾기지 않고 견디어낼수 있었다.

장편소설은 칠성이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과 인민의 일심동체, 인민혁명군과 인민의 군민일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아들딸, 며느리를 학살당한 모진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가슴에 한가득 피어있었던만 칠성이 어머니는 위대한 장군님 앞에서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장군님의 로고부터 걱정하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머니의 그 얼굴, 그 눈동자에서 짓밟혀 신음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구원을 기다리는 어머니조국, 삼천만 겨레의 모습을 보시고 이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울것을 대원들에게 호소하신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님은 인민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민은 수령님을 진심으로 받드는 바로 여기에 강대한 침략자를 쳐부신 위력한 힘의 원천이 있었고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수령님은 것처럼 위대하시고 우리 인민은 것처럼 역세였던 것이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숭고하고 영웅적인 내용으로 가득차있을뿐아니라 처음부터 마감까지 감격을 금할수 없게 감동적으로 형상되어있다.

이것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 인간을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인간학론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결과에 얻어진 빛나는 성과이다.

장편소설은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인간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뜨겁게 느끼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다감하신 인간적품모, 기쁨도 슬픔도 혁명전사들과 함께 체험하시고 뜨거운 인정도 나누시는 그이의 소박하고 고결한 인품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밝혀내고있다.

장편소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고결한 인품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 위대한 인간으로 빛나게 형상하고있을뿐아니라 모든 인물들을 인간학의 원리에 맞게 산 개성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특히 모든 중요인물들이 극을 체현하고있으며 그들의 운명이 극적으로 심각하게 그려져있다.

오중훈의 장렬한 전사, 리성립과 최인관의 목절에 찬 운명, 칠성이 어머니의 피눈물나는 비극적체험 등에 대한 생동한 형상들은 이것을 잘 말해준다. 소설은 이와 같이 등장인물들을 극적인 운명과 정황 속에 놓고 그들의 성격의 주도적특질들을 예리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새 인간들의 굳세고 슬기로운 모습과 성격발전과정을 훌륭히 전형화하고있다.

이 소설에서는 생활이 대부대선회작전의 역사적 로정을 따라 펼쳐지면서도 종자의 요구에 맞게 인물선, 사건선, 갈등선들이 옹골체 조직되고있다.

작품에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형상을 주선으로 하여 오중훈의 선, 리성립의 선, 최인관의 선, 칠성이 어머니의 선, 최장호와 순녀의 선, 장태준, 우덕근을 비롯한 신입대원들의 선 등 여러 인물선들이 설정되어있는데 이 선들은 다 주선에 맞물려 사령관동지의 위대성, 특히 그이의 고결한 인품, 인간에 대한 숭고한 믿음과 사랑을 밝히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 소설에 설정된 모든 인물선들은 서로 침투하고 교차되면서 작품에 다양한 생활화폭들과 여러 가지 정서적색채의 변화를 줌으로써 독자들의 예술적감흥과 정서적공감을 자아내고있다.

이것은 준엄한 전투장면이 펼쳐지다가 하면 눈물겨운 인정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비극적인 체험세계가 그려지다가 하면 흥겹고 락천적인 생활이 벌어지며 치떨리는 적들의 야수적만행이 묘사되는가 하면 놈들에 대한 통쾌한 복수전이 전개되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이 장편소설의 이야기줄거리에서 류다른 점은 오중훈전대장의 희생을 작품의 중간에 설정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맺지 않고 작품의 마감까지 계속 여운있게 끌여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못잊어하시는 오중훈에 대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가슴아프신 추억과 절절한 사랑, 오중훈이 자라난 요람이고 그가 키워낸 7련대 4중대를 그의 생전의 뜻을 살려 군정훈련과 전투에서 앞장세워주시려는 사령관동지의 뜨거운 배려와 그리고 군정훈련을 잘하여 오중훈전대장을 잃으신 사령관동지의 아프신 가슴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려는 장호를 비롯한 4중대전사들의 뜨거운 충성심에서 감동적으로 볼수 있다.

특히 오중훈이 남기고간 군사강의제강이 씌여져 있는 그 공책과 설명절에 사령관동지께 밝히라도 한끼 대접해야 한다고 그가 마련해준 두개의 통줄임과 자그마한 쌀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얼마나 독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인가!

오중훈은 갔으나 그에 대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사랑과 사령관동지에 대한 오중훈의 다함없는 충성심은 이렇게 장편소설의 갈피마다에 뜨겁게 굽어치고있다.

장편소설의 높은 형상성은 소박하고 진실한 묘사, 밝고 담담한 문제, 특히 생동한 세부묘사와 정서적인 심리묘사에 의하여 잘 보장되고있다.

묘사가 잘된 실례는 우에서 레중한 장면들외에도 위대한 사령관동지께서 량강구의 송화강가에 서 칠성이 어머니를 만나시는 장면을 비롯하여 오중훈이 풀밭에 누워 지나온 10년세월을 돌이켜 보며 안해에 대해 애절하게 회상하는 장면이며 마에다부대를 몽땅 소멸하는 흥기하전투장면 등 많은 장면을 들수 있다.

생동한 생활세부와 정서가 짙은 기름진 화쪽으로 하여 독자들은 작품의 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된다.

사람들에게 혁명적량식을 풍부히 주는 숭고하고 영웅적인 내용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한 바로 여기에 이 장편소설의 거대한 교양적힘과 높은 예술적가치가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위대한 수령님의령도를 높이 받들고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며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세상에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그린 혁명적인 장편소설이 적지 않지만 《준엄한 전구》를 비롯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과 같이 수령의 형상을 예술적화폭의 중심에 놓고 수령의 위대성과 고매한 덕성, 수령에 대한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의 다함없는 충성심과 숭고한 혁명적동지애 등을 눈물겨웁도록 감동적으로 묘사한 장편소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의 창작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를 공고히 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사업에서 더 큰 전진과 새로운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주체문학의 위용을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펼쳐야 할것이다.

## 나에게 당은...

동기춘

당을 노래하고자 붓을 드니

너무도 크낙한 세계

내 마음의 날개는 어린 새와도 같아

가슴은 설레건만 나래펼곳 너무 넓고나

내 다만 마음을 가다듬고

삼가 그대를 우러르면

무엇이던가 나에게 당은

내 안긴 하늘이 아닌가

해 지면 달 뜨고 달 지면 해 솟으며

나를 위해 빛나는 하늘이-

그것이 있어야 내가 있는

그런것이던가 나에게 당은

땅은 아닌가

내 사는 땅이

나를 위해 열매들이 단즙을 모으고

숲은 싱그러이 가지를 치고

내물조차 돌돌거리는-

이 땅이 없으면 내가 못사는

그런것이더라 나에게 당은

나를 안아준 하늘이

그 하늘이 더 아름다와지라고

나는 반짝이는 별

나를 보살피는 땅이

그 땅이 더 풍요하라고

나는 설레는 과일나무

당이며 그대는 나의 세계

물라라 그끝은 어딘지

마음의 나래여 날아다오

잠시 누리를 둘러보니

아, 해바라기처럼 따르는 중심에

오로지 향도의 해발이 빛나도다

## 만경대로 간다

한웅빈

호기심이 많다 많다 해도 그 애처럼 검질긴 대상은 드물것이다. 수놓은 파란 적삼우로 빨간바지의 뿔뿔을 군관혀머처럼 위신있게 엇갈려 걸친 대어섯살의 사내였다.

그 애를 나는 만경대로 가는 버스안에서 보았다. 그 애는 제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여서서 차창밖을 내여다보며 계속 묻군했다. 길걸는 한 로동자를 보고는 이렇게 물었다.

《저 아저씨 어디로 가나?》

《공장으로 간다.》

그 애는 또 물었다.

《공장엔 왜 가나?》

《일하러 가지.》

《무슨 일 하러 가나?》

물음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어린애에게 완전히 이해할수 있는 대답을 주는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것이다. 한참 묻고 대답하는 사이 그 애가

《그런데 공장엔 왜 가나?》

하는 물음으로 되돌아와 나는 빙그레 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녀인의 인내성은 아이의 호기심보다 더 놀라웠다. 차창밖으로 지나가는 모든것에 대한 아이의 단순하고 끝없는 질문을 그는 모두 감당해냈다. 이력저력 죄다 리해시키군했다.

그때 관광버스 한대가 우리 버스를 선행하여 달려 지나갔다. 거기에는 얼굴색갈들이 다른 외국인들이 타고있었다. 만경대로 가고있는것이였다.

《어머니, 저 사람은 어디서 오는 사람이나?》

《저 멀고먼 아프리카라는데서 온단다. 저 사람들이 사는곳은 햇빛이 무척 뜨겁고 일년내내 언제나 무더운 여름이란단다.》

애너석은 그썸한 대답에 만족할리가 없었다.

《먼데서 뭘하러 오나?》

까다로운 물음이었다. 그러나 재삼 말하지만 녀인은 놀란만한 인내성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아이를 만족시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만경대로 간다.》

나는 이번만은 녀인이 아이에게 만족을 줄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만경대로 가는 크나큰 목적에 대하여 철부지어린애에게 무슨 말로 다 리해시킬수 있단말인가.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애는 더 물을대신

《응- 만경대-!》

하고 어른처럼 말꼬리까지 길게 끌며 감탄했을 뿐이었다. 다음은 죄다 알만하다는듯 차창에 달라 붙어버렸다.

나는 놀랐다. 공장에 왜 가는지조차 리해되지 않아하던 어린애다운 단순성은 어디로 갔는지, 어머니로서의 참을성이 아니면 견딜수 없을 검질긴 호기심은 어디로 갔는지... 그 애는 어른들처럼 의젓하게 머리를 끄덕거리기까지 했다...

나는 문득 나 역시 누구에게서도 만경대로 왜 가는가 하는 물음을 받아본적이 없다는것을 회상하였다. 아무리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친근한 사람이라도 《만경대로 간다.》고 하면 더 묻지 않는다. 나 역시 지금까지 그랬다.

《만경대로 간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다. 다른 말이 더 필요없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만경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탄생하신곳 우리모두의 아버지의 고향이 아닌가. 그곳은 우리모두의 마음의 고향이 아닌가...

차는 만경대갈림길에 이르렀다. 오른쪽은 강선으로 가는 길이고 곧추 뻗은 길은 만경대로 가는 길이다.

37년전의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력사의 갈림길에 서계시였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부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저기가 바로 만경대요. ... 좋은곳이요.》

아름다운 만경대. 지원의 높은 뜻을 키우시였던 군함바위, 썰매바위, 씨름터, 학습터와 무지개잡이하던 느티나무가 위대한 수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늙으신 조부모님께서 계시는곳, 항일혈전의 20여성상 단하루도 잊으신적 없는 만경대였다. 하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리운 만경대를 지적에 두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 차를 돌리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마다하시였던 그 길로 우리는 오늘 노래를 부르며 달려가고있다.

... ...

인민은 충성의 꽃다발 안고

만경대 찾아가네

... ..

우리는 만경대를 찾아왔다. 만경대에는 꽃이 만발했다. 먼산발의 계곡에는 아직 눈이 희끗희끗하고 가로수는 푸른 잎을 펼치지 못했으려면 만경대에는 진달래가 만발했다.

우리 나라의 봄은 만경대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만경대의 진달래향기를 맡고 돌아서면 모란봉에서 망우리를 터뜨리는 진달래를 보게 되고 양덕-맹산의 산발들이 붉은 물감을 떨어뜨린 듯 더미더미 피어난 진달래에 덮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경대는 봄의 고향이기도 하다.

여기도 꽃, 저기도 꽃, 마치도 만경대의 자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을 수천수만의 꽃다발로 장식하려는 듯했다.

고향집의 나지막한 사립문은 언제나처럼 열려 있었다. 어서 들어오라고 부르는 듯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력사의 집, 너무도 소박하고 너무도 평범하여 오래도록 떠날수 없게 하는 만경대고향집,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험난한 먼길을 떠나시였던 혁명의 집, 그때로부터 오늘까지에는 얼마나 기나긴 세월과 멀고먼 로정이 놓여있었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70성상 한평생을 바치시여 우리 인민의 오늘을 마련하시였다. 우리의 오늘은 만경대의 고향집에서 태어난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만경대를 《마음의 고향》이라고 부른다. 70년전 4월의 그날부터 만경대는 우리 인민의 고향으로 되었다...

나는 갑자기 손등에 따뜻한 입김을 느끼었다. 내려다보다 아까 뺨스에서 보았던 사내애를 발견하였다. 그 애의 옆에는 적도의 태양에 그늘은 키가 큰 외국인이 서있었다. 그러나 그 애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아무런 말도 묻지 않았다!

다만 보습과 농쟁기, 물레, 쭈그러든 독, 사적물들을 지켜볼뿐이었다. 그 눈길은 어른처럼 의미심장했다. 그 애는 모든것을 알고있는것이 아닐가. 심장으로 느끼고있는것이 아닐가.

그럴수도 있다. 하기에 그 애는 자기의 주위에 있는 놀라운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자그마한 고향집뜰안에 나란히 서있다는것이면 충분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이를 모신 사람들인것이다,

나에게도 우리 사람들속에 서있는 외국인들이 이상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또한 봄철옷차림의 늙은이와 젊은이들, 정복을 입은 군인과 안전원

들, 제복을 입은 철도정무원과 해원들이 서로 섞여있는것도 이상스러워보이지 않았다. 다른곳에서라면 이상스러웠을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모든것이 자연스러웠다.

부차적인것은 죄다 사라졌다. 정복과 제복의 차이, 직업의 차이, 모든것은 사라졌다. 우리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이로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그 애도 이것을 느꼈을수 있다. 아니 느꼈을것이다. 어른이나 어린애나 심장은 다같이 뜨거우며 민감한것이다.

나는 유서깊은 고향집 뜰안에 이윽도록 서있었다. 사람들의 물결은 계속 흘러들었다. 그들속에는 용해공도 탄부도 농장원도 어로공도 있었다. 군인도 안전원도 학생도 있었다. 오대양륙대주의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외국인들도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곳을 나서면 길가는 사람들 모두가 만경대로 가는 사람들로 보이고 만나는 사람들모두가 만경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로 보일것이라고, 그것은 진실이상의 진실이다. 우리는 모두 만경대로 달리는 마음을 안고 살며 일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 나라의 모든 길은 만경대와 이어져있다고, 지평선까지 일직선으로 그어나간 큰길도, 구불구불 구름우로 뻗어오른 령길도, 《충성》호 프락토르 굴러가는 산간 소로길도, 소란한 공장구내길도, 농장벌의 좁은 두렁길도 모두 만경대와 잇닿아있다고. 이 나라의 모든 길은 만경대로 향하였고 만경대에서 시작되었다고.

어찌 이 나라의 길뿐인가. 얼마나 많은 외국의 벗들이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안고 찾아오는것인가.

한때 유럽사람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해왔다. 그들이 애용하는 격언이기도 했다.

하나 오늘 그들은 말한다. 《모든 길은 만경대로 통한다》고!

하기에 우리는 어느 길로 걸으나 설사 심심산속 탐사의 길을 홀로 걷는다 해도, 이국의 어느 거리길을 홀로 걷는다 해도 가닿는곳은 오직 한 곳이다. 만경대고향집이 언제나 나직한 사립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있기에.

4월의 만경대, 황홀한 꽃물결로 설레이는곳, 이것이 만민이 찾아오는 오늘의 조선이며 래일의 조선이다...

# 어버이사랑

정화흠

다닥다닥 판자집이  
즐비한 골목  
이 밤도 바람은 비를 물고  
벽이며 지붕이며 사정없이 치는데  
숨가쁘게 찾아온 이 동네 분회장

-하, 할머니  
조국을 방문한 영철동무가  
아버이 수령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조선신보》 펼치며 동네분회장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찍은  
영철이의 사진을 손꼽는다

어디어디  
서랍을 연다  
재봉함을 뒤적인다  
숨가쁘게 찾아낸 돋보기안경  
떨리는 두손으로 코허리에 걸고서  
할머니는 정신없이 사진을 보네

할머니는 그만 눈물짓네  
주먹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며  
멍하니 한곳을 바라보네  
팔자를 한탄하며 하늘을 흘기던  
영철이의 어린시절 생각하는가

무슨짓을 안했으랴  
새벽마다 배고파 우는 영철이  
그 작은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가렸으랴  
부모를 일찍 여윈 불쌍한 손자  
영철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그러나 모자랐네

두팔을 못뻗는 이 땅에서는  
땅을 치면서 설음도 홀로  
하늘을 저주하며 눈물도 홀로  
할머니와 영철이는  
살아도 죽음같은 목숨이었다

그 목숨 건져주시고  
영철이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하늘보다 드높은 수령님의 사랑  
그 사랑에 목이 메여  
이 밤도 늦도록 잠 못 이루는데  
어찌하여, 아, 어찌하여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어주시는지

목이 메인다  
눈앞이 흐려진다  
이런 사랑 이런 은정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는지  
할머니는 참지 못해 문을 열고  
울음을 터뜨리며 밖을 나오네

어느덧 비도 멎고 바람은 잠자고  
하늘엔 휘영청 달이 밝아  
처마끝에 구슬이 반짝이네  
이 밤의 기쁜 소식 축복하는가  
어디서 풀벌레 은방울을 울리네

아, 이 세상 모든 행복 혼자 지닌듯  
푸른 광채속에 몸을 묻고  
할머니는 밝은 달 바라보며  
달빛속에 수령님의 영상을 그리면서  
소리없이 눈물짓네  
눈물속에 소리없이 수령님을 노래하네



## 여울물소리

김련화

## 1

강물은 흐르는듯 마는듯하였다. 어둠이 깃든 강가엔 고즈넉한 정적만이 깃들어있다. 불시에 닥쳐온 봄시위도 이 강물의 태평스러움을 어쩔수 없어 그냥 스쳐지나고마는것만 같았다.

금희와 영심은 조용한 그 강변길을 걸어가고있었다. 늘씬한 키에 튼튼한 몸가짐으로 하여 퍼그나 듬직하고 꼭 가라앉아보이는 금희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불안하고도 심란한 기색이 짙게 어려있었다. 방금전에 있던 회의에서 그는 설계원 생활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설계대상을 맡은것이였다. 그것도 설계를 직접 담당한 책임자로. 이것은 후미진곳의 물처럼 조용하고 잔잔하게 흘러온 그의 생활에서 자못 충격적인것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설계기관에서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된 지금까지 일해오는데동안 금희는 사업소적으로 도면을 깨끗이 치고 계산이 정확한것으로 하여 단연 첫손가락에 꼽히고있었다. 차분하고 섬세한 성미와 오래동안의 숙련을 통해 쌓여진 높은 기능 때문에 유능한 설계원들은 누구나 다 그에게 자기 설계대상의 제도와 계산을 부탁하고 싶어하였다. 이러한 자신을 두고 금희는 비록 큰 대상을 맡아 척척 처리해제끼지는 못해도 가정부인으로서 그들의 사업을 성실하고 믿음직하게 뒷받침해주는 굳건한 주춧돌이 되고있다는 은근한 자부심까지 갖고있었다.

그의 이러한 생활을 두고 못내 놀라와한것은 대학3년후배인 강영심이였다. 상급생과 후배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조용하고 수더분한 금희의 사심없는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남을 잘 믿고 따르며 웃고 떠들기 좋아하는 영심의 순진성과 불같은 성미로 하여 그들은 간격없는 사이로 되어버렸다. 하기에 10여년세월이 흐르는동안 사생활의 중요한 사변들을 겪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가움은 각별한것이였다. 이번에 새로 나온 도경제지도위원회로 소환된 남편을 따라 내려온 영심이 설계사업소에 배치되어오던 날 금희는 기쁨으로 그를 막 부둥켜안기까지 했었다. 그간 지나온 일들에 대하여, 결혼은 언제 어떻게 하였고 남편은 어떠한 사람이며 사업에서 성과는 있는가, 아이들은 몇이며 건강하게 잘 자라는가 등... 실로 해도해도 끝이 없을 녀성들만이 주고받을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참 나누고난 뒤 영심은 선망어린 눈길로 금희를 쳐다보며 물었다.

《언니, 언니 지난 10년동안 술한 다리들을 말

아 설계했을테지요. 전 언니가 설계한 창조물들을 보고 싶어요!》

너무도 순진한듯만싶은 영심의 말에 금희는 그저 웃기만했다.

《아이 그저 웃기만하네. 이젠 진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언니, 보여줄래요?》

《영심이의 그 불같은 성미는 여전하구나. 하지만 나한테 영심이에게 보여줄만한 창조물이 없는걸...》

《없다니요? 그럼 언니 설계기사가 아니예요.》

《설계기사이긴 하지만... 어디 직접 설계를 맡아 할 형편이 됐어야지. 아이가 셋씩이나 달린 가정부인인걸...》

금희는 가볍게 미소하며 레사롭게 대답했다. 영심이는 그말의 뜻이 잘 납득되지 않는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금희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금희는 자기의 마음속 밀창까지를 속속들이 꿰뚫어보는듯싶은 영심이의 그 진주같은 눈을 차마 마주볼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도 딱히 알수 없는 먼구스러움을 느끼었다.

《호호... 왜 그렇게 놀라? 난 남들이 맡은 설계의 도면도 치고 수치도 계산하구... 그러루한 뒤 바라지를 하고있지 뭐. 꼭 설계를 제손으로 해야만 맛이겠어. 난 내가 하는 일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 동무들도 날 존경하고... 그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어. 안그래? 영심이.》

《그러니 언니 자기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있다는게로군요.》

영심은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그래 더 바라는것 없다지 않아. 듣자니 영심은 그간 건설장에서 현장기사로 일했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손 좀 보아. 나무등결같이 께뻘한걸.》

금희는 영심의 드손을 살뜰히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영심은 그날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발부리만 굽어보았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디론가 잠깐 나갔던 영심은 눈살이 꺾끗해서 금희를 찾아왔다.

《언니, 어쩌면 이럴수 있어요. 사람을 얹잡아 봐도 분수가 있지...》

한창 도면에 치수를 적어넣던 금희는 영심을 의아스레 돌아봤다. 영심은 마치 묵새길수 없는 모옥을 당한것처럼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금희는 얼른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심의 어깨에 가벼이 손을 얹었다.

《영심이 왜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

《저... 정릉진동무 있잖아요. 그래도 대학시절의 선배라고 해서 믿고 나도 대상을 맡아 설계할 수 없겠는가고 의논했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가정부인기사들이야 술한 돈을 먹어 값비싸게 양성한 만년조수들인데 대상을 맡아서야 되겠소. 금희동무 한테서 사는 법을 배우오.> 하며 빈정거리겠지요.》

금희는 너그럽게 웃었다. 그는 세차게 오르내리는 영심의 어깨를 살뜰히 껴안았다.

《그 동문 워낙 입담이 그렇게 드세겠지. 나도 처음엔 성도 내고 화풀이도 했지만 인젠 익먹어 났어. 그까짓 룡진동무의 룡담을 탓할게 있어. 대상을 맡을 대담성이 있으면 한번 실장동무나 설계지도부에 제기해보지. 그 덕에 나도 대상처리를 해보게...》

일은 바로 그렇게 되었다.

금희의 룡담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영심은 〇-8간 도로공사설계를 접수하는 오늘회의에서 가정부인기사들에게도 대상을 맡겨줄것을 제기했던 것이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어떤 설계원들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고 가정부인들은 아연한 표정들이었다. 금희는 아연했다. 그는 자기의 룡담이 이처럼 돌발적인 사태를 빚어내리라고는 예측조차 할수 없었던 것이다. 금희는 자기의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설계대상을 맡겨달라고 제기하는 영심이가 민망스럽기까지 했다. 더우기 딱하게 된것은 회의에 참가한 소장이 영심의 제의를 적극 지지해 나서면서 금희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한번 해체해보라고 했던 것이다. 금희는 여러 사람들앞에서 차마 못하겠노라는 말을 할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영심이와 함께 한적한 강역을 걸으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기만 하였다.

《언니,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요?》

금희의 마음을 알길 없는 영심이 물었다.

《그저 두루 이 일 저 일...》

금희는 허거픈 웃음을 지으면서 끝이끝대로 대답하길 피했다.

《언니, 난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오늘 언니와 함께 설계를 맡고보니 어쩐지 우리가 품 높은 인간으로 느껴지겠지요.》

영심의 한껏 맑은 음성이다. 금희는 그 말에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머리우에 휘날려진 버드나무 가지를 잡아채어 강물에 뿌려던졌다. 영심은 놀란 눈길로 금희를 이윽히 바라보다가 머리를 떨구었다. 금희는 자기가 이렇게 감정의 포로가 되어 영심이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애써 혼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때껏 들고있던 꽃보자기에 싼것을 영심이 손에 쥐여 주었다.

《이건 상점에서 사온거야... 다음번 일요일에

유치원에서 봄놀이를 간다는데 많은건 아니지만 희귀한것들이니 순진이에게 갖춰줘.》

《고마와요, 언니.》

영심은 성의에 감동된듯 혼연히 받으며 각별히 친근한 눈매로 금희를 쳐다보았다. 봄밤의 부드러운 강바람이 그들의 옷자락을 가볍게 날리고있었다.

## 2

봄비가 내리더니 땅우의 모든것이 변했다. 길가의 화단과 공원, 집집의 담장들너머에선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기 시지했다. 봄물이 오른 나무가지에선 발그스름한 꺾질을 터치며 새움이 연두색 입술을 뽀조름히 내밀었다. 맑은 날씨를 말해주듯 이슬로 축축해진 땅우엔 안개가 떠돌고 태양은 찬연한 빛을 뿌리며 떠오르군한다.

금희는 이 아침 퍼그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영용이가 것처럼 손꼽아 기다리던 유원지로 가는 날이 온것이였다. 유치원에선 아이들편에 어머니들이 꼭 함께 와달라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해보냈다. 금희 역시 오래전부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날을 준비해왔지만 정작 유원지로 가게 되는 이 아침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며칠째 금희와 영심은 자기들이 맡은 다리설계를 위한 기술자료를 준비하느라 무척 바쁘게 보냈다. 대상을 책임진 금희는 영심이에게는 기초자료를 수집해오도록 여러 연구소들에 보내고 자신은 구조력학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문헌실에 들어박혀 설계참고서며 낡은 설계문헌들을 저녁 늦도록 뒤졌다. 고심끝에 그는 몇해전에 건설한 다리설계서들속에서 이번 대상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할듯싶은 도면을 찾아냈다. 금희는 너무 기뻐 가슴이 더 울렁거렸다. 그 수성천 다리설계도면의 아래구석에 찍혀있는 명판을 보니 설계자란에는 룡진의 이름과 수료가 굵직하게 찍여져있었다.

(그 동무가 좀 거만하긴 해도 설계기능이 높다는걸 인정 안할수가 없지. 이 설계를 받아들여야겠어. 그렇거면 많은 정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빠른 시일안에 설계를 끝낼수 있을거야.)

금희는 이런 생각을 하며 그 설계서를 대출해서 설계실로 가져왔다. 그는 흐뭇한 기분으로 영심을 기다렸다. 영심은 퇴근시간이 가까와올무렵에야 설계실에 들어섰다. 봄바람때문인지, 여기저기를 드바빠 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러는지 가무스름하게 타고 입술에 보풀까지 인 그는 지친 기색도 없이 명랑한 웃음을 띠우고 금희의 책상앞에 한덩어리의 콩크리트시험체를 올려놓았다. 금희가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자 영심은 얼굴을 활짝 빛내었다.

《언니, 이건 건재연구소에서 최근에 새로 연구해낸 03호건재예요. 새로운 첨가제를 써서 만든

이 고강도견재를 쓰면 건설자재를 30%나 절약하고 양생기일도 앞당길수 있대요. 우리 이 견재를 기초로 다리설계를 하는게 어때요? 종전의 다리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새 구조를 고안해낼수 있어요. 언니, 얼마나 매력적인 견재예요!»

콩크리트시험체를 두손으로 부둥켜안고 서서 열정에 차 이야기하는 영심의 두눈은 환희로 빛나고있었다. 금희는 너무나도 뜻밖의 일에 억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새 견재에 기초하여 다리를 설계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10여년세월 설계기관에서 일해온 금희는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바로 자재의 절약, 새로운 구조에 현혹되어 현실적으로 파악이 없는 견재를 설계에 받아들였다가 실패한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는가. 얼마전에도 새것에 민감하기로 소문난 수성천다리설계자 룡진이조차 현장기사가 연구해낸 대용세멘트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도록 자기 설계에 반영했다가 큰 사고까지 낼뻔했었다. 금희는 새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심의 순진한 열정에 휘말려든다면 자신도 그런 처지를 면할수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그것이 또한 첫출발하는 녀성설계집단에 좋지 않는 평판을 남겨놓게 되리라 느껴지자 금희는 영심을 잘 납득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심이, 새것이 좋다는걸 나도 부인하지 않아. 하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성공시키자면 얼마나 많은 품과 정력을 들여야 하겠어. 그러니 가정과 직장일을 안고 부산스레 뛰어나야 하는 우리들에게 좀 아름다운 파제가 아닐가. 공연히 사서 고생할것 없이 무난하게 이 설계서에 준해서 우리가 맡은 대상을 설계하는데 어떻게?》

금희는 도면을 책상위에 펼쳐놓았다. 영심은 두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가 어쩌나 놀라고 아연해 했던지 금희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어쩔 그런 생각을 다... 그래 언니 낚은 설계를 복사해서 제것이라고 버젓이 내놓자는거예요?》

영심은 에두름도 없이 성미그대로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터놓았다. 금희는 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하지만 새 견재를 받아들일것을 전제로 하고 새로운 다리를 설계했다가 사고라도 낸다면... 이런 아연한 생각이 들자 이 문제에선 결코 양보를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는 짐짓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보이면서 타협조로 말했다.

《좋아, 우리 서로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다시 토론하자.》

금희는 영심이의 들끓는 성미가 가라앉을 때를 기다릴셈이었던것이다...

유원지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삼라만상은 바야흐로 파사로운 봄벌에 활짝 움터나고 소나무의 싱그러운 냄새는 물기를 머금어 축축한 공기에

함뿍 배여있다. 사람들은 유흥시설마다에서 욕실거렸다. 아이들의 쾅쾅한 웨침소리, 처녀들의 청맑은 웃음소리, 남자들의 꺄꺄거리는 호탕한 소리... 그냥 웃음바다 환희의 바다였다.

유원지의 곳곳을 돌고난 유치원꼬마들과 학부형들은 숲속의 넓은 공지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두팀으로 나뉘어 체육경기를 벌렸다. 바줄당기기로부터 시작된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백열전을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모두가 배를 끌어쥐고 옷게 만든것은 뿔안고 뛰기였다. 유치원꼬마와 학부형이 같이 달리게 된 그 경기는 선수들을 선발하지 않고 체비로 뽑았기때문에 더욱 불만했다. 영심이와 순진은 《압록강》팀의 마지막선수로 경기에 나가게 되었다. 호각소리가 울리고 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하자 넓은 공지는 그냥 웃음판이 되었다. 영심이와 한팀인 금희는 박수를 치며 열광적으로 응원을 했다. 다섯조가 뛰게 되어있는 경기는 처음부터 《압록강》팀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처음에 뻔 학부형은 손자를 따라온 예순이 지난 할머니였던 것이다. 《두만강》팀은 키가 늘씬한 30대의 젊은 녀인이 딸애와 같이 나왔는데 그는 처녀시절엔 달리기선수였던 모양으로 뛰기도 잘 뛰었지만 딸애가 뿔군 뿔도 날새게 붙잡아다 안겨주곤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뿔을 놓쳐버리고는 붙잡지 못해 쪼쪼매며 온 운동장을 헤매고다녔다. 그러면 손자녀석이 자기 뿔을 놓고 할머니의 뿔을 붙잡아주려고 극성스레 뛰어나니군했다. 《압록강》팀은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지고들여간판이라 결과는 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맨마지막에 뛰게 된 영심이 차례가 왔을 때 《두만강》팀의 마지막선수는 벌써 기발 못힌곳을 에돌고있었다.

《영심이, 뛰어나나 진건데 그만뒤요-》

금희는 흥이 깨어져 소리를 쳤다. 하지만 영심은 마치 그 웨침을 듣지 못한듯 뿔을 안고 딸애와 같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사람들은 와-와- 떠들어댔다. 유원지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밀려와 어깨성을 쌓았다. 그들은 《두만강》팀의 마지막선수가 결승테프를 끊는것 같은건 안중에도 없는듯 저마끔 웨쳐대며 영심이와 순진이를 응원했다.

영심은 순진이가 두번씩이나 뿔군 공을 붙잡아다 안겨주면서 맹렬한 기세로 달린다. 이에 감동되었는지 이미 승리를 쟁취한 《두만강》팀도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드디어 그들이 결승선에 외당자 《압록강》팀은 몽땅 떨쳐나가 영심이를 에워쌌고 순진이를 번쩍 들어올려 공중그네를 태우기도 했다.

《네 어머니의 성미가보통이 아니구나. 노력상을 탈만하다.》

이 마지막경기는 금희에게 영심이가 결코 03호 견재에 기초한 자기의 설계안을 철회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스스로 깨닫게 했다. 그 느낌속에서

금희는 문득 자신도 영심이처럼 새로운 과학기술에 현혹되기도 하고 자기의 창조물을 조국땅위에 일떠세워보려고 가슴불태우던 처녀시절을 회상했다. 꿈도 크고 열정도 뜨거웠다. 하지만 결혼후엔 그 모든것을 가슴속 깊은곳에 묻어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가정주부란 여차피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아니 제도술이 높고 계산이 빠르면서도 정확하다는 찬사속에서 그리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준박사가 된 남편과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가진 행복한 가정이라는 평판속에서 처녀시절의 불타는 탐구심과 창조적 열정도 점차 사라지고 만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금희는 영심으로 하여 다시금 헤집어진 추억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아마 그때문에 영심에게 떠밀려가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느낌이 새삼스러워지면서 어쩐지 서글퍼졌다. 점심을 먹으러 소나무숲 여기저기에 적당히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영심은 금희에게 한장의 속사품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고대건축물인 정각이 그려져있었다. 약간 배가 나온 날씬한 기둥은 지붕의 육중한 맛을 덜어주면서 경쾌한 미를 돋구어주고있었다.

《산아래 풍경을 구경하러 등성이에 올라갔다가 눈에 띄워서 한장 그려왔어요. 언니, 우리도 03호 건재를 써서 이처럼 경쾌한 상부구조에 세로 구부림을 훌륭하게 해결한 이런 형식의 기둥을 받쳐주자요. 그럼 얼마나 날씬하고 우아한 다리가 될가요!》

영심의 눈동자는 꿈많은 처녀처럼 황홀경에 빛났다.

### 3

온종일 정적이 깃들어있는 설계실에도 부산스러운 때가 있다. 그것은 아침이었다. 계속 여닫기는 서류함문소리, 도면을 제도판에 붙이느라 부시럭거리는 종이장소리, 썩썩 버루에 먹가는 소리, 칼로 연필심을 가늘게 다스리는 소리로 하여 넓은 설계실은 한동안씩 술렁거리기 마련이었다.

요사이 금희는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설계대상을 맡은 다음부터는 종든쉴든 설계실에서뿐아니라 출퇴근길에서도 자기의 설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고 집에 들어와서도 기술도서들을 들추어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그를 보고 남편은 희한해하였고 될수록이면 안해의 일손을 덜어주려고 애쓰곤했다. 금희는 워낙 가정일에는 담을 쌓고있던 남편이 우습기도 하고 어쩐지 언짢아지기도 했다.

《당신은 새 연구과제에나 머리를 쓰시라요. 자기 맡은 일이야 제가 어련히 다하지 않을라구요.》

그는 이렇게 남편에게 통을 놓기도 했다. 오늘 아침에도 남편은 그의 일손을 도와준답시고 딸

애의 머리장식에 쓸 꽃송이들을 그 투박한 손으로 매만지다가 오히려 죄 망가뜨려놓았었다. 금희는 설계실에 들어서며 그 모든 일을 쓸쓸히 회상하였다.

영심의 책상은 비어있었다. 기술잡지며 참고문헌들이 책상안쪽에 차곡차곡 쌓여있는것으로 보아 늘쌍 하던대로 기술학습을 한것은 분명한데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이었다. 금희는 자기 자리에 앉아 영심에게 주려고 가지고 나온 남편의 준박사연구논문이 실린 책을 뒤적이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났으나 영심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매마침 큰 도로공사설계를 책임지고 현지조사차로 출장을 떠나는 통진이가 다가왔다.

《허허... 금희동무, 동무네 설계집단이 나에게 강타를 먹이려고 든든히 잡도리를 했더구만! 좀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난 진심으로 성공을 바라오. 내가 맡은 설계대상이 바빠 오늘 동무네 현장시험에 가볼수 없는게 유감이긴 하지만 설계 합평회때엔 부러 시간을 내서 들어오겠소.》

진정인지 룡담인지 딱히 가늠하기 어려운 통진의 말에 금희는 저으기 놀랐다. 오늘 바로 03호 건재의 현장시험을 하기로 되어있었다는 생각이 그제야 머리를 쳤던것이다. 간밤 영심에게 오늘 아침일찍 나와 시험현장인 다리건설장으로 함께 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쩌면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을까? 그는 자기 자신이 못내 민망스러웠다. 시간은 벌써 아침 열시가 가까웠다. 그는 부랴부랴 가방을 들고 설계실을 뛰어나와 도시교외에 일떠서고있는 다리건설장을 향하여 종종걸음을 쳤다. 강건너편에 새로 건설된 큰 화학공장과 이쪽 주민지구를 연결하는 영림다리건설장은 들끓고있었다.

풍트림하며 흘러내리는 강물속에 억센 기둥을 박고 일떠선 육중한 다리에서는 상부구조공사가 한창이었다. 이쪽 끝에서부터 대안저쪽까지 아치형으로 쭉 뻗어간간 넓다란 나무휘틀판우로는 굵고 가는 철근들이 가로세로 거미줄처럼 얽혀있었다. 도시쪽의 강기슭엔 넓은 부지를 차지한 공사준비장이 펼쳐졌는데 그곳에서는 각종 기계들의 소음이 메아리쳐 울려오고있었다. 벨트콘베아가 하늘공중으로 머리를 쳐든곳에는 모래무지가 산처럼 쌓였고 대형자동차들은 꼬리를 물고 자갈을 실어들인다. 대형혼합기는 위세를 뽐내며 굵직한 아구리에서 잘 이겨진 회색빛갈의 혼합물을 폭포처럼 쏟아놓고있었다.

금희에게는 들끓는 건설장이 무척 눈에 익으면서도 어쩐지 생소하게만 여겨졌다. 대학시절엔 그도 이런 다리건설장에 나와 여러번 실습을 했었다. 건설자들과 함께 철근조립도 하고 콘크리트도 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한 다리공학기사가 되면 자기 손으로 설계한 다리를 일떠세우리라는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의 푸른 꿈은 정녕 한갓 꿈으로만 남아있지 않았던가. 그는 자신이 마치 이 건설장에 낯선 손님으로 찾아

온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금희를 서글프게 했다.

《동무, 그 자갈을 혼합기에 넣지 마세요-》

문득 어디선가 거의 명령조로 웨치는 녀자의 쟁쟁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금희는 잠에서 깨어난 듯 흠칫 고개를 들었다. 퍼그나 귀에 익은 음성이었다. 목소리임자는 육중한 혼합기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으나 금희는 자기도모를 충격에 끌리어 그쪽으로 걸어나갔다. 모래산을 돌아서니 자갈이 무더기로 쌓인곳에 영심이와 학교를 갓 졸업한듯한 애송이청년이 마주서있었다.

《이 자갈에 묻어있는 진흙이 보이지요. 이런 자갈을쓰면 콘크리트세기가 낮아지고 다리는 오래 견디 내지 못해요.》

영심은 팔뚝같이 굵은 물호스를 손에 든채 조용히 타일렀다.

《타입공들이 너무 다귀대서 그만... 설계원동무 잘못했습니다.》

넙적한 각삼을 든 청년이 히죽 웃으며 영심의 손에서 물호스를 빼앗았다. 그는 높은 압력으로 쏘아오는 물줄기로 자갈을 말끔히 씻으며 서글서글하게 말을 했다.

《설계기사동지를 보고 우리 건설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현미경이라고 해요. 대충 스쳐 지난곳을 속속들이 까밝혀내는데는 꼼짝을 못하겠답니다.》

《호호... 별소리를 다 하누만요.》

영심은 방싯 웃었다. 청년은 영심이가 자기 말을 롱으로 넘겨버리려 하자 더 목소리를 높였다.

《전 보고들은것 그대로 말해요. 처음엔 모두들 아주머니를 이 다리설계자인가 했는지 않아요. 펍 후에야 03호건재의 현장시험때문에 우리한테 다닌 다는걸 알았지만 어쨌든 다리설계자가 안예요. 오늘이 시험날이지요? 모두들 관심이 대단하거던요.》

《그래요...》

영심은 상냥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손수건으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찍어냈다.

금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났다. 웬일인지 영심이앞에 선듯 나설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것이다. 어느덧 그는 휘틀직장앞에 이르렀다. 거기서는 기계톱들이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잘디잔 톱밥들을 휘뿌리기도 하고 대패날우로 하얀 대패밥들이 돌돌 말려나오기도 했다. 어디 가나 일터는 흥성거리고있었지만 금희의 마음은 그닥 즐겁지 않았다. 스스로도 딱히 무엇때문인지 알수 없었다. 그는 종잡기 어려운 번거로운 생각에 잠겨 한동안 자신을 잊고있었다.

《아이, 언니!》

영심이가 반갑게 소리치며 그한테로 달려왔다. 그의 몸에선 건설장의 활력이 그대로 풍겨나고 있었다.

《언니, 제가 먼저 떠났다고 속으로 욕했지요.

하지만 시험기계들을 쓰러니까 지령서도 받아야겠고 해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나왔더랬어요.》

오히려 미안해하는 영심의 말에 금희는 약속을 잊어버리기까지 한 자신이 더욱 열적어졌다. 그것을 고백하기가 쑥스러워 금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머리를 돌렸다.

《시험을 곧 할수 있겠지?》

《예, 건설사업소 기사장동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는지 몰라요. 벌써 시험장소에 나갔을 거예요. 한데 언니, 전 웬일인지 막 불안스러워져요. 모두가 것처럼 성공을 바라기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영심은 그 빛나는 눈동자에 한가득 걱정을 담고 금희를 건너다보았다. 금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후 03호건재의 현장시험이 시작되었다. 성공이나, 실패나... 금희는 가슴을 조이며 시험결과를 지켜보고있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결과를 바라고있는지 딱히 알수 없었다. 만약 실패하는 때엔 처음 결심한대로 설계를 추진시킬수밖에 없다는 생각만이 갈마드는것이였다. 얼핏 그는 인장기에 물린 시험부재에 눈을 때지 않고있던 영심이의 얼굴이 해쓱해지는것을 보았다. 덜컥 내려앉는 가슴을 부둥키고 가까이 다가서보니 부재엔 눈에 알리는 실금들이 갔다.

(그러니 결국 시험은 실패를 면치 못했구나.)

금희는 금시 가슴이 허전했다. 영심은 락심해서 어깨가 축 처져내렸다. 금희는 그런 영심을 보는데 마음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건설장을 벗어나자 생각에 잠겨 맥없이 걷는 영심이에게 따뜻한 어조로 위로하듯 말했다.

《영심이, 너무 걱정 마요. 창조란 언제나 그렇게 힘들기 마련인걸... 어쨌겠어. 인젠 어차피 처음 안대로 수성천다리설계에 준해서 대상을 밀고 나가도록 하자구. 가뜰이나 03호건재의 시험때문에 설계기일이 늦어졌는데 빠른 시일안으로 그결 봉창해야 할게 아니야.》

《언니, 그만하세요.》

영심은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들었다. 거친 숨결이 금희의 귀뿌리를 따갑게 했다.

《언니 과연 그런 속생각을 가지고 03호건재에 기초한 설계를 추진시켜왔나요? 난 언니가 설마 그럴줄은 몰랐어요.》

영심은 눈물에 젖은 음성으로 맴짜게 내쏘았다.

《영심이, 솔직히 말해서 난 너와의 우정을 귀중히 여겼기때문에 매번 너한테 양보해왔어. 하지만 인제 더는 뒤로 물리설수 없구나. 네가 아무렇게 나를 힐책해도 좋아. 하지만 난 언젠가도 미리 말해두었지만 이번 다리설계를 맡은 책임설계자로서 실패한 03호건재때문에 이 이상 설계

를 질질 끌수 없어.)

금희는 영심이때문에 휘달려든 세찬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려는 강렬한 반발심으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 전 기사의 량심을 가지고 남의 설계를 모사하진 못하겠어요. 전 그렇게 하진 못하겠어요!》

영심은 두손을 모두어잡고 몸부림치듯 열차게 부르짖었다. 그뒤엔 누구도 더 말이 없었다. 두녀자는 비로소 학창시절부터 소중히 아껴오던 살뜰한 우정에도 금이 갔으며 빠개진 이 감정의 균열을 메꾸기가 어려우리라는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그들은 어딘가 어색한 기분으로 제자끔 자기의 생각에 깊이 잠겨있었다.

#### 4

하늘은 흐릿했다. 비바람이 불고있었다. 나무들은 우듬지까지 마구 뒤설레였다. 현지조사를 나간 수성천다리설계자 룡진을 찾아가는 금희의 마음도 꼭 이 울씨년스러운 날씨같았다.

오늘아침 실에서는 설계대상추진정형에 대한 중간총화가 있었다. 그들이 맡은 대상은 실적으로 제일 뒤꼬리를 차지했다. 실장은 가정부인으로서 처음 대상을 맡아서 그럴수 있노라고 뒤를 능쳐주었지만 금희는 머리를 쳐들수가 없었다. 사회생활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직장일을 두고 이런 무안과 창피를 당한것이였다. 결정적인 대책이 없이는 제기일에 설계를 내놓을것 같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대답하게 현지조사를 나간 룡진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한것이였다. 이것은 결혼 후 내내 설계실내부에서만 일해오던 그의 생활에서 한번도 있어보지 못한 사변이였다. 그의 제의를 듣고 실장은 저으기 놀란 표정으로 《그럼 집은 누가 돌보겠소?》 하고 걱정스레 물었다.

《영용이 아버지가 요즈음 집에 계시요. 그리고 딸애도 인젠 곧잘 집안밖을 거두고 동생들의 시중도 하는걸요.》

금희는 벅사로운 어조로 대답했으나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했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 언제 한번 부엌일을 해보지 못한 남편이 끼니를 끓이노라 아침출근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발목을 붙잡고 자꾸만 그를 뒤로 끄당겼던 것이다. 하지만 금희는 그 모든 사사로운 감정을 뿌리쳤다. 달리는 어쩔수 없었던것이다. 부질없이 03호건재에 미련을 가지면서 룡진이가 아직 현지로 떠나지 않고 실에 있을 때 필요한 자료들을 알아내지 못하게 한스러울뿐이였다.

그는 떠나기전에 영심이에게 자기가 없을동안 수성천다리의 상부구조철근배치도를 그대로 제도해놓으라고 일렀다. 내여미는 설계도면을 받을뎌도 않고 영심은 그 맑은 눈동자에 안타까움을 담고 금희를 바라보았다.

《언니, 새 과제를 받고 세멘트공장에 나간 03호건재연구사동무한테 편지를 냈어요. 곧 회답이 오겠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보는게 어때요?》

《영심이, 더는 고집부리지 말어. 이미 결정한대로 설계를 추진시키려는 내 결심은 여전해.》

금희는 이 바쁜 대목에 와서까지 03호에 매달리면서 자기와 도무지 보조를 맞춰주지 않는 영심이가 더욱 섭섭하게 느껴져 단마디로 물리쳤다.

《한번의 실패에 기가 꺾이여 주저앉아버린다면 우리에게 대한 평판이 더욱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설계대상을 맡아할 어린 동무들에게 주는 영향도 그렇고...》

《나도 그때문에 더 참을수 없는거야. 오늘 총화모임때 영심인 마음이 편했어? 사람들이 우릴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

금희는 처음으로 어성을 높여 자기의 불만을 터뜨렸다. 영심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속눈섭을 내리깔았다.

그 모습이 두시간 남짓이 기차를 타고와서 시오리 잡되는 산골길을 홀로 걷는 금희의 눈앞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금희가 현지에 도착한것은 점심시간 림박이였다. 설계원들은 룡진이의 지휘밑에 조사작업을 하느라 그가 다가서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측량기의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신호하는 기계수의 손짓에 따라 4미터나 되는 긴 표척이며 붉고 흰 색깔로 높이를 표시한 뿔뿔들을 들고 여기저기로 부산스레 뛰어다니는 설계원들의 이마에선 땀이 흐르고있었다. 《우로, 좌로, 표척 곧바로, 끝-》 하고 웨치는 소리, 거리를 재며 재빠르게 풀렀다가 감기군하는 강철테프의 쟁쟁한 소리, 땡땡 측량말뚝을 박는 망치질소리...

자기의 창조물을 가져보려는 강렬한 지향이 있었던 처녀시절엔 금희도 바로 그들처럼 저렇게 자그마한 흙타기며 크지 않은 바위도 놓쳐버릴세라 세밀히 지형을 조사하여 야장에다 간깐스레 적어 넣곤하였었다. 언젠가는 대소한기간에 강심의 깊이를 정확하게 잴다고 채 열지 않은 얼음판 위에 올라섰다가 강판에 빠진적도 있었다. 동무들의 도움으로 인차 얼음구멍에서 나와서 나무람하는 룡진이에게 빠진덕에 강밑바닥의 가장 정확한 표고를 얻지 않았느냐고 랑랑한 웃음속에서 대답하기도 했었다. 어쩐지 그 시절이 그리워지면서 금희는 가슴이 알찌근해졌다. 금희는 그들의 작업모습을 몰끄러미 지켜보다가 표척을 바로세우지 못해 기계수로부터 계속 반복작업을 당하는 처녀결로 다가가서 말없이 일손을 거들어 주었다. 불시에 나타난 그를 보고 표척수도 놀랐지만 망원경으로 이쪽을 내다보고있던 기계수가 환성을 질렀다.

《금희동무가 왔소-》

뜻밖의 웨침에 어리둥절해진 설계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금희쪽을 바라보더니 반갑게 환성을 지르며 뛰어왔다. 금희는 자기의 출현이 모두에게 이처럼 반가움을 자아내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동무들은 저마다 그의 손을 덥석덥석

잡아주며 이것저것 물었다. 미처 대답할 경황이 없었다. 금희는 설계실에서는 체험할수 없었던 친밀감을 가슴후덕게 느꼈다.

금희는 룡진이와 함께 숙소로 정한 마을을 향해 나란히 걸어갔다.

《설계를 위해 이처럼 뛰고있는 금희동무를 보니 지난날 내가 가정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옳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있었는가가 뉘우쳐지오.》

늘 입에서 룡담이 떠날줄 모르던 룡진은 오늘따라 전혀 판사람이 된듯 진중한 표정이었다.

《그래 어떻게 왔소?》

금희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대충 들려주고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룡진은 그 소리에 실망한듯 한동안 묵묵히 담배만 태웠다.

《글쎄 기초자료를 주는거야 어렵겠소. 하지만 난 영심동무의 립장을 지지하고싶구만. 설계란 새것을 창조하는 거창한 일인데... 솔직히 말해서 난 동무네가 03호건재에 기초해서 다리설계를 한다는걸 알고 펍 기뻐했소. 금희동무가 인재야 골뱅이속에서 벗어나 기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라고... 하지만 나의 기대는 때이른것이었던가 보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안고 먼길을 찾아온 금희는 룡진이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전혀 뜻밖이었다. 그는 너무 매정한듯싶어 고개를 다 소꿉이 하고 입을 꼭 다물었다.

《금희동무, 우리 여기에 좀 걸터앉지 않겠소?》

그의 심정을 리해한듯 룡진은 여느때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강역의 바위를 가리켰다. 그들은 바위우에 가지런히 앉았다. 한낮의 봄별은 끝안을 울리며 흘러가는 시내물우에서 찬란히 부서지고 있었다. 벌써 잔디가 웅단처럼 부드러워졌고 나무잎새도 애기손바닥만큼씩 커졌다.

《난 금희동무가 대학때부터 영심동무와 다정하게 지냈다는것을 잘 알고있소. 하지만 아마 그를 다는 리해하지 못하고있는것 같구만. 설계대상을 맡겨달라고 제기한 회의가 있는 그날이요. 나는 영심동무에게 두번째로 걸쭉한 룡담을 했더랬소. <기사의 자존심만은 살아서 대상을 맡았지만 해내기가 힘들게요. 내 설계를 수입할 생각은 없소?> 하고말이요. 그러자 그의 눈살은 대번에 꺾어졌다. <아무리 룡담이라도 어찌면 그런 말을 쉽사리 입밖에 낼수 있어요. 전 놀랍군요. 룡진동무의 입에서 다시는 그런 룡담이 못나오게 하기 위해서도 금희언니와 함께 아직 누구도 해내지 못한 새 형식의 다리를 꼭 설계해낼테야요. > 하고 영심동문 열차게 부르짖었소. 내 입이 걸다는건 금희동무도 잘 알지만 난 영심동무의 그 불같은 지향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더랬소.》

금희는 룡진이가 영심이를 두둔할수록 마음이 더욱더 허진해지고 안타까워졌다. 영심이의 그 무모한 열정이 잔잔히 흘러가던 자기의 생활을

소용돌이속에 밀어넣었었고 인재는 더 헤어나올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던가. 믿고 왔던 룡진이 역시 자기의 심정을 리해해주지 않는다. 금희는 자기의 마지막 지탱점이 와락 허물어짐을 통절히 느꼈다. 인재는 과연 어디에 의거하여 설계를 추진시켜야 하는가...

그는 무겁고도 종잡을수 없는 심정으로 좌-좌-소리치며 드바빠 줄달음치는 세찬 여울물을 바라보았다.

등뒤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울렸다. 룡진이 머리를 돌렸다.

《전화가 왔어요. 영심동무가 금희언니를 찾아요.》

표적을 바로 세우지 못해 애를 먹던 처녀가 눈이 울롱해서 소리를 쳤다. 금희는 급한 마음으로 시외전화가 걸려온 축산작업반사무실로 뛰어갔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아니면 남편이 혹 불시에 출장을 떠나게 되었는지...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한꺼번에 온몸을 휩쌌다.

《금희언니예요? 나 영심이에요-》

영심이의 쩍쩍한 목소리가 전화기의 진동판을 울렸다.

《다리건설장에서 걸어요. 언니, 글쎄 03호건재 연구사동무가 우릴 위해 방금 먼 출장지에서 돌아왔군요. 함께 시험현장에 나가 실패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실마리를 찾았어요! 언니, 빨리 와요. 언니가 있어야 다시 시험을 시작할게 안예요. 곧 들어오지요? 전 기다려요. 한시가 급하게 기다리고있어요...》

그리움과 기쁨, 믿음이 함뿍 배어있는 영심이의 목소리에 금희는 한방망이 얻어맞은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영심은 대답없는것이 안타까운듯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다급히 불러보기도 하고 전화가 끊어졌나싶어 흑흑 불러보기도 했다.

금희는 눈물이 콧 솟구쳤다.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머나먼곳으로 전화까지 걸어준 영심이!

그를 두고 자신은 여직껏 어떻게 생각해왔던가 처음으로 만나던 날 자기의 창조물을 보여달라고 어린애처럼 조르며 쳐다보던 그의 맑은 눈동자가 삼삼히 떠올랐다. 십여년세월 조국땅우에 하나의 다리도 일떠세우지 못했다는 자기의 대담을 듣고 놀라고 의아해하던 얼굴도 회상되었다.

이 순간에야 금희는 그러한 자기를 두고 영심이가 얼마나 가슴아파했는지가 깨달아졌다. 자기를 더 높은곳으로 떠밀어주려고 영심은 대상을 맡겨 달라고 했으며 03호건재에 기초하여 새로운 다리를 설계하자고 열렬히 주장하지 않았는가. (영심이, 날 용서해줘-)

금희는 영심이가 앞에 있다면 와락 부여안고 한껏 잘못을 빌고싶은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목

소리에 담아 대답을 했다.

《영심이, 곧 가겠어. 기다려요. 꼭 기다려 줘, 응!-》

하나의 다리설계를 두고 버성겨진 사이를 보다 더 튼튼하게 한마음으로 이어주고있는 가느다란 전화선이 그 맑고 정찬 음성을 재빨리 날라갔다.

## 5

설계합평회가 열리는날 아침 영심이가 금희네 집으로 찾아왔다. 손기척소리에 문을 연 금희는 너무나 뜻밖의 일에 그만 두눈을 크게 떴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꼭 어울리게 독특한 형태로 지은 은회색의 봄철양복을 짝 빼입은 영심이가 활짝 웃고있었던것이다. 그 날씬한 몸매를 은근히 드러내면서 생신하고도 경쾌한 미를 덧쳐주고있는 옷차림과 품위를 돋구는 머리단장, 활력이 넘친 온몸을 떠받들고있는 예쁘장한 굽높은 구두는 합평회가 열리는 오늘을 그가 어떤 기분으로 맞이하고있는가를 한순간에 느끼게 했다. 모름지기 그는 자기와 함께 합평회로 떠나기 위해 먼길을 예돌아서까지 이렇게 집에 들렸을것이었다. 이르지 않는 일도 금희에게는 깊은 감명을 주었다. 잠시후에 두 녀자는 거리로 나왔다.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지나간 넓은 거리는 한껏 맑고 상쾌했다. 이른아침이어서 아직 출근하는 사람들은 적었다.

《언니, 우리 설계를 성심성의로 도와준 03호건재연구사동무와 건설사업소 기사장동무를 합평회에 초청했어요. 반대없지요?》

영심은 한껏 밝은 미소를 머금고 금희를 바라본다.

《영심이, 아무래도 변론은 영심이가 해야겠어. 이번 설계야 영심이 한거나 다름없지 않아?》

금희는 이 며칠새 해오던 논쟁을 마감짓자는듯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영심은 대번에 고집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언니 후날 책임질가 두려워 그러지요? 좋아요. 그럼 설계도면에 찍힌 명판부터 죄다 고쳐요. 저기다 내 이름을 써넣으면 내가 수표를 하지요.》

짐짓 성을 내는체하는 영심의 말에 금희는 웃고말았다.

합평회가 열리게 된 회의실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다른 실의 설계원들도 참가했고 03호건재연구사와 건설사업소 기사장의 구리빛얼굴도 보였다. 어제저녁에 출장지에서 급히 달려온 룡진은 처음으로 합평회에 나서는 금희에게 여러모로 방조와 조언을 주었다.

두명의 설계원들이 자기들의 설계를 내놓은후 금희는 흥분으로 뛸뛰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도면들을 앞벽에 주련이 내걸었다. 회고 두터운 종이에 먹으로 정성껏 그려진 다리가 두드러지게

확 안겨들었다.

깊은 골짜기여서 류달리 높은 교각의 새로구부림을 훌륭하게 해결한 날씬한 기둥, 03호건재를 씌으로써 두께를 3분의 1씩이나 대담하게 줄인 새로운 형식의 경쾌한 상부구조, 그것들은 서로 서로가 한껏 어울려 독특하고도 세련된 매력을 덧쳐주면서 아름다운 건축미를 펼쳐놓고있었다.

도면을 바라보는 금희의 눈앞에는 벌써 조국의 힘준한 산발을 누벼가며 뻗어나간 길들을 한줄기로 련결시키며 우뚝 솟은 다리가 생생하게 펼쳐졌다. 순간 금희는 먼후날에도 조국땅우에 거연히 솟아있을 훌륭한 다리를 설계해낸 자신이 전보다 비할바없이 품높고 힘있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기사로써 새롭게 탄생했음을 느꼈다.

누가 자기를 이처럼 벅찬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 들어서도록 떠밀어주었던가.

금희는 한없이 고맙고 친근한 눈길로 실내를 짙 채운 사람들속에서 영심을 찾았다. 자기에게 오늘의 이 뜻깊고 행복한 자리를 양보한 영심은 요구할 때면 언제든지 넘겨줄수 있도록 설계기초자료가 적힌 종이장들을 탁자우에 펼쳐놓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금희는 뭉클해지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방금 태어난 첫아기를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기겁고도 벅찬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여 설계의 변론을 시작했다.

...합평회가 끝난후 금희와 영심은 나란히 강변길을 걸었다. 설계대상을 말고 불안과 초조 그리고 잔잔히 흘러가던 자기의 생활을 알수 없는 소용돌이속에 떠밀어넣는듯만싶은 영심에게 고가움을 품고 견딘 그 길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일찌기 체험해본적 없는 설계가로서의 궁지와 자부심, 가슴부푼 행복감에 취해 나래돈긴 기분으로 걷고 있다.

《언니가 준 영용이 아버지의 논문이 실린 책을 감명깊게 읽었어요. <다리건설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공방법>-정말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제목이더군요. 언니, 우리 다리건설에 그 시공방법을 받아들여요. 의견없지요?》

영심이의 열정에 넘친 말이었다. 금희는 해도 해도 못다하는듯만싶은 일을 두고 한시도 쉬임없이 사색하고 행동하는 영심이의 불타는 두눈동자를 곧바로 들여다보며 힘있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불시에 다닥친 봄시위로 엄청나게 불어난 강물이 그들이 걷고있는 길 저쪽에서 흐르고있었다. 여울목을 빠지는 물소리가 세차게 들렸다. 잠시도 진정할줄 모르는 그 청청한 물소리는 금희의 가슴속을 뒤흔들어주며 그냥 앞으로만 떠밀어주는것 같았다.



# 우리 당비서

정성환

멀어져가는 저 모습  
이 아침 벌써 기중기동체에  
따스한 체온을 남기고가는가  
머리 희끗한 당비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찍는 걸음  
어데나 우리보다  
먼저 닿는 그 손길  
이 가슴 뜨거웁구나

내 올라야 할 아슬한 저 팔끝에도  
그대 먼저 올라볼 때  
문득 내 어린시절  
뛰어넘고싶던 도랑도  
안아 건네주던  
아버지의 그 모습 생각되더라

그대 내 허리의 안전띠를  
한번 더 죄여줄 때  
언듯 가슴속에 사무치는건  
물도 목메일가 마음쓰던  
어머니의 깊고깊은 그 인정이더라

언제였던가  
며칠밤 며칠낮  
드바쁜 일손을 놓지 못할 때  
나의 운전대를 빼앗아줘며  
그대의 눈빛은 얼마나 엄했던가  
어서 들어가 쉬라고  
이 밤 다하지 못한 내 《임무》는  
잠자리에 아직 남아있다고

엄한 그 눈빛

나를 감싸안은 따사로움이였기에  
내 마음 어찌  
눈물로 솟구치지 않았으랴

로동이 권리로 되고  
휴식이 의무로 되는줄 내 몰랐으랴만  
로동자들을 아끼는  
뜨기운 그대 진정  
이 가슴에 불덩이로 옮겨와  
더 일하고싶어...  
더 일하고싶어...

아, 영광스리운 당중앙의 빛발  
넘치는 이 땅에서  
그 사랑 그 따사로움  
이 가슴 깊이 새겨주며  
함께 가슴 맞대이고 사는  
우리 당비서

그대 앞서가는 걸음을 따라  
우리는 멀리도 왔어라  
천리마거리 락원거리...  
빛나는 위훈을 수놓으며  
오늘은 문수거리 건설장한복판에

당중앙의 사랑속에  
로동의 기쁨 한껏 꽃피어나는  
삶의 령마루우에  
걸음걸음 마음을 다잡아세워주며  
사상도 정신도 높이 이끌어  
끝없이 앞길을 열어가는  
그대 불타는 심장  
아, 당의 빛발 천만가닥  
그 한가닥이 되어 타고르고있어라

# 기발이여 앞으로!

장호건

기발이여 앞으로  
바다가  
땅으로 변하는  
그 한끝에  
기발이여  
너는 휘날린다

진눈까비 흘날리고  
삼킬듯 파도는 울부짖어도  
기발이여 너는  
그 불같은 나래 펄럭이며  
이해를 위훈으로 부른다

우리는 가슴마다  
뜨거이 안고 사노라  
영광의 전투장에 우리들을 세워준  
아버이 그 사랑  
성스러운 위업으로 청춘들을 불러준  
당중앙의 크나큰 그 믿음이여

그 사랑 그 믿음 안고  
너와 함께 돌격전의 앞에  
우리의 용맹은 나래쳤거니  
아슬한 칼벼랑을 뚫고  
두줄기 철길이 뻗어간곳에  
강철의 성새로  
철의 도시가 솟아나는 그곳에  
화불처럼 타고르던 기발

추켜들면 우주도 움직일  
힘과 용맹이 샘솟고  
휘날리면 천만지혜 번뜩여  
세기를 빛내일 기적도 솟구치나니

아 오늘은  
파도 세찬 난바다

들끓는 간석지건설장  
우등불 타고르는  
새 발전소 언제우에  
세차게 펄럭이며  
새로운 위훈으로 부르는 기발이여

너는 청춘의 열정  
너는 위훈의 노래  
속도전의 폭풍속에 나래치는  
너는 용맹과 슬기의 나래

기발이여  
열정과 랑만에 찬  
젊은 날의 우리 삶은  
너와 함께 달음쳐가고  
너는 우리의 댁으로  
뜨겁게 거세차게 불타오르거니

산악도 격랑도 딛고 올라  
몰아치는 폭풍도 휘여잡아  
일떠세우리라  
해빛넘치는 이 강산에  
로동당시대의 찬연한 기념비들을

아 당의 부름  
피끓는 가슴에 안고  
진격의 첫 머리에 떨쳐나선  
우리는 혁명의 돌격대

가리라  
터져오르는 환희의 꽃보라속에  
아버이수령님과 당중앙 우리러  
충성의 보고 드릴 영광의 그 한길로  
기발이여 앞으로!  
기발이여 앞으로!

# 내가 사는 땅

신영근

때-현대

곳-도시주변에 위치한 어느 한 협동농장에서

△

서정심 (남새반 작업반장)

박철봉 (도농기계공장 노동자)

정애숙 (농장원)

최농선 (농장원)

박성삼 (관리부위원장)

처녀 (농장원)

△ 막이 열리면 방창이 울리는속에 사막너머 멀리 현대적인 농촌마을의 아담한 풍경이 펼쳐진다.

꽃구름 피어나는 가없이 맑은 하늘. 푸른숲 설레이는 산기슭에 펼쳐진 기름진 들판. 흐르는 시내. 실버들이 늘어진 강변, 동쪽길로 정심과 철봉이가 정답게 이야기하며 지나간다.

방창

금물결 넘실넘실 물에 넘치고

과일동산기슭에는 양떼가 흐르네

아, 한그루나무에도 오솔길에도

정다운 꿈이 어린 내고향이어

△ 뒤무대 어두워지면서 자막판에 단막극 《내가 사는 땅》이란 제목이 새겨지는 동시에 사막이 올라간다.

△ 무대 밝아지면 감빛노을이 붉게 타는 저녁무렵. 양수장이 바라보이는 남새밭머리. 무대를 가로질러 둔덕길이 지나갔고 한쪽에 치우쳐 아지가 무성한 아름답리 백양나무가 한그루 서있다.

△ 정심과 철봉 웃으며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둔덕길로 지나간다.

△ 성삼이가 백양나무뒤에 서서 흐뭇한 얼굴로 그들을 지켜본다.

성삼 …그러면 그럴겠지!(무릎을 친다.)

천상배필이라더니. 우휴...(땅에 주저앉는다.)

△ 이때 무대뒤에서 염소의 울음소리.

성삼 (와뜰 놀라며) 이놈의 염소새끼…!넌 눈치코치도 없니?(돌을 던진다.)

△ 처녀의 명랑한 코노래소리. 이어 딸기를 담은 광주리를 안고 애숙이가 나온다.

성삼 (애숙을 지켜보다가) 쉬!

애숙 어마나!(주저 앉으며)부위원장아저씨두…간 떨어지겠네. 왜 그래요?

성삼 저걸 못봐?

애숙 (어리둥절해서 그쪽을 보다) 애개! 반장언니가… 남동문 누구예요?

성삼 췌! 말소릴 낮추라는데.

애숙 …?!

성삼 제눈으로 보구두 몰라? 정심이의 새서방감이지 누군누구겠니, 지금 맞선을 본다.

애숙 맞선이요?! 정말요? (두사람 나간쪽으로 달려나가려다.)

성삼 아하!(잡으며) 애, 지금은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넌 굶이나 보다 떡이나 먹어라.

애숙 호호…그래서 이 딸길 가져오라고 했군요. 아저씨, 어디 사는 동무나요.

성삼 (자랑하듯) 도농기계공장에 다니지.

애숙 도농기계공장이요?! 야 어쩌면…

성삼 왜?

애숙 중단말이지요 뭐. (바라보며) 야…! 키도 늘씬하구 체격두 좋네, 제대군인인가요?

성삼 그럼 땅크병이었지.

애숙 땅크병…?!

성삼 (두손으로 손풍금을 타는 시늉을 하며) 이거 또한 명수지.

애숙 아이! 손풍금말인가요?

성삼 그럼.

애숙 야 그저 말만 들어두…

성삼 가슴이 울렁거리지? 허허…

애숙 현대 부위원장아저씨 저 동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성삼 저 사람이 내 칠촌조카야.

애숙 네?! 호호…그러니까 부위원장아저씨가 소개하셨군요.

성삼 꼭지야 내가 뻔지만 이미 서로 알고있었던 모양이더라. 도일보에 둘이 다 혁신자라고 사진까지 나란히 실렸었으니까…그러기다 내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저렇게들 만나서 좋아하지

애숙 아저씨 말을 듣고 보니까 생각나요. 정심언니한테 얼마전에도 낫선 편지가 왔었어요.

성삼 그것 봐라. (담배를 붙여물며) 정말 눈물이

날지경이다. (담배연기를 내뿜는다.)

**애숙** 호호...아저씨두 참 눈물까지야뵈.

**성삼** 야, 정심이가 이게 몇번째인줄 아냐? 내가 나선것만도 열두번째야 열두번째...

**애숙** 어마나...! 아이, 정심언니가 뭐가 모자라서 열두번째이나 퇴짜를 맞아요? 일잘하지, 일굴 잘났지, 마음씨 곱지 게다가 이름난 작업반장이겠단.

**성삼** 누가 정심반장이 퇴짜를 맞았대?  
서로 나이가 맞지 않거나 여사모사해서 성사되지 않았다는거지...정심이가 분조장사업을 할 땐 시집소리만 해도 펄쩍 뛰는통에 말한마디 못해보고 몇년 지났지. 그러다 작업반장이 되니 작업반 추켜세우느라고 내몰다나니 또 한두해 지나 그 애 나이가 덜컥 스물일곱이 됐지. 농장에 배치되어오는 제대군인들은 하나씩 달고오지 않으면 약속해둔곳이 있대, 농장 총각녀석들은 신통히도 정심이 동생벌이 되지... 내 정말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못가고 수직수직 일만 하는 그 엘 불적마다 가슴이 바글바글 탔느니라. 그런데 글썽 잘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 수박이 달린다구 정심이가 일이 잘될라니까 내 칠촌조카녀석이 제대되어 아직 장가를 안들고있었던말이다. 허 허...

**애숙** 어쩌면 부위원장아저씨 반장언니한테만 그렇게 각별하실까, 호호...

**성삼** 내 죄진게 있어서 그런다지 않냐?  
넌 이자껏 뭘 들었니, 농사일만 시키다나니 정심이 나이 스물일곱이 됐다구, 이제 눈 감았다 뜨면 서른이야 서른...정심이 아버지가 미국놈 폭격에 억울히 돌아갈 때 나한테 딸을 맡기고 갔는데 글썽 처녀나이 스물일곱이 되도록 내버려뒀으니 내 그래 도리가 됐냐? 실은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우리 농장 노랑자위를 할수없이 도시에라도 보내는 거야.

**애숙** 내가 아마 도시총각한테 가겠다면 육만 하실거야...그렇지요?

**성삼** 그렇지 않구. 넌 아직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농장총각을 얼마든지 끌라잡을수 있어.

**애숙** 아이참...난 뭘 눈이 없구 코가 없나요?! 그 리구 우리 농장에 누가 있어요?

**성삼** 왜? 총각이야 많지. 3반에 덕근이, 파수반에 칠성이...아니 애, 다른 작업반 건드릴게 있냐? 너와 늘 코 맞대고 일하는 농선이도 있구나.

**애숙** 네?! 농선동무요?? 호호...

**성삼** 왜? 사람은 진국이야! 속궁냥이 깊은녀석이 구말고.

**애숙** (성삼의 말은 귀담아듣지 않고있다가) 저 관리위원회에 나한테 온 편지 없었나요?

**성삼** 똥판지같이 편지는 무슨 편지?

**애숙** 아이참, 나한테 뭘 편지올데도 없는줄 아세요?

△ 이때 농선 술병을 종이에 싸서 들고 들어선다.

**성삼** 범 제소릴하면 온다더니 마침 오는군.

**애숙** 호호... 전 가겠어요.

**성삼** 애 애숙아, 가만 좀 있거라. (농선에게) 가져왔나?

**농선** (시무룩해서 술병을 내놓을뿐.)

**성삼** 아니...?! 겨우 한병이야?

**농선** ...

**성삼** 술 한병을 가지고 무슨 약혼식을 해? 못해 두 열명은 모여왔을테니까. 세병은 있어야 한다고 안그래. 그래 임잔 코김만 썰텐가?

**애숙** 호호...

**농선** 전 안가요.

**성삼** 자기 반장 약혼식에두 안가?

**농선** 부위원장동지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하십시오. 공연히 농장처녀들 도시바람들게 하지 말구요.

**애숙** 아이참, 농장처녀들이 뭘 어쨌다구요?! 저 동문 정말...

**성삼** 응, 그건 농선이 말이 옳다. 여보게, 내 얼른 1작업반에 가서 작업반장들 총화모임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갈테니까 정심이 새서방감이 오거든 이걸 같이 들면서 농장자랑을 좀하라구. 그러다가 천천히 집으로 데리고 오란말이야. (나가려다.)

**애숙** (뿔로통해서) 아이 난요?

**성삼** 애숙이 넌 제격 축산반에 달려가서 내 이름으로 토끼 한마리 가져오너라, 닭은 우리 집에두 있으니까.

**애숙** 알겠어요.

△ 성삼 급히 나간다.

**농선** (나가려는 애숙에게) 저...애숙동무!

**애숙** ?! ...뭐야요?

**농선** 자. (편지를 내민다.)

**애숙** ...무슨 편지야요?(받으며) 우표없는 편지... (확인한듯) 아이! 왔구나, (좋아한다.)

**농선** 누구한테서 온거야?

**애숙** 그건 알아서 뭘해요?

농선 글썄 누구한테서 온거나 묻지 않아?  
 애숙 별걸 다 캐묻는다니까...  
 농선 동무...일에 대해서 무관심할수 없으니 그러지 뭐.  
 애숙 아이참, 그건 무슨 까닭이에요?  
 농선 (중얼거리듯) 젠장, 이거 빼개놓지두 못하구...  
 애숙 아이 답답해, 어서 할말이 있으면 하라요.  
 농선 젠장...이보라구. 동무한테 요즘 그런 편지가 두세번 온것 같은데...  
 애숙 그래서요?  
 농선 편지가 올적마다 별루 시뚝해서 그러니까 하는소리야.  
 애숙 아이참 정말 싱겁다니까. 남이야 시뚝하진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농선 남의 일갈지 않아서그래.  
 애숙 실없는 소리 그만해요. 그런데 이 편질 누가 가져왔어요?  
 농선 영 시내에서 버섯 실러 온 웬 아주머니가 전해달라구 주더구만.  
 애숙 그럼 지금두 있겠군요.  
 농선 그렇겠지...  
 애숙 (달려가련다.)  
 농선 축산반은 이쪽이야.  
 애숙 어마나! 정말 토끼부터 가져와야지.  
 농선 하여튼...(담배를 꺼낸다.)  
 애숙 흥, 피우지 않던 담배는 왜 피우나?  
 농선 속이 타서 한팩 샀지.  
 애숙 속타긴...(나가려다.)  
 농선 애숙동무...  
 애숙 아이 왜 자꾸 그래요?  
 농선 젠장...하여튼 분공이나 받으라구. 일요일 저녁에 작업반기술학습회가 있는데 동무가 주토론을 해야겠어.  
 애숙 네?! 난 그런건 못해요. 그리고 주토론이야 농산기수인 동무가 해야지 왜 날보고 하라구 그래요.  
 농선 야...아니 나만 자꾸 하겠어?  
 애숙 정말...  
 농선 내 적극 도와줄게. 자 이건 제목이구(끼고있던 책 한권을 주며) 이건 참고서적이야. 시범적으로 토론을 잘해야겠어. 다른 동무들에게 자극이 되도록...  
 애숙 (마지못해 받으며) 아이 어떻게나! 정말 속상해서...(나가려다.)  
 농선 (따라나서며) 그러기 도와준다지 않아. 저 일두 끝났는데 축산반에 같이 갔다올가?

애숙 아이, 혼자 갈래요.  
 농선 혼자서 산 토끼 가져올테야, 손이라도 깨물면 어쩔려구...  
 애숙 아이, 토끼도 사람을 깨무나요뭐 정말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지겠네,(캐득거리며 달려나간다.)  
 농선 젠장...(딸기광주리를 잘 보이는곳에 갖다놓고 애숙이를 따라나간다.)  
 △ 사이  
 △ 이윽고 정심 앞서고 철봉 좀 떨어져서 들어온다. 정심 딸기광주리를 발견하자 다가간다. 철봉은 피우던 담배꽂초에 새 담배를 붙인다.  
 정심 아이 무슨 담뱃 그렇게... 내가 보건데두 벌써 열대째나...(가볍게 웃는다.)  
 철봉 네?! 하하 참 그랬던가요.(담배불을 비벼 끈다.)  
 정심 봄철이다나니 이것밖엔 없구만요. 딸기를 좀 드세요.  
 철봉 예...(딸기를 집어든다.)  
 △ 사이  
 철봉 (시계를 보며)...정심동무, 난 가야겠소. 자 속씨원히 말 좀 해주.  
 정심 ...  
 철봉 ...동무를 영원히 잊어버려야 한단말이지?  
 정심 ...정말 동무앞에 이런 말을 하긴 험치 않습니다.(머뭇거리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  
 철봉 알만합니다. 그러니까 농장을 떠날수 없단말이지요?  
 정심 ...사실말이지 전 작년 겨울에 도농기계공장에서 가졌던 방식상학때 철봉동무를 잘 알게되었어요.  
 철봉 ...  
 정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동무가 애써 만들어낸 그 농기계 시운전법을 우리들에게 열정에 찬 목소리로 설명할 때 난 정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아마 농민들을 생각하는 동무의 그 뜨거운 마음때문이었던가봐요.  
 철봉 ...  
 정심 솔직히 말해서 그때 동무의 그 인상은 저의 가슴에서 좀체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철봉 ...나도 그날 보잘것없는 내 창안품을 그토록 뜨겁게 지지해주던 동무를 잊을수가 없었소.  
 △ 사이  
 철봉 허지만 지나간 일을 자꾸 되풀이할거야 없

지요.

**정심** ...정말이지 전...철봉동무가 이렇게 나타나  
실줄은...제가 뭐길래 이렇게 먼곳까지 오셨  
다가 그냥 돌아가게 됐으니...정말 뭐라고  
말을 했으면...

**철봉** (깊은 생각끝에) 아니요,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소. 사람은 자기의 이상이 있구 자기  
가 걷는 길이 있지 않겠소? 그러니 그 길에  
서 떠난 사랑, 가정-그것은 결코 행복할수  
없지요. 인젠 모든걸 알게 되었소.

**정심** 달리 생각 마세요. 전 다만 제 심정을 솔직  
히 말씀드렸을뿐입니다.

**철봉** 오히려 그런 솔직한 대답이 더욱 좋소, 나  
역시 나의 길이 있으니까! 정심동무 그럼  
잘 있소.(손을 내민다.)

**정심** (철봉이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안녕히 가  
세요.

**철봉** ...  
(뚜벅뚜벅 걸음을 옮긴다.)

**정심** ...  
(한두걸음 따라가다가 서서 철봉의 뒤모  
습을 지켜본다.)

△ 철봉 주춤하고 서더니 깊은 한숨끝에 결심한  
듯 나간다.

**정심** (입속말로) 철봉동무...!(백양나무에 기대서  
서 피로와한다.)

△ 설화가 울린다.

**설화** 정심이의 마음은 피로왔다. 당장이라도 달  
려가 철봉이를 붙들고싶었고 영원한 길동무  
가 되어 미더운 그와 함께 한길을 걷고싶었  
다. 아, 그러나 처녀의 가슴속에 이미 굳어  
진 신념과 이상이 철봉을 불러세울수 없게  
하였다.

△ 정심은 결심한듯 양수장에 들어가 고무호스타  
래를 메고 나와 손질한다.

△ 애숙 들어선다.

**애숙** (정심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두눈을 가  
리운다.)

**정심** 아이...너...?(손을 더듬어보며) 애숙이로구  
나.

**애숙** (목소리를 달리하며) 애숙이밖엔 몰라요?

**정심** (자랑하듯) 살결은 잔디풀처럼 부드럽고 뜨  
거운 손! 분명 애숙이야!

**애숙** 호호...언니 정말 명물이야. 손만 만져보고  
서두 사람을 가려본다니까.

**정심** 늘 함께 일하는 제 반원인데 그것두 모를  
가?

△ 그들은 행복하게 웃는다.

**애숙** 언니 축하해요.

**정심** 축하한다구?! 날?

**애숙** 아이, 그렇게 모른척 하데요요? 난 다 알아  
요. 땅크병출신 도시총각, 그리고 손퐁금명  
수 호호... 어때요?

**정심** 넌 정말 모르는게 없구나.

**애숙** (제멋에 겨워) 야 벌써 언니의 행복한모습  
이 눈에 선해요. 온수난방이 흘러드는 현대  
적인 아파트에서의 문화생활, 수은등 밝은  
네거리로 어깨나란히 산보! 일요일의 뽀드  
놀이... 호호, 그때 언니 아마 이 애숙이 같  
은건 생각두 안할거야.(정심을 끌어안으며)  
야, 언니가 부럽네.

**정심** ...애숙아, 그 애긴 그만둬.

**애숙** 그러자요, 좋은 얘기도 세번만 하면 싫다는  
데 호호...아이! 그 꽃수건 어디서 샀어요?

**정심** 상점에서 샀지... 왜?

**애숙** 야, 언니 어찌면 옷이며 구두며 머리수건까  
지 그렇게 꼭 어울리게 장만할가.

**정심** 원 애두...

**애숙** (정심이의 수건을 써보며) 내게도 어울려  
요?

**정심** 네가 쓰니까 더 멋있구나.

**애숙** 그래요?(거울을 꺼내보며) 야 정말...

**정심** 마음에 들면 어서 가져.

**애숙** 정말이예요?

**정심** 거짓말하겠니.

**애숙** 호호...난 그저 모든걸 꼭 언니처럼 하고싶  
어, 호호...언니, 그럼 내앞에두 언니의 그  
동무와 같은 멋진 상대자가 나타날가? 호  
호...

△ 정심도 따라웃으며 애숙을 유심히 바라본다.

**애숙** 아이, 왜 그렇게 쳐다봐요?

**정심** 난 네가 부러워서그래.

**애숙** 네?! 내가 부럽다구요?! 뭐가요?

**정심** 네결엔 살뜰한 사람이 척 지켜서있는게말이  
야.

**애숙** 네?! 아이 또 농선동무 얘기야요.

**정심** 그래. 정든 고향땅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  
선동무와 함께 씨를 뿌리고 정성담아 가꾸  
고 키워낸 풍년열매도 함께 거둬들일테니  
얼마나 리상적이나. 안그래?

**애숙** 야 참 언니두...언니 몇해동안 남새밭에서  
저울질만 하더니 이젠 내 마음까지 저울질  
하려나봐.

**정심** 왜? 난 어쩐지 자꾸 그렇게만 보이더구나.

**애숙** 빙어리같은 농선동무 애긴 하지도 말어요.

**정심** 앤, 농선동무가 어떻다구 그러니? 말은 적

지만 얼마나 속이 깊다구...

**애숙** 말이 없으면 다 속이 깊은건가 호호...(혼자 생각하고 웃는다.)

**정심** 왜 무슨 일이 있었었니?

**애숙** 글썸 전번에 우리 농장 소형발전소건설을 지원해준 로동자들앞에서 우리가 공연한 일이 있잖아요.

**정심** 응! 그래서?

**애숙** 글썸 내가 분장두 채 지우지 못했는데 농선 동무가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래 무슨 심각한 말을 하려나 해서 얼른 의상을 갈아입고 나갔더니 아이참 글썸...

**정심** 뭐라던?

**애숙** 글썸 날 집에 데려다 주겠다잖아요.

**정심** 그것봐. 얼마나 인정이 깊은 동문가.

**애숙** 아이 생각만 해두 답답해. 글썸 같이 십리 길이나 걸어오면서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말도 없지요 뭐. 난 너무도 안타까워서 말좀 하라구 했지요 뭐. 그랬더니 글썸 말하는것보다 이렇게 함께 걸으며 생각하구느끼는것이 더 좋다나요.

△ 두 처녀 손을 마주잡고 깔깔대며 웃는다.

**애숙** 언니두 우습지요? 그러니 글썸 내 성격하고 맞아요? 이따금 가다가 한대씩 얻어맞더라도 난 불덩이같이 정열에 넘치는 사람이 좋아. 그런데 농선동무와 같은 사람과 가정을 이룬다면 난 아마 사흘도 못가서 가랑잎처럼 되고말거야요 호호...

**정심** 애숙아, 정열이란 걸에서 끓는것보다 마음속에서 끓는것이 더 귀중하단다. 농선동문 평시엔 그렇게 말이 없지만 일을 할 때나 시를 쓰고 작곡을 할 때 좀 봐. 얼마나 열정이 차넘치는 동무인가...행동을 통해서 많은걸 생각하게 하는 동무야.

**애숙** 언니 그저 농선동무만 두던한다니까...하여튼 그 동무에겐 그 동무 성미에 맞는 짝이 있게되겠지요 뭐. 저 언니, 이거나 좀 봐줘요. (편지봉투속에서 사진을 꺼내준다.) 강안수산사업소에 있는 외삼촌어머니가 보내온건데...

**정심** ...그래?!(사진을 보며)...그러니까 도시총각선을 보라는 사진이겠구나?

**애숙** 언니만 알고있으랴요 호호...글썸 다 좋은데 안경을 낀것이 좀 어딘가...언니 보기엔 어때요?

**정심** 괜치않구나 미남자다.

**애숙** 아이 그래요?

**정심** 그렇지만 중요한건 사람의 마음인데 사진을 보고서야 이 동무의 마음을 알겠니? 얼굴이 흰하구 미끈하게 생겼지만 속이 텅 빈 사람두 있구 비록 평범하게 생겼지만 마음이 바다속같이 깊은 사람도 있지.

**애숙** 그렇지만 걸모양이 속모양이라지 않아요.

**정심** 애숙아, 사람이란 사업과 생활을 통해서 지내봐야 안단다.

**애숙** 아이 언니두...(토라져서) 자기만 도시로 홀날아가려구...

**정심** 뭐?! 애두 참...내가 새라고 날아가겠니?(약속하듯)애숙아, 난 아무데도 안가. (희망에 넘쳐) 붉게 타는 저 노을! 정다운 언덕길! 과일동산을 끼고도는 맑은 시내가! 봄이면 밀보리, 가을이면 황금과도 설레이는 기름진 전야! 공기 좋고 물좋은...야 얼마나 좋니,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이지 뭐겠니. 우린 여기서 근로자들의 식찬을 마련해가는 주부노릇을 한단말이야. 이 얼마나 영예로와? 보람찬가말이야. 난 정말 이 땅을 떠나선 단 하루도 못살것 같애.

**애숙** 언니 마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라.

**정심** 모르면 이제 알게 돼! 애숙아, 어둡기전에 오이밭과 고추밭에 물을 좀 주자, 어서 가서 양수장 스위치 켜.

**애숙** (오탁하니 섰다가) 기분나빠 죽겠네. 언니 생각은 편하지 뭐. 고향을 떠나선 안된다는 거지 뭐. (뽀로통해서 돌아서며) 난 집에 들어갈테야. (집으로 들어가는척하다가 양수장으로 들어가며) 호호...

△ 정심도 웃으며 고무호스를 메고 나가려는데 자전거를 타고 성삼이가 쭈뼛뚱해서 들어온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분수식관수가 저녁노을을 받아 령롱한 무지개를 이룬다.

**성삼** 정심아.

**정심** 네?!(성삼을 본다.)

**성삼** 이러 좀 오너라. 가까이 오래두.

△ 정심, 성삼이결으로 다가온다.

**성삼** 아니, (쪽지편지를 꺼내들더니 읽는다.) 《...삼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냥 되돌아 갑니다. 구체적인 사연은 차후에 편지하겠습니다. 조카 박철봉 올림.》

**정심** ...

**성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감투끈인가말이야 엉??

**정심** 저...그렇게 됐어요, 그만두기로...

**성삼** 뭐 그만뒀? 또 똥단말이나? 나 이거참, 그때 그녀석이 똥겼냐? 그렇지 않으면 정심이 네가 그만똥냐? 어느쪽이나??

**정심** ...저, 아저씨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달리 생각하진 마세요. 결국 그렇게 밖엔 될수가 없었어요...그렇지만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동무도 있을거예요.(나간다.)

**성삼** 정심아...!(사이) 뭐?! 《...미안하게 됐어요?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동무도 있을거예요?!...》 흠, 정심이 네가 분명 채웠구나. 그녀석, 나이가 어찌구저찌구하더니 퇴짜를 놓은게 분명해. 똥된녀석같으니라구. 나이가 좀 많으면 어땠다는거냐. 흥 너의 이삼촌은 세살 우인 고분녀를 데리고 살아두 아들딸 5남매를 낳구 이날이때까지 삼 한번 안하구 잘만 산다. 나이가 문제냐 나이가...? (담배를 피워물며) 우휴...똥니똥니 해도 내가 죽일놈이지, 정심이가 분조장할 때 그렇게 마음들어하던 덕성농장 총각한테 눈 꼭 감구 췌어야 할건데...(정심이 나간쪽을 바라보며) 에이구, 저게 가슴이 아프니까 일로 마음을 위로하려고 저렇게 극성을 부리누나...정심아, 락심을 말아. 내 또 수소문해보자.(자전거를 끌고 나가며) 철봉이 이녀석, 어떤 처녀를 얻나 보자! 눈에 콩까풀을 써두 췌지 정심이를 마다해?

△ 성삼 두덜거리며 나간다.

△ 처녀 뛰어나온다.

**처녀** 반장언니. 정심언니-?

**정심** (밖에서) 왜 그래-?

**처녀** 관리위원회에서 전화두 오구 시내 노동자합숙 인수원아바이도 왔어요.

**정심** 응-알겠어.

**처녀** (양수장에서 나오는 애숙에게) 아이 애숙언니, 글썄 인수원아바이가 오셨는데요. 요전번 휴식날에 반장언니가 첫물쑈갓이랑 부루를 한차 싣고 노동자합숙에 갖다준 일이 있잖아요.

**애숙** 그런데?

**처녀** 노동자동무들이 어찌나 맛나게 먹었던지 고맙다는 편지를 써왔다는데...글썄 전지 두장에다 저마끔 한마디씩 써서...하여튼 그건 제눈으로 직접 봐야 얼마나 멋지고 재미있는 편지라는걸 알수 있어요.

**애숙** 호호 그래...?

**처녀** 야 반장언니 어찌면 합숙동무들의 쑈갓 부

루생각을 다 했겠을가...

**애숙** 그러니 처녀가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졌지. 호호 참 예쁜아, 너 버섯작업반에 갈 일이 없니?

**처녀** 없는데...아니 거긴 왜요?

**애숙** 응 뭘 좀 전하려구그래.

**처녀** 버섯작업반이야 었디면 코앞인데 얼른 갔다 오지요똥.

**애숙** 오늘은 봉선이 아버지가 병결을 해서 양수장을 봐.

△ 삽을 든 정심 들어온다.

**애숙** 언니, 어서 가봐요. 글썄 대단한 편지가 왔대요.

**정심** 무슨 편진데...?

**처녀** 가보면 알아요.

**애숙** 요전번 일요일엔 중앙텔레비에까지 나타나더니 정말 언닌...

**정심** 원 애두...(삽을 백양나무에 세워놓으며) 애숙아, 10분만 더 있다가 양수장 스위칠 꺼야해. 잊지 말구?

**애숙** 알겠어요.

**처녀** (정심에게) 아이 빨리 가요.

**정심** 응!(나가며) 오이밭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래일 오이를 못따. 그리구 갓 옮겨심은 어린고추모에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애숙** 걱정 말어요.(나가는 정심을 지켜보며) 어쩌면 시어머니처럼 끈덕질가! 아마 처녀가 나 이차면 저런가보지? 호호...(제김에 또 웃는다.) (쑈지편지 쓴걸 꺼내서 더듬어본다. 시계를 보며)...어떻게 한다?! 이걸 빨리 전해야 했는데. 우편으로 부치면 3일은 더 걸릴거구...버섯작업반에 제껴 갖다올가...그래. 인편으로 빨리 보내야 삼촌어머니가 인차 손을 쓸수 있을거야.

△ 애숙 결심한듯 뛰어나간다.

△ 양수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무대 어두워지면서 보름달이 동실 솟아오른다. 달빛에 분수식판수의 물줄기들이 마치 소낙비처럼 보인다.

△ 무대 밖에서 물소리. 그 소리 점점 커진다.

△ 사이.

△ 농선 비닐통구리를 메고 나오다 무거운듯 내려놓는다.

**농선** 젠장 오늘따라 별게 다 무겁군.(땀을 훔치며 잔디밭에 출렁 눕는다.) 야 좋은 밤이로구나...!(회파람을 불다가)...아니 이게 웬 물소



리야?! (남새밭쪽을 살핀다.) 아니 이거 누가...?! 양수장! 양수장에 누가 없소? 젠장!(양수장으로 달려간다.)

△ 이때 정심 급히 나온다.

**정심** 애숙동무! 애숙아! 스위칠 끄라구!

△ 고향치며 양수장으로 가는데 농선이 달려나온다. 양수장 모터소리 멎는다.

**정심** 애숙동무 없어요?

**농선** 애숙동무가 양수장 스위칠 넣었소?

**정심** 어찌면...농선동무, 미안하지만 저쪽 고추밭을 좀 봐주세요.

**농선** 젠장...(신발을 벗어던지고 나간다.)

**정심** 이 일을 어찌면 좋담...(황황히 밭으로 나간다.)

△ 사이

**애숙** (맥없이 들어오다가) 야, 누가 마침 양수장 스위칠 껐네.(땀을 흘리며 주저앉는다.)

**정심** (물과 흙투성이가 되어 들어와 삽을 찾다가) 애숙이 아니야?

**애숙** 언니 맥나 죽겠네, 글썽 아까 편질 가져왔던 아주머님 만나려구 버섯작업만엘 갔더니 글썽 금방 떠났다질 않겠어요 그래서...

**정심** 야 어찌면...너 정신 있니?

**애숙** 언니 왜 그래요? 아이! 옷에 웬 흙탕질을... 넘어졌어요?

**정심** ... 남새밭을 못보니 못봐?

**애숙** 네?! 어떻게 됐나요?

**정심** 들튼 네 마음때문에 남새밭이 어떻게 됐나 좀 봐. 고추모가 몽땅 물에 잠겨서 흙탕이 됐단말이야.

**애숙** ...?! 야, 언니 미안해요.

**정심** (애숙을 쏘아볼뿐)

**애숙** ...내 잘못했다지 않아요...일생의 중요한 문제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니나요.

**정심** 뭐가 어쨌다구?!

**애숙** 아이참, 성만 내지 말구 생각해보세요. 남새야 물에 잠겼다가도 되살아나지만 대상자를 택하는 일이야 어디 그래요? 기회를 놓치면 좋은 동무를 영원히...

△ 이때 철봉 가방을 끼고 나와 지나가려다 멈춰선다.

**정심** 그러니까 농사야 되건말건 남새밭이야 물에 잠기건말건 도시로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는거냐?

**애숙** 아이 뭐라구요?! 언닌 무엇때문에 날 농장에 붙잡아두지 못해서 그렇게두 농장, 농장하면서 야단이야요?

**정심** 너의 가슴속에 제 나서자란 고향땅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있기때문에 그러는거야. 난 그것이 가슴아파그래. 농장을 깔보구 성실한 농촌청년들을 깔보구...도시로 시집이나 가서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그건 낡고 썩어빠진 건달사상이란말이야.

**애숙** (분해서) 좋아요, 아무렇게나 막 말하랴요. (울먹이다가) 나도 나의 꿈이 있는거예요.

**정심** 뭐 꿈?! 그래 도시로 시집가는것이 너의 꿈이냐?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리상을 더럽히지 마! 사회앞에 한몫할 생각은 앓구 개인의 향락과 안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희망도 가질수 없어! 제 나서자란 고향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도 할수 없단말이야.

**애숙**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운다.)

**정심** 그래 항일선열들이 긴긴세월을 산에서 싸울때 자기 개인의 향락을 위해 싸웠다고 생각하니? 조국해방전쟁시기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영웅들이나 오늘의 숨은 영웅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걸 다 바쳤니? 아니야!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있는 오늘의 이 행복을 위해서 청춘도 목숨도 다바쳐 싸웠고 또 싸우고있어! 만약 우리 청년들이 너처럼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농장, 우리 고향 우리의 조국은 어떻게 되겠는가말이야. 또 거기에 무슨 삶의 보람이 있구 기쁨이 있겠는가말이야? (사이)...우린 당의 품속에 안겨 이날껏 행복만을 알고 자랐어. 그래 우리가 언제 고향땅을 위해, 조국을 위해서 피 한방울 흘린적이 있구 땀인들 맘껏 흘려왔는가말이야? 그런데두 고향땅에 정을 불이고 더 많은 일을 해야할 애숙이 네가...

**애숙** 그렇다면, 그렇게도 고향땅을 사랑하는 언닌, 언닌 왜 도시총각과 맞선을 보구 왜 여길 떠나려고 해요?

**정심** 뭐라구?! 애숙이 너두 날...(어이없어 더 말을 못한다.)

**애숙** 왜 말을 못해요? 뭐 날더러 썩어빠진 건달사상이라구요?(나간다.)

**정심** ?! ...(피로와한다.)

**농선** (종전부터 나와 듣고있다가) 앵이, (애숙이 나간쪽으로 삽을 던진다.)

**정심** 농선동무! 동무가 애숙동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어루만지지만 말구 진심으로 타일러주구 이끌어주세요. 원칙을 떠난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었어요.

농선 ...

정심 어서 애숙동무를 따라가보세요.

농선 켄장...!(애숙 나간쪽으로 나간다.)

△ 정심 농선을 지켜보고 섰다가 그가 던진 삽을 들고 밭으로 스펙스적 걸어간다.

△ 철봉 앞으로 달려나와 정심을 미덥게 바라보며 뜨거움을 삼킨다.

△ 철봉의 내면독백이 완성된다.

독백 ...좋은 동무였구나! 그의 랑심은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 그의 꿈, 그의 리상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가! 아, 저런 동무를, 전야에 핀 저 아름다운 꽃을 내집 화분에도 옮겨심으려 했으니...이건 나뿐이아니라 도시의 청년들이 저런 동무를, 저렇듯 농장에 깊이 뿌리를 내린 기둥감을 하나 둘 뽑아간다면 과연 농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철봉 생각에 잠겨 거닐 때 흐름막이 지나간다.

△ 흐름막이 지나가면 남새작업반 휴계실 앞. 처녀작업반장의 알뜰한 숨씨가 깃든 휴계실 앞에는 꽃밭이 아담하게 가꾸어져있고 그 옆 덕대우로는 포도넝쿨이 지붕을 이루듯이 뻗어있다.

△ 해빛 밝은 정오. 농선이가 포도넝쿨 밑에 돛타리를 깔고 반쯤 엎드려서 흥얼거리며 작곡을 하고있다.

농선 (소리내며) 미, 레, 도, 솔...(뜻대로 되지 않는듯 종이를 구겨던진다.)

△ 성삼 자전거를 타고 들어선다.

농선 아-아- 솔 솔...(오선지를 찢어버린다.)

성삼 (농선을 지켜보다가) 절약하라구, 절약!

농선 예?!

성삼 그 좋은 종이에 글 몇자 쓰고 찢어버려? 어서 종이를 주어오지 못할가!

농선 예!(넌러진 종이들을 좇는다.)

성삼 그리구 오늘이야 농장적으로 휴식날인데 왜 나왔나? 집에서 폭 쉬지 않구.

농선 전 이렇게 쉬는게 더 좋습니다. 제손으로 가꾼 푸르싱싱한 포전을 바라볼땐 그저 가슴이 빠근해지구 절로 노래가 나오는걸요.

성삼 흠...역시 자넨 농군 냄새가 나기 시작해. 농산기수답단말이야.

농선 (씩 웃으며 뒤덜미를 굽는다.)

성삼 현대 임자네 작업반장 어데 갔는지 모르겠나?

농선 글썽요. 아침에 반장동무네 집엘 들리니까 리병원에 갔다던데...

성삼 병원엔 없어. 좀 찾아보라구. 내 파수반에 갔다 곧 올테니. 꼭 만날 일이 있어서그래.

농선 알겠어요.

△ 성삼 자전거를 타고 나간다.

△ 농선 정심을 찾아 나가려는데 남새밭쪽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농선 (그쪽을 살피다가) 아니...반장동무가?! 야 참, 몸이 아프다면서...(달려나가며) 반장동무 -

△ 사이

△ 이윽고 애숙 학습장을 끼고 나온다. 포도넝쿨 밑으로 가서 앉으려다 농선이가 벌려놓은 오선지를 발견하고 주위를 살펴본다. 그는 슬며시 오선지를 들어다 보다가 인기척소리에 흠칫놀라 휴계실쪽으로 간다.

농선 애숙동무 아니요?

애숙 ...?! (멈춰선다.)

농선 저...기술학습 토론준빌 했으면 좀 봅시다.

애숙 ...

농선 기술학습책임자로서 토론문을 검열하게 됐단말이요.

애숙 아직 못췌어요.

농선 뭐?!

애숙 글썽 난 못한다면 못해요.

농선 (큰소리로) 동무!!

애숙 (놀라며) 아이 깜짝이야!

농선 애숙동무! 정 이리거요?

애숙 아이 무서워.

농선 (안타깝게) 오늘밤에 당장 기술학습토론회를 가질텐데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말이여? 동무가 주도론이란말이요 주도론!

애숙 그러기 누가 주도론을 시키랬어요?

농선 뭐가 어찌?! 그대 내 말이 그렇게두 시시하게 들려? 내 말이 가을 빠꾸기소린줄 아는가말이냐? 이젠 내가 준 파업이 아니라 조직에서 준거란말이여. 정말 할말두 꼭 참고 어루만져 주니깐...

애숙 왜 큰소리예요? 내 참...이제 쓰면 될거 아니나요.

농선 (성이 똑같이 올라서) 관두라구! 그만두란말이야, 시시하게...

애숙 뭐예요?

농선 동문 어서 가서 도시총각한테 편지질이나 하란말이야! 동무같은거 하나 없다구 기술학습 못하구 농사 못지을줄 알아? 어서 여기사 썩물리가지 못하겠어! 사라지란말이야!!

애숙 (겁에 질려) 어마나...! 오늘은 왜 저렇가... (비실비실 물러선다.)

△ 사이

농선 (담배를 꺼내든채)...동무도 눈이 있으면 저길 좀 보라우. 반장동문 지금 동무가 사고를 저질러서 물속에 잠기게 한 고추모를 한 포기 한포기 찾아가며 진흙을 털어주고있어. 앓는 몸이지만 휴식날에 쉬지두 않구 저렇게 아글타글하는게 가슴아프지 않나말이야?

△ 사이

농선...그래도 뭐가 생각되는게 없나말이요.

애숙 나도, 나도 량심에 가책이 돼서 나온거예요.  
그런데 동문 뭐예요. 액액 고향만 지르구...  
토론준비두 동무가 방조를 주겠다구 하잖았  
어요?(쿨쩍거린다.)정말 없던 버릇이 생겼다  
니까...(운다)

농선 애숙동무...!

애숙 듣기싫어요. 다 거짓말이지 뭐야! 날 영원히  
어찌구저찌구 하더니...침발린 소리지 뭐  
야...(헛하니 휴계실로 들어간다.)

농선 애숙이!(따라가다 멎는다)...이건 정말 작곡  
하기보다 더 힘들구나. 좀 짝 쥐려면 튕겨  
나구 좀 늦추면 슬쩍 빠져나가구 앵이!(화  
김에 돌을 건어찬다.)

성삼 (자전거를 몰고 나오다가 굴러오는 돌때문  
에 급정거하며) 돌덩이가 축구뿔인줄 아나?

농선 저...(뒤통수를 굽는다.)

성삼 반장을 찾아왔나?

농선 예! 글썄 저 남새밭에 있는걸...

성삼 뭐?! 오늘도 일나왔단말이야?

농선 글썄말입니다.

성삼 흥 덩지가 큰것들이 멀쩡해가지구 처너반장  
잘은 시켜먹는다. 당장 불러오라구!

농선 예!

△ 농선 뛰어나간다.

△ 성삼 담배를 피워물고 서성거린다.

△ 사이

△ 농선 정삼이의 손을 끌고들어온다.

정삼 농선동무, 갑자기 왜 그래요?

성삼 내가 불렀다.

정삼 (반갑게) 아저씨! 아저씨 왜 또 나오셨어요?  
쉬는날까지...

성삼 (성이 잔뜩 올라서) 게 좀 앓기나 해라.

정삼 아이 왜 그러시나요?

성삼 앓으라는데!

정삼 ...?!(성삼과 농선을 번갈아보며 엉거주춤  
앉는다.)

△ 농선이도 영문을 모르고 정삼의 곁에 덩덤히  
앉는다.

성삼 (농선에게) 입잔 가도 돼!

농선 예! (남새밭쪽으로 나간다.)

성삼 ...정삼아, 오늘은 품을 놓고 말 좀 하자.(담  
배불을 불이려고 성냥을 켜는데 흥분한 나  
머지 손이 떨려 끝내 켜지 못한다.)

정삼 아저씨두...성냥을 인주세요.

성삼 ... 뻘다!

정삼 아이참, (성냥을 뺏아서 불을 켜들고) 자요.

성삼 (마지못해 담배불을 붙인다.)

정삼 아저씨! 무슨 일이 생겼나요?

성삼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놓으며) 읽어라.

정삼 어디서 온 편진데...? 아이 아저씨한테 온

편지군요?

성삼 읽으라는데!

정삼 아이참! (읽으려 한다.)

성삼 쓴 그대로 소리내서 읽어라!

정삼 (심각해서 읽는다.) 《삼촌에게 드립니다. 송  
오리에서 돌아온 이 조카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사이) 그날 삼촌의 말씀대로 제가 정심동무  
를 만난후...(더 읽지 못한다.)

성삼 왜 읽지 못하느냐? 그 다음을 어서 읽어라!

정삼 ...

성삼 좋다, 그럼 내가 읽지.(읽는다.) 《제가 정심  
동무를 만난후 쪽지편지를 남기고 그냥 돌  
아온것은 무슨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의 생각이 너무나도 짧았고 량심의 가책을  
크게 받았기때문입니다...》

△ 애숙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멈춰선다.

《...제가 그날 정심동무를 만난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 동무를 통하여 우리 시대 농촌처  
녀들의 마음을 엿볼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심동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농장을 떠날수  
없다고할때 차마 더는 나의 요구를 강요할수  
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삼이 네가 튕긴게  
사실이겠나?

정삼 ...사실이에요.

성삼 아니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다마다구 하면  
도대체 어떤 충각을 고를 작정이나? 엉??

정삼 ...

성삼 래일 모레면 네 나이 서른이야. 왜 그걸 생  
각못하느냐말이야.

정삼 아저씨...

성삼 내 너의 아버지와 백지주님의 집에서 머슴  
두 같이 살았구 토지개혁때두 같이 싸웠  
어... 정전을 며칠 앞두고 저 긴아리밭에서  
김을 매던 너의 아버지가 미국놈폭격에 잘  
못했을 때 눈을 감겨준것도 나구... 그래서  
난 이날이때까지 너를 친딸처럼 여겨왔단말  
이야. 그런데 내 마음을 그렇게두 몰라준단  
말이나 글썄...(목이 메어 더 말못한다.)

정삼...아저씨, 진정하세요.

성삼 내가 일에만 미쳐서 네가 나이가 차도록 일  
욕심만 채우느라고 제때에 시집을 못보낸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그러기 내 잘못했  
다구 몇번이나 말했니. 그런데도 이렇게 엇  
두리질만하면서 덮어놓고 마다하면 내 마음  
이 좋겠냐?...

정삼 아저씨, 제가 왜 아저씨의 마음을 모르겠어  
요?...그리구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뭘 잘났다  
고 철봉동무와 같은 동무를 싫다고 하겠어  
요. 정말 전 철봉동무를...그 동문 훌륭한  
동무예요.

성삼 그렇다면 왜 싫다고 했느냐말이야? 뭐가 못

마땅한게 있어서 그렇게 코대를 높이는가말이다. 영? 도무지 이해할수 없구나.

**정심** 야...!아저씨 왜 저를 도시로 떠나보낼 생각만 하세요? 네?! 제가 글썽...저는 정말 그렇게 섭섭해요.

**성삼** 뭐라구?! 이것아. 넌 날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실말이지 내, 너를 조카녀석한테 붙여놓고 돌아서 가다가 저 밀밭모퉁이에 숨어서 실컷 운놈이야. 널 농장에서 내놓고싶지 않아서, 내 살점을 떼주는것 같아서말이야. 그런데 뭘 어쨌다구?

**정심** ...

**성삼** (일어서며) 더 긴말 할것 없다. 너만 반대없다면 내 당장 그 엘 다시 부르겠다.

**정심**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 없어요.

**성삼** 그럼 좋다. 내 이젠 간참을 안할테니 네 뱀대로 해라.(주저앉아 담배를 피워문다.)

**정심** ...아저씨, 노여워 마세요. 아저씨도 잘 아시지만 저는 이고장에서 태어나 이 밭머리, 저 논두렁길을 밟으며 학교를 다녔고 소년단원이 되구 사로청원으로 되구 오늘은 당원으로 자라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흠냄새를 맡으며 자란 제가...(사이)... 아저씨,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가고 다음은 애숙이가, 또 그 다음은 예쁜이가...이렇게 농장 처녀들이 모두 도시로 흘러가면 농사는 누가 짓겠나요 네?!

**성삼** ... (정심을 뜨겁게 바라볼뿐.)

**정심** ...아저씨랑은 벌써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구 허리가 굽어들었어요...이따금 샅을 들고 밭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를 볼 때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도 우리 농장의 실태는 어때요. 8작업반에 금숙이, 축산반의 덕화가 얼마전에 또 도시로 시집을 갔어요...실농군이 될만하면 농장을 버리고 떠나간단말입니다. 이렇게 계절조들처럼 모두 날아간다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1,500만톤의 알곡고지는 누가 점령하겠어요 네? 아저씨! ... (사이) 아무리 철봉동무가 마음에 들었어도 전 차마 이 땅을 버리고 떠날순 없었어요.

**성삼** (정심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정심아...!그랬었구나, 그랬었어...내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너의 그 깊은 속심을 모르고 기껏 생각해준다는게 도시로 시집보낼 궁리를 했으니...내가 정말 청멍파니였지. 이러구야 내가 무슨 아저씨구 관리부위원장이란말이나...(가슴을 친다.)

**애숙** (흐느끼다가) 언니 !정심언니!

**정심** 애숙아...!

**애숙** 언니...(정심에게 달려가 와락 안기며)...언니 마음을 인제야 다 알았어요. 그런데

난...

**정심** (사랑을 담아)애숙아!(뜨겁게 포옹한다.)...요전날 우리 같이 텔레비전을 봤지,풍작이룬 당상남새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말이야. 우리두 농사를 더 잘 지어놓고 수령님을 모셔야 될게 아니야.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영광이 또 어데 있겠어.

**애숙** ...반장언니...!(정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낀다.)

△ 농선 저쪽 남새밭머리에 나와있다가 눈굽을 훔친다.

**성삼** (뜨거움을 삼키며)...오냐, 우리 더 직심스럽게 농사일을 하자!(자전거를 잡으며) 그러나 반장 시집은 가야 한다?

**정심** 아저씨두...

**성삼** 내 우리 군, 아니 우리 도내의 농장을 벌척 뒤져서라도 정심이 네 신랑감을 꼭 골라잡을 테니 두고봐라.

△ 애숙, 정심 웃는다.

**성삼** 그럼 난 간다.

△ 성삼 자전거를 타고 썩하니 달려나간다.

△ 정심과 애숙 서로 손을 잡고 성삼을 바래주런듯 웃으며 따라나간다.

**농선** (곡상이 떠오른듯) 바로 이거다! 이거! (홍분한 그는 포도넝쿨밑으로 달려가 오선지에 악보를 그려나간다. 이윽고 가사를 붙이며 재빨리 악보를 그려넣는다.)

△ 이때 배낭을 메고 손퐁금이 든 케이스를 들고 철봉 들어온다.

**철봉** (농선의 회파람소리에 주춤하고 선다. 그는 농선의 노래소리에 끌리듯 히죽히 웃으며 손퐁금을 꺼내 메더니 그의 등뒤로 가서 타기 시작한다.)

**농선** (놀란시선으로 철봉을 돌아본다)?!

**철봉** (어서 부르라고 손짓하며 계속 손퐁금을 탄다.)

△ 이윽고 그들 두사람은 손퐁금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금물결 넘실넘실 들에 넘치고  
과일동산 기슭에는 양떼가 흐르네  
아 한그루 나무에도 오솔길에도  
정다운 꿈이 어린 내고향이어

**철봉** 좋구만, 중단말이야.

준엄한 싸움의 날 피로 지킨 땅  
오늘도 못잊을 그 사연 속삭여주네  
아 여기서 청춘의 꿈을 키우며  
희망찬 래일로 우리는 가네

**철봉** 2절이 더 좋소. 가사도 좋고 곡도 아주 좋소. (손을 내밀며) 농선동무, 알고지냈시다. 나 박철봉이요.

**농선** (철봉의 손을 째 잡으며) 최농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철봉** 그저…알게 됐소. 하지만 작곡가선생인줄은 몰랐소.

**농선** 하하 이거… 저 도예술단에서 오셨습니까?

**철봉** 예술단?! 하하-아니요. 군대에서 이걸 배웠소.

**농선** 네 그럼 체대돼서…?! (철봉의 차림을 살피다가) 그래 어디로 배치받았습니까?

**철봉** 동무네 농장에서 나를 받을 생각은 없소?

**농선** 네?! 그게 정말입니까? 룡담이겠지요?

**철봉** 진정이요.

**농선** 그럼 됐습니다. 사실 제가 농장예술소조책임자랍니다.

**철봉** 아, 그렇소?

**농선** 지금 우린 손풍금수가 씨원잖아서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철봉** 좋소! 그렇다면 내 이 농장에 남기로 결심했소.

**농선** …?! 아무래두…

**철봉** 왜 거짓말갈소? 땅크병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소.

**농선** 좋습니다. 그럼 꼭 우리 남새작업반에 오십시오. 농장예술소조도 우리 작업반이 기본이지요. 그리고 작업반장도 참 좋은 동무입니다. 처녀반장인데 통이 크고 속이 깊고… 아마 동무밤에도 꼭 들겁니다.

**철봉** 서정심동무말이요?

**농선** 아니 우리 반장동무 않니까? 히야! 거 마침 잘됐구만요, 가만…반장동무-(하고 찾으며 달려나간다.)

**철봉** 아 농선동무!…하 이거 일이 참 별나케 된다. 흠…어떻건다?! 뽕소닐 칠수도 없구… (서성거린다.)

△ 이때 정심 들어선다.

**정심** (철봉이를 보자 굳어진다.)…?!

**철봉** 정심동무…!

**정심** 아니 어떻게 또…?

**철봉** 일하러 왔소. 아주 영원히말이요!

**정심**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철봉** 믿어지질 않습니까. (주머니에서 파견장을 꺼내 펼치며) 보우 파견장이요.(읽는다.) 《박철봉동무를 송오농장 기계화작업반으로 파견함 1981년 5월 28일.》

**정심** (파견장을 받아들었으나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철봉** (담배를 피워물더니)…동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동무를 만나고 간후 진

정 잠을 이룰수가 없었소…그래 내 스스로 농장을 단원했고 또 당은 나의 결심을 지지 해주었소…그래 받아주겠소?

**정심** …(어깨를 들먹 일뿐)

**철봉** 그리구…동무만 반대 없다면 난 동무와 함께 영원히 한길을 걸고싶소.

△ 이때 농선과 애숙 들어온다.

**정심** (격한 심정으로)…고마워요! 정말…고마워요…(흐느낀다.)

△ 사이

**철봉** (정심의 앞에 배낭과 손풍금을 갖다놓으며) 나의 재산은 이 배낭과 군무자축전에서 받은 이 손풍금, 이게 전부요. 그러나 마음의 재산은 크오. 하하…

**정심** (철봉의 배낭과 손풍금을 바라보며 뜨거움이 앞서 말을 못한다.)

**애숙** (달려와 정심을 붙들고) 정심언니…

**정심** 애숙아…

**애숙** 이걸, 이 일을 어찌면 좋아요!

△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짓는다.

**농선** (철봉에게 달려가며) 정말 반갑습니다. 난 그런것두 모르고…

**철봉** 하하 함께 손잡고 일해보지요. (손풍금을 메고 자랑하듯) 애숙동무! 노래 한곡 들어보십시오 이 노랜 농선동무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내가 사는 땅》!(그는 노래하며 신나게 손풍금을 탄다.)

기쁨도 행복도 네 품에 있고  
찬란한 미래도 여기서 꽃피네  
아 은혜로운 해빛이 넘치는 이 땅  
나서자란 내고향 어머니품이여

△ 그 노래 확성되어 농장벌에 메아리쳐흐른다.

**농선** (홍분을 억제못하다가) 관리부위원장동지-(웨치며 달려나간다.)

**애숙** 아이! 농선동무 !함께 가자요-(달려나간다.)

△ 정심과 철봉은 달려가는 애숙을 보고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짓는다.

△ 정심, 철봉의 배낭을 메고 손풍금을 든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노을비끼 하늘을 안고 설레는 농장벌을 바라본다.

아, 은혜론 해빛이 넘치는 이 땅  
나서자란 내고향 어머니품이여

△ 방창이 울리는속에 서서히 막이 내린다.

##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노래

정명규

지구상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하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처럼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는 그런 노래는 세상에 없다.

나는 어느 한 외국에 가서 일하는 기간에 이 노래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이 나라 인민들이 이 노래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직접 보고 느낄수 있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간것은 그 나라 혁명승리기념일에 집단체조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들에서 업단체조, 집단달리기, 집단체조,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널리 하고 여러가지 체육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학생들이 체력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날로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집단체조는 오늘 세계 많은 나라들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이 나라 정부가 몇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 집단체조대표단을 초청한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였다고 본다.

우리는 집단체조행사기간에 이 나라 교원들을 많이 대상하여 사업하였다.

나는 그기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학생들속에 널리 보급하고있는 교원들의 정력적인 활동을 직접 볼수 있었다.

우리가 집단체조창조사업에 달라붙은지 얼마안되던 어느날이었다.

집단체조의 한 장을 책임진 30대의 젊은 교원이 우리 대표단을 찾아왔다. 이미 사업을 통하여 낮익은 사이라 우리는 교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한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이윽고 그는 우리를 정겹게 바라보며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사를 적어줄수 없는가고 하면서

너그럽게 웃는것이였다. 그것은 기쁜 일이었다. 우리는 그의 요구대로 정성담아 가사를 적어 주었다. 그런데 놀란것은 그가 그날 하루밤사이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천여장이나 타자를 쳐가지고 이튿날 우리를 찾아온 사실이었다.

노래는 조선어를 비롯하여 세나라어로 타자되어 있었다.

노래를 누구나 쉽게 하루빨리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말로 타자를 쳤다고 그 교원은 말하였다.

커다란 감동과 흥분에 휩싸인 우리는 흐뭇한 마음으로 서있는 교원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수고가 많았다고 크게 고무격려해주었다. 그러자 교원자신도 우리 손을 꼭 잡으며 기뻐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리고 두눈은 무한한 행복으로 끝없이 빛나고있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노래를 통하여 교원들과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

어제까지만 하여도 평범한 교원이던 그가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새 출발의 길에 뿔뿔이 나선것이다.

나는 지금도 지난해 8월에 성대히 가지였던 집단체조지도교원강습 폐강식날을 잊지 않고있다.

이날 폐강식이 끝나자 타자를 친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사가 교원들에게 배포되였다. 커다란 감격속에 노래를 받아안던 교원들의 기쁨을 나는 여기서 다 표현할수 없다.

노래를 소중히 간직하고 돌아간 교원들, 그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집단체조를 맡은 장별로 노래보급사업을 적극 벌려나갔다.

집단체조훈련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적당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한소절 한소절 열성스레 배워주고있는 교원들의 모습을 나는 날마다 볼수 있었다.

노래의 곡조를 잘 모르는 일부 교원들은 나와 우리 대표단성원들을 자주 찾아와서 노래를 정확히 배우려고 하였으며 어떤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수첩에 노래를 깨끗이 적도록 하고 노래를 통달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업적을 어린 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려는 교원들의 고결한 마음, 그것은 노래와 함께 그 나라땅에 나날이 꽃피어나고있었다.

우리는 어느날 그 나라 수도의 항구에 자리잡고 있는 한 학교의 교실에 들린 일이 있었다.

이때 창밖의 넓은 운동장에는 집단체조훈련을 하다가 휴식참에 학생들이 모여 부르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힘있게 울리고있었다.

나는 마치 조국의 어느 한 학교를 찾은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를 안내하던 이 학교 교원은 감동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우리 교원들과 학생들은 이 노래를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래일도 이 노래를 계속 부를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 교원 한사람의 심정이라.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이 나라 인민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며 불같은 념원인것이다.

몇해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이 나라의 한 일군은 우리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감동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흠모는 대단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들이 조선에 갔을 때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의 현실이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있습니다.》라고.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사는 크나큰 민족적공지감을 다시금 뜨겁게 가지게 되었다.

지난날 세제지도우에 빛을 잃었던 우리 조선이 오늘은 이렇듯 온 누리에 광휘로운 빛발을 찬란히 뿌리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우리리따르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민족적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에서 수만리나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 가셔도 떳떳하게 활동할수 있게 되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 나라에서는 우리 대표단이 떠나기 앞서 송별연회를 성대히 차리었다. 이날 연회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이번 집단체조행사는 우리 혁명에서 큰 정치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지난 시기 배우지 못했기때문에 분산되어 살았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몇차례에 걸쳐 집단체조전문가들을 보내주시여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뭉치게 하고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방법을 배워주도록 해주시었다고 하면서 전체 교원들과 자기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였으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것이였다.

순간 연회장은 커다란 감격속에 휩싸여있었으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취주악으로 승엄하게 울리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경건한 자세로 서있는 연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끝없는 흠모의 정이 가득 넘쳐 나고있었다.

나는 시종 흥분과 감격을 금할수 없던 뜻깊은 그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집단체조창조사업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함께 일하던 그 교원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기억하고있을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마음속으로 뜨겁게 듣고 있다.

오늘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 독립의 한길에 떳떳이 서서 나아가고있는 이 나라 인민, 아니 온 세계 피압박인민들과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굽이치는 도도한 발구름소리를!

## 내가 그리는 화폭은 외 1 편

권영호

나는 프락또르운전수  
풍요한 대지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

흰눈 포근히 덮인 들판에  
점점이 옮겨쌓는 거름더미들은  
화폭우에 구도를 잡아가는 점과 점들...  
나의 로동은 이렇듯 그림으로 시작된다

하늘높이 종다리를 부르며  
내 갈아번지는 목덩이같은 흙발들  
아지랑이 굵실으는 벌 아득히  
굽이치며 일렁이는 이랑들은  
내 힘주어 그어가는 선들이 아닌가

자욱히 물안개 피워올리며  
유리판처럼 써레치는 자욱을 따라  
푸르려오는 저 넓은 들은  
내가 입혀가는 황홀한 색조여라

아, 지심을 울리는 발동소리 따라  
끝없이 나래치는 희망이여  
보습날 강우기 비료살포기를  
붓삼아 계절따라 엇바꿔가며  
내 펼쳐가는 농장의 새 모습이여

나는 그린다  
출렁이는 저수지물에 붓을 잠그어  
이글대는 한여름의 가뭄에도

무지개 시원히 웃는 푸른 하늘을

나는 그린다  
흥치며 스적이는 이삭의 물결우에  
유유히 날아드는 저 풍년새들을  
붉게 무르익은 과원의 바다에 잇닿아  
하늘가에 설레이는 천리강냉이숲을

아, 나는 프락또르운전수  
거창한 생활의 숨결을 안고  
만풍년의 화폭을 가꾸어가는  
대지의 《화가》

어디를 바라보나  
창조되는 모든것이 그림으로 새겨지고  
변천되는 모든것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환희와 랑만에 넘친 우리 시대여

이제 펼쳐지리라 나의 그림에는  
손으로 눈뚝을 다스리던 그 자리에  
새 기계가 일하고  
아득한 다락발 층계에도 새 수확기 달리는  
모습이...

아, 기계화의 초병 내가 그리는 그림은  
내 사랑하는 고향벌에  
기계만이 달리고  
기계의 동음소리 차넘치는  
아, 사회주의 내 조국의 영원한 풍치

## 어서 오르자 나의 《전진》 호야

발동소리 울리자 나의 《전진》 호야  
씩- 설레이는 다락발 강냉이숲이  
어서 오라 우릴 부르며  
하늘가에 끝없이 물결친다

《천리마》 호 《풍년》 호 오르지 못하는  
구름 걸린 산판은 우리 활무대  
더기의 힘든 일 말끔히 걷어실은  
나래돋친 발걸음엔 기쁨 솟는다

오를수록 꿈속인듯 황홀한 산천이여  
세월의 눈비에 씻기던 산비탈  
우리 일으킨 이랑의 끝은 어디냐  
구름우에 들려오는 신비로운 물소리  
풍년새는 어디서 은방울을 굴리느냐

농약을 뿜으며 한굽이  
김을 잡으며 또 한굽이



굽이굽이 산을 돌아 오르면  
앞에서도 산울림 뒤에서도 산울림  
온 산밭이 움썹 키를 솟군다

너를 불안는 내 가슴 하얗게 설레이누나  
다락밭의 주인이 태어났다고  
시운전의 날 그리도 대견해하신 수령님  
그날처럼 어디선가 바라보실것만 같아

날마다 높아가는 층계층계  
층성의 계단처럼 딛고오르는 마음  
가물의 불비 쏟아지면  
그 하늘에 분수비의 무지개 비끼리  
사나운 폭우가 몰아쳐도  
순식간에 물사태를 막아내리

다락밭 한끝이라 저 높은 층계이라

농민들의 그 작은 마지막 손일까지  
이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고  
기계농사 흥겨운 새 노래 불러올  
사랑의 기계손이 아니냐

아, 들에 다 펼수 없는 이삭의 바다  
들에 다 실을수 없는 행복의 무게를  
하늘높이 겹겹으로 얹으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이 자랑  
우리 달려가는 자욱마다 넘쳐나거니

어서 오르자 사랑하는 《전진》호야  
산에 산마다  
주체농법의 빛나는 년륜을 감아오르며  
온 조국땅을 황금메부리로 높이 세울  
그날을 향하여  
그날을 앞당겨

## 어머니 곳곳이 살아주세요

류인성

학우들이 기다리는  
투쟁의 거리로 나선것을  
어머니는 말 없이도 알아주시리  
공수부대의 무차별학살이 감행되는데  
더는 앉아서 볼수만 없습니다

그리하여 항쟁의 금남로에  
나어린 우리 동생을 겨눈  
원썩의 총구를 이 가슴으로 막았습니다  
나 역시 청춘이 아깝고  
목숨이 귀한줄을 누구보다 알았었지만  
죽어서 깨끗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 혼란통에  
아마 나의 시체는 간곳을 모르실겁니다  
이 냇조차도 제 육체를 찾아내지 못할판이니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  
혹시 시체를 찾으시면  
전우들이 고이 잠든  
무등산기슭에 함께 묻어주세요

내가 나서자란  
마을어귀 그곳에서  
한포기 붉은 진달래꽃이 되어  
고향의 밝은 날을 보립니다  
어머니품으로 돌아오렵니다

고생만 많던 어머니  
불효자식 이 외아들을 잃고  
지금은 눈물로 다 말라버린  
불쌍한 우리 어머니  
이 아들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제발 곳곳이 살아주세요

희생은 컸지만  
그만치 광주의 봄날은 가까와옵니다  
그만치 조국의 통일은 가까와옵니다  
원썩들의 죽음의 시각은 닥쳐옵니다

(현상응모당선작품)

#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김봉운

나는 조립공  
기계의 어머니  
내 날마다 정성을 고이며  
프락포르를 조립할 때면,

한대 또 한대  
공장정문으로  
첫 탄생의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달려가는 프락포르를 바라볼 때면,

언제나 생각하노라  
나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  
내 어린시절  
마당가에서 뛰어놀 때  
작은 나무가시 손에 들어도  
온밤 잠못들던 어머니

내 즐거운 배움의 나날  
자주 셈세기를 가르쳤고  
하루같이 숙제를 검열하며  
남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바라던 어머니,

아, 어머니 그 마음인가  
집을 나설 때도-  
마음 못놓았더라  
걸음걸음 로동의 첫걸음  
제앞에 맡겨진 일 착실히 못해  
남에게 짐되지나 앓을는지,

그 마음 그대로 안고사는 조립공  
나는 기계의 다심한 어머니  
태어나는 프락포르들-  
새 초소로 떠나보내며  
기쁨에 젖어 마음속 생각은 깊어라

그 어느 농장별 한복판에서  
내 조립한 프락포르  
발동소리 고르롭지 못해  
산촌의 이름없는 수리소

구석에 처박혀 녹이 쓴다면...

아, 그러면 내 얼마나  
큰 죄악이 되랴  
프락포르 그 많은 《아들》속에  
단 한대라도 제구실을 못한다면  
조국앞에, 혁명앞에-  
승고한 사명을 다하지 못해  
씻을수 없는 자책속에 산다면.

나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긴 부탁  
오늘도 가슴에 젖어든다 심장을 두드린다  
수령님을 위해  
당을 위해  
아들아! 빛나는 일을 남보다 더 많이 할 때  
자식을 둔 어머니의 기쁨  
죽어서도 영원한  
어머니의 마음이라던...

아, 어머니의 그 마음  
오늘도 나와 함께  
나사는 튼튼히 죄였는가  
크고작은 부속품들  
제자리에 맞물렸는가 살펴간다  
프락포르의 숨결소리  
하나하나 가려듣는듯

그 어느 한구석  
티끌만한 흠집이 생기랴  
쓸고 다듬고  
눈금 하나 작은 치수 하나 어기랴  
살피고 다시 또 살펴가며-  
나는 프락포르를 조립하노라  
나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 돌격대의 기발

차영도

한소나기 시원히 지나간 건설장에  
저녁노을 타는듯 붉은데  
비에 젖은 속도전청년돌격대의 기발  
사나이들의 가슴을 흔든다!

벗들아, 정녕 우리  
얼마나 많은 낮과 밤  
이 기발과 함께 걸어왔더냐

안겨주신 그 믿음 기폭에 받아안고  
헤쳐온 눈비는 그 얼마였고  
부어주신 그 사랑 가슴에 간직한 우리  
조국의 새 개발지를 찾아  
천막이면 그 몇번이나 옮겼던가

잊을수 없노라  
젖은 옷 자주 벗어 말리우던  
그 우등불  
손풍금소리 높이 울리며 부르던  
청춘의 노래

어디더냐  
별무리 아득히 흘러간 언제우에  
찬란한 조국의 래일을 엿어보며  
희망찬 청춘의 꿈 나누던 그 강반은

정녕 그 어디더냐  
우리 이 기발아래  
청춘의 후더운 가슴으로  
입당청원서를 엄숙히 읽어가던  
그 천막가는

벗들아, 이 기발 그토록 소중하여  
우리 한장의 사진을 찍어도  
이 기발아래 나란히 섰고  
보풀진 노래수첩 푸른 뚜껑에도  
우리 이 기발 자랑높이 그려넣었나니

젊음을 한껏 자랑하라고  
시대의 기수로 나아가라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우리에게 안겨준 이 기발!

아, 우리는  
이 속도전청년돌격대 기발밑에서  
청춘의 값높은 노래를 배웠고  
위훈 많은 이 기발밑에서  
당을 따르는 걸음새를 배웠노라

불타는 용맹과 나래치는 기상으로  
청춘을 부르는 이 기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속에  
속도전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이 기발

이 기발 나뭇기는곳에  
당중앙이 바라고  
당중앙이 의도하고  
당중앙이 설계하는  
그 모든것 이 땅에 찬란히 꽃피나니

오, 벗들이여  
우리는 위대한 주체시대에  
자랑찬 청춘기를 맞은  
혁명의 새세대!

삶도 당의 품에  
신념도 그 품에  
누리며 바쳐가는 우리  
한생애 다시 없을 젊음의 권리로  
이 기발 높이 추켜들었노라  
시대와 조국-앞에  
역사와 세기 앞에

오, 기발이여 속도전청년돌격대 기발이여  
날려라! 불타라!  
너는 찬란한 주체시대의  
영원한 청춘의 상징!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라  
삶도 청춘도 다 바쳐갈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이여라!

# 눈사태

리의남

저녁무렵이 되자 또다시 세찬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우뚝 솟은 형제봉메부리에서 회오리치던 눈보라는 옥옥 풀무소리를 지르며 골짜기로 휩쓸어 들었다.

오목한 골짜기는 어느덧 뽕얀 눈보라속에 잠겨 버리고 산기슭에 있는 휴계실은 눈더미처럼 희미하게 바라보였다.

휴계실안에는 작업소장 림상벽이가 불러놓은 열댓명의 작업반장들과 기능공들이 모여있었다.

통나무를 툭툭 잘라서 만든 결상에 앉은 그들은 기침소리 한번 내지 않고 상벽소장의 일거일동만 지켜보고있다.

림상벽은 돌덩이같은 주먹을 턱에 고이고 말없이 책상앞에 앉아있었다. 그의 가슴은 눈사태에 지지눌리운듯 무거웠다.

와살스럽게 쏟아져내린 눈사태에 아름다리 생나무들의 중둥이가 부러지고 깊은 골짜기와 우뚝한 웅덩이들이 평평하게 메꾸어졌다. 그바람에 술한 산짐승들이 묻혀버렸다. 뿐아니라 프락포르보온고가 푹썩 주저앉고 전선대가 나뒹굴었다.

이런 일은 작업소가 생긴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요즘 넘어진 전보대도 일궈세우고 무너진 보온고는 복구했으나 벌목장을 향하여 뻗은 샘골의 프락포르길에 묻혀버린것은 고집스럽고 옥하면 산악이라도 떠미는 성미인 림상벽이로서도 어찌는수가 없었다.

그저 신경이 곤두서서 입만 꼭 다물고있었다.

그 마음에 키질이라도 하듯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사나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날씨두 더럽군.)

그는 울컥 치미는 분기를 가까스로 짓누르며 고개를 들었다.

《아직 다 오지 않았소?》

이렇게 묻는 림상벽의 음성은 거칠었다.

《공무수리반장이 안왔체다.》

나무토막처럼 몽툭하게 생긴 중년남자가 석침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림상벽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책상우에 퍼놓은 종이에 무엇인가 적으려고 원주필을 들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적을것이 없다는것을 느끼는 순간 온 몸에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것 같았다.

지금까지의 협의회는 레외없이 소장의 의도대로 진행되기 마련이었다. 즉 상벽이가 구상해낸 안을 선포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어떤 안도 내놓을수 없다는것이 그의 가슴을 들쭉

시키고 있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방안에는 송진냄새와 디젤유냄새가 한데 섞인 샅지근한 냄새가 풍겼다.

답답한 마음을 이겨낼수 없다는듯이 프락포르운전수 덕운이가 《으흠!》하고 코소리를 내더니 이어 조용히 기타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림상벽은 저도 모르게 원주필을 책상우에 놓고 마뜩지않게 덕운이를 바라보았다.

《덕운동무! 가서 수리반장을 데려오우.》

그의 말은 모가 없이 부드러웠으나 살같이 덕운의 가슴을 찔렀다.

덕운은 소장을 힐금 보고나서 기타를 방구석에 놓고 문밖으로 훌쩍 나갔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이런 때는 바스락소리하나 내지 않았다.

《담배를 피우오.》

림상벽은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사위를 둘러보고 나서 먼저 담배를 피워물었다.

기다렸다는듯이 여기저기에서 라이타 켜는 소리, 성냥 켜는 소리가 부산스럽게 울렸다. 어느덧 천정이 낮은 방안에는 뽕얀 담배연기가 짙게 찼다.

이때 갑자기 문밖에서 자박거리는 발자국소리가 났다.

사람들은 일시에 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몸부림치는 황철나무옆으로 흰양털목도리를 칭칭 감은 녀자가 걸어오고있었다. 그는 마당으로 들어서다 걸음을 멈추고 오도카니 서있었다. 여러 사람이 침묵속에 있는것으로 보아 회의를 시작한 줄 안 모양이다.

그러나 그 녀자는 결심이라도 한듯 목도리를 풀어서 손에 쥐고 문을 열었다.

사람보다 앞서 비자루같은 눈보라가 문을 메우며 밀려들어 사람들과 난로를 덮쳤다. 눈을 뒤집어쓴 사람들은 가벼운 비명을 질렀고 난로는 물방울을 튕기며 칙칙거렸다.

문지방을 넘어선 처녀는 신호공 윤남숙이었다. 얼어서 발기우리해진 얼굴에 매혹적인 눈, 약간 도드라진 입술, 처녀의 몸매는 잣나무같이 싱싱하고 생기가 넘쳐흘렀다. 그가 들어서자 침침하던 방안이 별안간 해빛이라도 받은듯 환해졌다.

그는 발끝걸음으로 몸집 큰 난로를 에돌아 소장 앞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왔소?》

림상벽은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얼굴에 내비친 그늘진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소장동지를 만나려구요.》

남숙은 동그란 어깨를 가버이 추켜올리며 말쑥지를 뺐다.

《무슨 일루?》

림상벽은 투박한 쇠스레나무재털이에 담배불을 비벼졌다.

《눈사태때문이에요.》

남숙은 맑은 음성으로 또박또박 말했다.

《눈사태?...》

《예!》

남숙의 방긋 열린 입술에 예쁜 미소가 피여올랐다.

문득 림상벽은 며칠전에 남숙이가 예술선동은 중요한 정치사업이라면서 써클원들이 앞장서 눈사태를 헤쳐보겠다고 제기하러 찾아왔던 일을 상기했다.

그때 상벽은 후에 보자고 좋은 말로 일축해버렸었다. 그래서 오늘도 남숙이가 그때문에 온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써클원들을 앞장세워달라는것때문이겠지? 그건 내 좀 생각해보자구.》

《저?...》

《알만하오. 우린 협의회를 하려던 참이요. 난 협의회에 내놓을 안을 구상하고있고...》

남숙의 입가에 피여올랐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낯빛이 파래졌다. 그윽한 눈에는 이슬이 핑 돌았다.

(소장동지는 너무해요.) 남숙은 말이 없었으나 시선은 이렇게 웨치는것 같았다.

(철이 없군. 그만한 일에 눈물을 짜다니.)

림상벽은 처녀에게 동정이 갔으나 그를 위로해줄 경향이 없었다.

《남숙이, 솔직히 말하면 난 지금 다른걸 생각할 겨를이 없소. 생산과 관계되는 일외에는...》

나들문이 휩 열리는바람에 상벽의 말은 끊어졌다.

《풍서방님이 몹시두 지랄치는군.》

수리반장을 앞세우고 들어온 덕운이가 노래가락 처럼 곡조를 붙여 던지는 말이다. 방안에는 와하고 웃음보가 터졌다.

림상벽은 못마땅한 눈초리로 덕운이를 지름펴 보고나서 남숙에게 말을 건넸다.

《남숙인 가보라구.》

그러나 남숙은 하늘소발통처럼 딱 버리고 서있다가 하는수없이 돌아서 나갔다.

남숙이가 나가자 림상벽소장은 울퉁불퉁한 근육이 물결치는 굵은 목덜미를 쭉 문지르고나서 입을 열었다.

《시작합시다. 알고있다싶이 오늘 협의회는 눈사태를 헤쳐낼 방도를 토론하자는거요. 누가 먼

저 이야기하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덕운이는 구석쪽에 세워져있는 기타만 힐끔힐끔 보고있었다.

림상벽은 이 협의회에서도 여느때와 같이 자기의 안을 선포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회의안건은 명백했다. 눈사태를 헤쳐내는것이다. 그런데 샘골에 눈사태를 치자면 한달은 걸려야 한다. 그러면 연간계획이 튀고 연간계획을 못하면 림상벽의 10년간 소장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것이다.

이윽고 고수머리청년이 곱슬곱슬한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일어섰다.

《림산마을을 총동원합시다. 우리도 밤새워 눈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눈을 다 칠수 있습니다.》

《동무는 그렇게 시간이 많소?》

상벽은 통명스럽게 내뿜었다.

《그래도 눈녹기를 기다리는것보다는 빠르지 않습니까?》

《은 마을을 다 동원해두 불도젤 한대가 미는것만도 못하오.》

림상벽은 담배꽂초가 수북이 쌓여있는 담배재털이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말을 이었다.

《어서 또 누가 얘기하오.》

협의회결과가 뻔하다는것을 알면서도 한가닥 기대를 저버릴수 없는 상벽이었다.

그는 기대어린 눈길로 덕운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덕운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듯 구석에 놓인 기타에만 눈을 팔고있다. 누구도 말이 없게 되자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림상벽은 말없이 눈보라치는 창문과 천정을 뚫고 올라간 난로연통을 바라보았다. 이끼묻은 천정지붕에서는 나무진인지 눈녹은 물인지 딱히 알수 없는 진한 액체가 흐르고있었다.

무료한 시간을 메꾸려는듯 한 벌목공이 일어서서 이야기했는데 그의 입에서도 신통한 방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 모임에서는 아무런 창발적의견도 기대할수 없으리라는것이 확고해졌다.

(할수 없지, 한달을 기다리는수밖에...)

공연히 시간만 랑비했다고 생각하는 림상벽소장의 량미간에 깊은 주름살이 지어졌다.

《누가 좋은 안이 있으면 어서 말하오. 이거 답답해서 견디겠소.》

맨주먹으로 곱을 때려잡았다고 해서 《곰반장》이라고 부르는 1반장이 자기가 다 안타깝다는듯 궁둥이를 들썩거렸다.

림상벽소장의 너부죽한 얼굴이 불깃해졌다.

《반장동무, 똥소, 똥소!》

림상벽은 너그러운 표정을 띠웠다. 그밖에 회의에서는 몇가지 의견들이 더 제기되었다.

《알겠소. 좋은 의견을 줘서 고맙소. 회의는 그만 합시다.》

신통한 묘안을 찾지 못한 상벽소장은 너그럽게 말했으나 가슴속에는 지지는듯한 패배감과 수치감이 감쳐들었다.

협의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다.

한참후에 립상벽소장은 뒤따라 일어섰다. 그런데 문밖에 남숙이가 입술이 파래서 오도카니 서 있었다.

상벽소장은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여기서 기다리오?》

남숙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방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한가지 말해도 좋아요?》

《무슨 말? 또 씨클문제요?》

립상벽은 억센 주걱턱을 쑥 내밀었다.

《전 소장동지한테 한가지 의견을...》

남숙은 말을 끊고 입술만 움지락거렸다.

《어서 말하오.》

립상벽소장은 실한 몸집을 움썹했다.

남숙은 어쩔는지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대답하게 결심한듯 얼굴을 숙이고 조용히 말하였다.

《소장동지를 보면 사기가 떨어진다고 모두들 말해요. 그전처럼 노래도 부르며 신심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남숙은 귀밀이 빨갛게 되었다.

《.....》 립상벽은 그저 히죽이 미소를 담으며 말이 없었다....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교수머리청년이 슬며시 다가왔다.

《소장동지! 우리가 예술소조공연을 준비했는데 가봅시다.》

립상벽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머리가 천군처럼 무거운데 무슨 씨클이란말인가?...

《동무나 어서 가보오.》

립상벽은 심드렁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곱슬머리는 물러서려 하지 않고 이런 때 일수록 구경을 해야 머리가 맑아진다면 서 소장의 팔을 잡았다.

《소장동지가 안와서 공연을 못하고있습니다. 비서동지도 소장동지를 찾습니다.》

립상벽소장은 마지못해 일어섰다.

그가 선전실에 들어섰을 때는 공연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남숙의 소개로부터 시작된 공연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립상벽의 눈앞에는 눈사태만이 어른거릴 뿐 무대에는 도저히 눈길을 집중할수 없었다. 그런데 공연종목이 세번째로 바뀌우고 전쟁시기 립산로동자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시와 이야기가 시작되자 립상벽은 저도 모르게 작품세계에

몰려 들어갔다.

...포연이 타래쳐오르는 계곡, 원목을 가득 실은 자동차가 전선으로 달린다... 왼쪽에는 깊은 골계수, 오른쪽에는 깎아지른듯한 벼랑, 탄알이 비발치고 자동차길이 대형폭탄에 패운다. 원목차의 행렬은 진퇴량난에 빠졌다....

립상벽은 부지중 눈을 딱 감았다 폼다.

작품의 내용은 폭탄구덩이에 물을 대어 얼군후에 차를 통과시킨 한 립산로동자의 영웅적형상을 그리고있는 것이었다.

무대는 계속 바뀌우고 시간은 흘러 공연이 끝났으나 립상벽은 오래도록 그자리에 그린듯이 앉아 있었다. 작품의 주인공은 신통히도 립상벽이 자신이었다. 그때는 어떻게 그런 신통한 지혜가 나왔으며 그렇게도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수 있었을가?...

《소장동지, 갑시다.》

립상벽은 덕운이가 뒤에서 재촉해서야 흠칫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

선전실을 나선 립상벽은 자기 사무실을 향해 걸고있었다. 그옆에서 덕운이가 걸었다.

눈보라도 뜸해지고 하늘엔 별이 도글도글 빛났고 형제봉메부리우에 초생달이 걸려있었다. 눈덮인 계곡은 달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고 지붕에 눈이 한길이나 덮인 키작은 귀틀집들은 포근히 감싸여 평온이 잠들고있었다.

《전쟁편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수 있었을가?》

립상벽의 입에서는 느닷없이 이런 말이 튀어나갔다.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있었기때문이지요.》

덕운이가 한마디 툭 던지고 함숙쪽으로 걸어갔다.

상벽은 혼자서 터벅터벅 걸었다. 생각 많은 밤이었다.

남숙이네들은 나의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있을가, 왜 그것을 무대위에 올려놨을가.

의문이 짙어갈수록 남숙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것은 추억의 언덕을 넘어 1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락엽이 흩날리던 마가울 어느날 행정일군들은 물론 직맹위원장까지 현장에 나가고 사무실에는 상벽이 혼자 있었다.

나들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빨간 넥타이를 맨 낯선 소녀가 들어섰다.

《지도원아저씨, 우리 언니가 현금을 달래요.》

소녀는 들어서자바람으로 입을 열었다.

《현금이라니? 언니는 누구고.》

상벽은 사파알처럼 발기우리한 소녀의 얼굴을 마주보며 되물었다.

《상점책임자예요.》

《…………》

상벽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겠다고 한일도 없었고 외상으로 가져온 일은 더욱 없었다.

《꼭 현금을 가져오렸어요.》

소녀의 눈에는 애원의 빛이 어렸다.

《언니가 나보구 현금을 내라더냐?》

《직맹위원장아저씨가 현장에 가시면서 생산지도원아저씨보구 말하려했답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상벽은 의아해서 소녀의 표정을 살폈다.

《꼭 가지고 가야겠어요.》

소녀는 순순히 물러설 잡도리가 아니었다.

문득 상벽에게는 이 소녀가 30여년전 아버지보고 월사금을 내라고 졸라대던 누이동생의 얼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넌 꼭 옛날 내 누이동생과 신통하구나! …월사금도 모르고 자라는 너흰 얼마나 행복하냐?》

상벽은 소녀와 이야기하는것이 즐거워 빙그레 웃었다.

《월사금도 모르는게 뭐 좋나요?… 그럼 월사금이 있으면 주세요.》

소녀는 상벽의 팔을 꼭 잡았다.

《허! 월사금을 달라?~》

그는 절절 웃었다.

《우리 학교엔 가야금, 목금, 양금같은것은 있어도 월사금은 없어요.》

《하! 월사금이라니까 무슨 악기인줄 아는구나, 월사금이란 왜놈때 학교에 내는 돈이란단.》

그는 월사금을 낼수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났던 자기와 누이동생의 얘기를 했다.

《아이 난 또… 나두 월사금이란걸 알았었는데 잊었어요. 놀리지 말구 현금이나 주세요.》

순간 상벽의 얼굴이 빨개졌다. 이 소녀가 요구하는것이 현금이라는 악기라는 생각이 편듯 들었던것이다.

그는 소녀가 자기의 무식을 질책하는듯싶어 낮이 뜨거웠다. 그는 서류함에서 직맹위원장이 주고 간 악기창고 열쇠를 꺼냈다. 소녀는 악기창고에 들어가서 제절로 현금을 꺼내가지고갔다. …

그후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했던 남숙은 지난 여름에 제대복차림의 숙성한 처녀가 되어 마을에 돌아왔다.

남숙은 사도공으로 배치되었다. 남숙은 현장에 배치해달라고 졸랐으나 립상벽은 《난 흥정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소.》 하고 단호하게 툭 찍어말하고는 남숙이가 더는 말을 걸지 못하게 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우연히 사도실앞을 지나가던 상벽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동무는 이 사도실을 벗어나서 좀 보람찬 일을

해보고싶지 않소?》

대포소리같이 큰 목소리의 주인은 뜻밖에도 측구주장인 덕운이었다.

《…………》

어째선지 상대방은 대꾸가 없었다.

《말하자면 신호공같은것말이요. 펄펄 날아야 할 청년들이 이런 고요한 방안에 있는게 답답하지 않소.》

《소장동지는 무서운 사람이예요.》

맑은 목소리는 남숙이의것이였다.

《아니요. 소장동진 좋은 사람이요. 인정이 있는 사람이란말이요.》

《그럼 날 신호공으로 받아줘요.》

남숙은 호기심이 부쩍 동하는 모양이였다.

《소장동지에게 직판 들이대시오. 립산식으로, 배짱을 내대란말이요.》

《내가요?》

남숙의 음성은 나직했다.

《그럼소. 내가 제기하는건 어색하거든. 동무가 남자가 아니구 처녀이기때문에…》

덕운이답지 않게 말을 얼버무렸다.

사실 덕운이는 무용수처럼 몸맵시 곱고 얼굴이 해맑은 처녀들은 산판에 배치하지 않고 판매원이나 접대원이 아니면 사도공으로 배치하는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남숙이가 또다시 사도실에 배치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불만을 녹작힐수 없어 찾아왔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리없는 상벽은

《너석이 엉큼한데?…》 하고 중얼거리며 사도실앞을 지나쳤던것이다.

그날저녁 남숙이가 상벽이앞에 나타났는데 그의 옥땃힌 입술에는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어려있었다.

상벽은 빙그레 웃으며 남숙이가 입도 열기전에 《종소! 남숙인 오늘부터 신호공이요.》하고 말했다.

《…………》

남숙의 뿌듯한 얼굴에는 상냥한 웃음이 떠올랐다.

《왜! 믿어지지 않나? 산판에서 종달새처럼 훨훨 날아보란말이요.》

《알았어요. 믿어지지 않는게 아니라 소장동지가 그럴줄 알았어요.》

《…?》

상벽은 무엇에 찰리기라도 한듯 흠칫 놀랐다. 요전날 산판에 배치해달라는 제기를 매정하게 잘라버렸기때문에 오늘은 남숙이가 깜짝 놀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럴줄 알았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는 도대체 남숙이의 속내를 짐작할수가 없었다.

상벽의 어리둥절해하는양을 보면서 남숙은 침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는 며칠동안 사도공을 하면서 산판실정을 많이 배웠어요. 전번날은 소장동지의 엄한 요구에 못이겨서 사도실에 간계 아니라 사도공일도 조금은 해보고싶었했어요.》

남숙은 마치도 너학생처럼 고개를 숙여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히 말했다.

다음날부터 남숙은 신호공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그후 예술소조책임자가 되었다.

얼마전에는 날씨가 령하 40도를 오르내리여 기계톱의 연유가 딱딱 얼어서 가동을 못하게 되자 남숙은 오리털을 모아 기계톱에 털옷을 해입혀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트랙트르운전수들이 발이 시려 찢쩍 매게 되자 모래를 굽는 불무지에서 두툼한 구들돌을 뜨겁게 달구어 운전칸에 올려보내주었다. 그날 휴가간 트랙트르운전수를 대신해서 차를 타고있던 상벽소장은 그 돌을 밟고앉아서 발이 시린줄을 모르고 일했다. 그것은 얼마나 신통한 지혜였던지 상벽은 놀라움에 생각했다.

그런데 사탕스러운 처녀로만 보아온 남숙이가 그렇게 당돌한 처녀였던가...

상벽은 불빛이 환한 소장실앞에 와서야 생각에서 깨어났다.

자기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문을 닫았었다. 혼자서 생각에 잠기고싶었다.

림상벽은 전에없이 뒤집을 지고 넓은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방안에는 싸늘한 랭기가 돌았으나 난로불을 피우지 않았다는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이때 갑자기 문밖에서 왁작 떠들어대는 소리가 나는데바람에 림상벽은 반사적으로 유리창문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불빛이 환한 전주대열에는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자기들의 키에 두배나되는 눈사람앞에 오구구 모여서 법석 떠들어대고있었다. 학습반을 하고 돌아오는 모양이었다. 며칠전에 아이들이 눈덩어리를 굴려서 만든 눈사람은 눈바람에 눈과 입이 지워지고 턱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눈사람이 불품없이 된것을 보고 그저 지나칠수 없어서 다시 눈과 입을 그려넣느라고 추위도 아랑곳없이 떠들어대는것 같았다.

《야! 눈섭을 좀 시꺼멓게 해라.》

《턱주がり두 빼죽 나오게 하구.》

어데서 가져다놓았는지 의자를 놓고 올라서있는 애에게 아이들이 저마다 소리친다.

《턱은 잘 안붙는다애.》

의자우에 선 소년의 대꾸였다.

불시에 의자가 기울면서 주걱턱을 해붙이던 소년이 눈우에 때굴때굴 굴러떨어졌다.

와-하고 웃음보가 터졌다.

아이들은 한참 떠들어대더니 집끝목으로 몰려

갔다.

(애들이야 근심이란 조금도 없을테지.)

상벽소장은 부러움이 담긴 눈초리로 아이들이 사라진쪽을 이윽도록 바라보고 서있었다.

《똑똑...똑!》 문기척이 났다.

이어 문이 가볍게 열리더니 남숙이가 조용히 들어섰다.

《어떻게 또 왔소?》

림상벽은 자기자리에 돌아와 앉으며 남숙이에 게 앉으라고 의자를 가리켰다.

남숙은 앉으려 하지 않고 그자리에 서서 송라처럼 이마에 드리운 머리칼을 쓸어올렸다.

얼마전과는 달리 남숙의 커다란 눈에는 착하고 소심해보이는 빛이 흘렀다.

《뭇때문에 왔소?》

남숙은 대답이 없이 난로아궁에 강대를 끌어넣고 불을 지켰다.

그리고는 허리를 꼴꼴이 펴며 입을 열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겨주세요.》

《뭇말이요?》

상벽소장은 어리둥절했다.

《눈사태를 우리들의 힘으로 밀어내겠어요.》

처녀는 속눈섭에 맺힌 눈가루를 훑치고 까만 눈을 감박거렸다.

《그래서 찾아왔소.》

《예!》

《좋소. 어디 해낼수 있으면 해보소.》

림상벽은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응했다. 어찌보면 고집스러워보이고 어찌보면 철딱서니 없어보이는 남숙이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기특해서 그렇게라도 대답하는수밖에 없었다.

《고마와요.》

남숙의 눈가루가 묻은 뺨이 환한 얼굴에는 감격의 환희가 떠있었다. 생활의 고충을 모르고 행복속에 묻혀 살고있는 사람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표정이였다.

상벽은 대답이 없이 담배를 붙여물었다. 소장의 얼굴색을 살펴보면 남숙의 표정이 돌연 변했다.

《몸이 몹시 불편하신게군요?》

남숙은 우묵하게 들어간듯싶은 소장의 눈확을 지켜보며 걱정스레 말했다.

림상벽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남숙은 조용히 일어서서 가벼이 걸어나갔다.

사무실이 텅 비자 상벽은 갑자기 몸이 지긋지긋 해오는감을 느꼈다. 아무데라도 벌렁 눕고싶었다.

그는 싸늘한 의자에 궁둥이를 털썩 붙였다. 그리고는 허탈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출입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상벽은 고개를 피끗 돌렸다.



한손에는 밥팩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복통을 든 안해가 마주서서 미소를 짓고있었다.

《뭐요?》

상벽은 저녁 식사를 안했다는것을 잊고있었다.

《난 샘골에 가는길이에요. 이걸 잡주세요.》

안해는 책상위에 밥보자기를 놓았다.

《그런데 샘골엔 왜?》

상벽은 눈이 등그래지며 놀란 어조로 물었다.

이 밤중에 샘골엔 뭘하려고 간단말인가?!

《우리 청년들이 <비상소집>을 일으키고 떨쳐나섰어요.》

안해는 눈빛을 빗내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떨쳐나서다니?》

상벽은 얼굴에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하였으나 언뜻 보면 한결 젊어지는듯한 안해를 보며 되물었다.

《남숙이말이에요.》

상벽은 인차 짐작이 갔다. 아까 남숙이에게 한말이 후회되었다. 남숙이가 부양가족에술소조까지 못하고 지도한다더니 인제는 청년들과 함께 산판에까지 끌어올리는 모양이었다.

《눈사태우에 또 노래사태요?》

버럭 역정이 치민 상벽의 눈에 모가 섰다. 그러지않아도 언덕이 없어 비비지 못하던 뒤틀린 십사가 버둥거렸다.

안해는 남편의 험악한 기상앞에 쫓기듯 부랴부랴 밖으로 나갔다.

한동안 창밖의 어둠속을 쏘아보고있던 그는 고개를 가버이 흔들며 제자리에 돌아가 앉자 턱밑에 두손을 고이고 지그시 눈을 내리감았다. 집계에 꼭 물리운듯 머리가 빠근했다.

방안에는 피괴한 정적이 물려왔다.

어데선가 잠들지 못한 밤새가 애처롭게 울어댔다.

그의 입에서는 느닷없이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무실이 바다속처럼 조용해지자 상벽은 홀연 자신이 외로운감을 느끼었다.

불현듯 그의 뇌리에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속에 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떤 험악한 산악이라도 가뭇없이 휘어잡을듯한 기세로 날과람있게 뛰어다닐 땐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그런데 지금은 어떤 방도도 내놓지 못하고 눈사태앞에 쫄쫄맴단말인가.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창가에 서서 달빛에 우렁이 드러난 형제봉메부리를 무거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저 형제봉가운데 있는 샘골은 수십년간 메주뭇듯이 다니던곳이다. 그러나 눈사태가 저 골짜기를 꼭 채우고있는 오늘은 저 봉우리와 골짜기가 어쩔수없는것으로 눈앞에 나타나는것이였다.

상벽은 장설을 떠이고 장엄하게 솟아있는 메부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아우봉에 오래도록 시선을 박고있는 그의 폭꺼진 눈이 조용하면서도 웅심깊게 빛났다.

(?!)

문득 그의 머리속에 그 어떤 령감이 섬광처럼 일었던것이다.

(아우봉룡선으로 우회로를 뚫는다면?...)

그의 가슴은 후두두 설레이기 시작했다. 일단 실마리를 잡자 생각은 쪽쪽 앞으로 뻗어나갔다.

아우봉룡선으로 길을 뚫자면 15리길에 수많은 나무뿌리를 뽑아야 하지만 샘골의 눈사태를 처리하는것보다는 로력과 기계수단이 절반도 안들것이다.

지원로력까지 총동원하면 보름이면 될수 있을것이다.

《바로 이거다!》

그는 제풀에 으쓱 어깨춤이 나갔다.

《보름! 보름!...》 그는 다시금 이 말을 몇번이나 되뇌이고나서 다급히 전화를 들었다.

《지령원동무요? 내 상벽이요. 새벽에 반장들이 출근하면 모든 로력을 아우봉으로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오. 트랙포르길을 닦을 도구를 준비해가지고말ियो.》

그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풍겼다.

수화기를 놓은 그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느슨한 미소가 일었다.

×

아침이였다. 꽃무늬모양으로 서리가 앉은 네모진 유리창이 환히 밝았다.

사무실의자에 누운채로 잠들었던 상벽은 해가 뜨는줄도 모르고 늦잠을 잤다.

어제저녁 안해가 가져다놓은 밥그릇을 난로에 구워먹고난 상벽은 부랴부랴 문밖을 나섰다. 골짜기는 조용하고 눈꽃이 핀 가로수들은 금빛노을을 받아 눈부신 빛을 뿌렸다.

온 마을이 조용한것으로 보아 모두 일찍 산으로 올라간 모양이였다. 그는 늦잠을 잔 자신을 꾸짖으며 눈길에 큼직한 발자국을 찍어나갔다. 날씨도 마음을 맞춰주는상실였다. 바람 한점 없는 이런 날씨면 일자리를 푹푹 낼것이다. 년말까지는 아직 한달이 남아있으니 보름동안에 우회로를 뚫고 나머지보름이면 년간계획을 넉근히 맞출수 있을것이다.

이때였다. 옆에서 송진냄새가 물씬 풍기는바람에 상벽은 얼굴에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검식한 《곰반장》이였다.

《소장동지!》

《곰반장》이 먼저 불렀다.

《무슨 일이 생겼소?》

림상벽은 《곰반장》의 목소리에서 심상치않은

것을 느꼈다.

《별난 일이 생겼수다.》

《별난 일이라니?》

낮게 드리운 가로수가지에서 눈덩어리가 떨어  
져 상벽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털 생각은 잊어버리고 《곰  
반장》의 기색만 살렸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나두 모르겠수다.》

《동문 목석처럼 가만 있었소?》

림상벽소장의 진한 두눈썹이 한쌍의 날개처럼  
푸덕거렸다.

《어제밤에 올라갔는데 낸들 어찌겠소.》

림상벽은 한동안 아무 말도 안했다.

이윽해서야 《담배 있소?》 하고 《곰반장》에  
게 물었다.

《곰반장》이 의아쩍은 눈길로 소장을 바라보며  
담배를 내밀었다.

림상벽은 담배를 받지 않고 호주머니에서 독초  
를 꺼내어 나팔통만하게 말아물었다. 가치담배는  
성차지 않았던것이다. 소장은 성냥을 득-그었다.  
바람이 획 불어오더니 성냥가치에 달린 불을 흑  
죽여버렸다. 다시 성냥을 그었으나 또 바람이  
삼켜버렸다.

림상벽은 담배를 집어던지고 씨엉씨엉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제밤에 남숙이가 청년들에게 말거달라고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즉시에 행동에 옮길줄을 꿈에  
도 생각 못한 림상벽이다.

림상벽이가 몸뚱이가 하얀 붓나무숲사이를 톱  
아 오르는데 굵인돌이에서 프락프르의 우람찬 동  
음이 울려왔다.

《저건 웬 프락프르요?》

림상벽은 다시 《곰반장》을 돌아보며 웨치듯  
물었다.

《덕운이의 차지요.》

《곰반장》은 심드렁한 어조로 대꾸했다.

《그게 어찌 내려왔소?》

림상벽의 부리부리한 눈이 커졌다.

프락프르는 응당 산관현장에 있어야지 마을에  
내려올 리유가 없는것이다.

《씨클원들을 두루 실으러 왔던거웨다.》

《흠!》

상벽은 코소리를 지르며 무릎치는 눈길을 헤쳐  
나갔다. 침해당한 자존심이 흥두개처럼 뻗쳐올  
랐다.

후끈달면 남보다 걸음이 더 빨라지는지 그는  
《곰반장》을 까맣게 뒤에 떨구고 관목우거진 비탈  
길을 톱아올랐다.

림상벽이 산중턱에 올리서니 바람이 점차 세찬  
눈보라를 몰아왔다.

북관땅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방금전까지 청명하던 하늘이 그새 뿌예지고 큰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던것이다. 산림은 음침하  
게 어두워졌다. 떨기나무숲이 와슬렁 거리며 공  
중으로 눈가루와 나무잎새들이 소용돌이쳐 날았  
다. 또렷하던 사향노루의 발자국들이 흔적도 없  
이 사라졌다.

웅-웅-하늘땅은 노한 소리를 질렀다. 팻팻하게  
언 나무들이 왈카닥거리고 부러진 나무가지가  
눈무지에 처박혔다. 거대한 분비나무들이 이쪽저  
쪽으로 휘친거렸다.

상벽의 뇌리에는 그 어떤 위구가 슬며시 갈마  
들었다.

눈보라는 밤새껏 생각해낸 상벽의 계획을 뒤죽  
박죽이 되게 할수도 있었다.

흑독한 추위와 사나운 바람은 사람들의 정력과  
용기를 빼앗아낼수도 있었다.

남숙이가 모든 계획을 휘딱 뒤집어놓고 눈보라  
까지 그의 구상을 취쳐어놓는 판이 아닌가.

고개를 숙이고 걷던 상벽은 별안간 처녀총각들  
의 웃음소리에 얼굴을 번쩍 들었다.

프락프르뒤에는 네모진 썰매가 쇠바줄에 매여  
달려 올라가고있는데 썰매우에서는 처녀총각들이  
왈작 떠들어대고있었다.

썰매좌우에는 눈가루가 포연처럼 흩날리며 청  
년들을 덮치고있었으나 그들은 무엇이 그리도 좋  
은지 산관이 들썩하게 웃고 떠들어대고있다.

별안간 비탈진곳에서 썰매가 한쪽으로 기울어  
지고 몇명의 처녀총각들이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  
지면서 눈우로 대굴대굴 굴러내려갔다. 서로  
얼버무려 굴러가던 그들은 깊은 구덩이에 폴짝  
빠졌다.

그러자 산관이 떠나갈듯한 웃음이 터졌다. 한  
구덩이에 빠졌던 고수머리청년과 파란목도리를  
두른 처녀가 서로 열결에 팔을 잡고 일어서는것  
을 보며 처녀들은 또다시 까르르 웃어댔다.

《야, 사진기가 없는게 유감이구나!》

누군가 고수머리와 파란목도리를 놀려댔다. 눈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파란목도리는 얼굴에 온통  
눈투성이가 되자 고수머리를 외면하고 쪼르르 달  
려가 숲속으로 숨박꼭질했다.

림상벽소장이 나타나자 불시에 웃음소리가 푹  
끊어졌다.

《전당 장난이 아니면 웃음이군.》

상벽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들어 운전칸  
문을 탕탕 두드렸다.

운전칸문이 열리더니 덕운이의 큰 머리가 불쑥  
나왔다.

《동문 어텔 갔댜소?》

덕운은 상벽의 물음에는 대꾸가 없이 손을 내  
밀었다.

상벽은 덕운의 손을 밀어치우고 닝큼 올라탔  
다.

《차를 어디로 물고가요?》  
《샘골로 가지요.》  
《아우봉룡선에 돌림길을 닦으라는 지시를 못받았소?》

림상벽의 질책이 어린 음성이었다.  
《소장동진 누구와 다투게 아닙니까?》  
덕운은 왕청같은 소리를 하며 소장을 힐끔 곁눈질해보았다.

샘매에서 뛰어내린 청년들은 어느새 프락포르를 따라앞서 눈보라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차를 빨리 모오. 샘골에 가서 몽땅 사람들을 아우봉룡선으로 데려가야겠소.》

프락포르는 육중한 몸을 기우뚱거리며 숨가쁘게 산비탈을 올라갔다....

차창밖으로 먼발치로 보이는 샘골에 눈길을 주던 림상벽은 돌처럼 굳어졌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오골오골 모였는데 북소리, 노래소리 팽과리소리가 한데 합친 경쾌한 음향이 숲을 흔들며 요란스레 울렸다.

(사벽부터 눈보라속에서 씨클런습을 한단말인가.)

상벽은 의아해서 샘골에 눈을 떼지 않은채 《도대체 저기서 뭘하오?》 하고 물었다.

《전투를 하지요.》

덕운이가 싱긋 웃었다.

《전투를 한다?...》

상벽은 멍어리장갑으로 서리불린 유리창을 뽕문질렀다.

줄지어선듯한 사람들앞에는 남숙이가 오탁 서서 팔을 뻗어 두르고있었다.

남숙의 양털목도리가 눈바람에 기발처럼 날리고있다.

메가폰의 마이크를 입에 댄 남숙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눈보라가 그 소리를 삼켜버려 알아들을수 없었다.

《저게 남숙이가 아니요?》

상벽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튀어나갔다. 덕운은 대답이 없었다.

담벽처럼 밀려드는 눈보라를 뚫고나가던 프락포르의 토장앞에서 덜컥 멎었다.

상벽은 용수철에서 튀어나듯 차에서 뛰어내렸다. 덕운이가 뒤따라 내리자 상벽은 명령조로 말했다.

《덕운동무, 반장들을 부르오!》

상벽은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조직을 해야 했다.

《알았습니다.》

덕운은 군대식으로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습박 꼭질하듯 숲속으로 사라졌다가 인차 반장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어깨가 축 쳐진 네명의 반장이 상벽이 앞으로 주춤주춤 다가섰다.

《반장들, 들소. 이제부터 보름동안에 돌림길을 뿔는 전투를 벌려야겠소. 장소는 아우봉룡선!...》

그는 여기에 그 어떤 다른 의견도 있을수 없다는듯 푹 짙어 말했다.

반장들은 대꾸가 없이 입을 다물고있었다. 그런데 뒤늦게야 따라올라온 《곰반장》이 《거 좋은 안이웨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이때 고수머리총각이 달려왔다.

《소장동지!》

그는 쇠줄처럼 콧뚨한 고수머리를 모자밑으로 쓸어넣으며 소장에게 다가섰다.

《뭘요?》

림상벽은 나무가지에서 떨어진 눈이 들썩워진 모자를 벗어 무릎에 대고 툭툭 털었다.

《소장동지가 청년들에게 맡겼다면서요?》

《무엇을 맡겼단말이요?》

상벽소장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고향소리가 터져나갔다.

《샘골에 길을 내는 전투말입니다.》

《샘골에 길을 내다니?... 정신이 있나?! 이 골짜기에 눈사태가 몇천립방이나 되는지 알기나해?》

림상벽은 고수머리의 말이 씨클런습을 한다는 것 보다도 더 마뜩지않게 들렸다.

《우린 눈사태를 퍼내는것이 아니라 사태진 눈을 타고앉았습니다.》

《그건 또 뭐야?》

마주소리치는 림상벽의 입에서는 더운김이 확 확 뿜어져나갔다.

《우리는 저 봉우리와 이 봉우리를 련결하는 지름길을 만들고있습니다. 골짜기에 쌓인 눈우에 물을 부어 얼음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수머리는 입으로 눈가루가 쓸어드는바람에 말을 끊었다.

《허참!...》

상벽은 어이없어 웃고말았다.

눈우에 프락포르를 태우겠다는게 어이없었다.

《이너석아! 눈이 뭐 세멘트인줄 아나?》

상벽은 거리 200미터밖에 안되는 골짜기사이를 가로건넌수 있게 길을 내자는 남숙의 계획을 알수 있었다.

하지만 밟기는 아무리 기발한것이라 해도 나막신을 신고 서두수장을 건너가겠다는것만큼이나 무모한것이라고 생각했다.

《샘골물은 하루에 수십립방이 솟구치는데 그걸 밑으로도 대고 고수를 리용해서 눈사태우에 부으면 사흘후에는 얼음판이 됩니다.》

고수머리도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듣기 싫어. 그건 칼물고 뽕뽕기야.》

분풀이하듯 소리를 지른 림상벽은 바람을 쐬뽕 일구며 걸어갔다. ... 얼마쯤 걷던 그는 문득 서서 하반신을 눈속에 묻은채 샘골을 바라보았다.

눈사태가 쌓인 우묵한 골짜기에는 나무가지를 처넣는 사람, 진대통을 굴리는 사람, 검은 모자, 흰모자, 흰수건, 푸른 수건들이 서로 짓궂을듯 엉켜 돌아가고있었다.

남숙은 스키를 타고 제비처럼 달려다니며 작업을 지휘하고있었다.

《이 큰 진대통은 이쪽에 굴러세요!》

남숙은 짧은 팔을 들어 진대통을 가리키며 수달피모자를 쓴 사람에게 말하고 키다리청년에게로 달려갔다. 스키 끌리는 소리가 사르륵거렸다.

《정말 남숙인 보통이 아니거던. 동무의 성화에 못이겨 내가 올라왔지만 시집갈 땐 한턱내야 하우.》

새 솜옷을 입은 창고원이 건네는 말이였다.

《휴식시간에 내겠어요.》

남숙은 방그레 웃었다.

《휴식시간엔 카! 하는거라도 있소?》

창고원이 귀가 솔깃해졌다.

《독창을 불러드리겠어요.》

《덕운이와 합치는 날 부를 노래말이요?》 이렇게 말한 키다리청년이 히죽이 웃었다.

삼시에 남숙의 얼굴이 귀밑까지 빨개졌다. 그리고는 쫓기듯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스키를 타고 달려가는 남숙의 모습을 어루만지듯 바라보던 창고장아버이가 환한 웃음발을 띠우며 누구에게라 없이 중얼거렸다.

《씨클원들은 쉬어야겠소. 지난밤도 꼬박 새웠는데...》

《노래를 부르면 피곤이 싹 풀려요.》

누군가 명랑한 음성으로 대꾸했다.

(눈사태우에 사람사태로구나!)

골짜기를 콧 메운 사람들을 보면서 림상벽은 작업소장은 자기가 아니라 남숙이처럼 느껴졌다.

×

남숙이가 다가온것은 림상벽소장이 황황 타오르는 우등불앞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소장아저씨 오셨어요?》

남숙은 스키끝을 눈에 콧 박고 딱 멎어서며 방긋 웃음을 띠웠다.

《남숙이! 누가 동무에게 이런 일을 벌리라고 했어?》

상벽의 입에서는 청높은 소리가 튀어나갔다.

《소장아저씨가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남숙은 침착하게 대꾸했다.

《?...》

상벽은 말문이 막혔다.

《소장동지가 말씀하셨어요.》 하고 남숙은 자기 말을 되풀이하고 명랑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모두 소장아저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술소조를 앞장에 세워주고 청년들에게 선풍길을 맡겨준 소장아저씨를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벌릴수 있는건 소장아저씨가 우리를 믿어줬기때문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처녀의 뿌듯한 얼굴에는 진정으로 반가와하는 표정이 어리여있었다.

그러나 상벽은 이런 때일수록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림업에서 눈우에 얼음길을 만들어내고

통나무를 끌어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런 헛내기들이?...

《중지하오!》

상벽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소리쳤다.

《.....》

남숙의 얼굴에 흐르던 생기는 씻은듯이 사라지고 까만 눈동자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피어올랐다.

소장이 작업을 중지하라고까지 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모양이였다.

《프락포르를 눈속에 처넣고싶어 그러오?》

림상벽이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하자 고드름이 엇가락처럼 달린 양털목도리에 감싸인 남숙의 얼굴에는 생기가 되살아났다.

《건 맘을 놓으세요. 우리는 압력계산까지 다 해봤어요. 프락포르가 내리누르는 압력은 650키로그램인데 50미터 두터이로 얼면 프락포르가 얼마든지 다닐수 있어요. 그리구 눈속에 가로세로 꽂힌 진대와 나무가지들은 콩크리트의 철근과 같은 작용을 해요.》

남숙은 발명품의 내용이라도 피력하는듯 도도하게 엮어댔다.

상벽은 전기에라도 닿은듯 온몸이 굳어졌다. 철없이 덤벼드는줄만 알았던 그들이 압력계산까지 했다는것도 놀라왔지만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일을 벌리는데 이제는 중지시킬수도 없다는것을 느끼였다.

그러면서도 가슴속에 밀려드는 위구를 막을길이 없었다.

초조의 불안이 어린 상벽의 기색을 눈치챈 남숙이가 한발자국 다가섰다.

《소장아저씨,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일에서 어떻게 물러설수 있어요. 우리는 전쟁시기 소장아저씨가 용감하게 싸웠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눈사태우에 얼음길을 내자고 한것은 우리가 집체적으로 기동선동대 대본을 쓰는 과정에 생각했지만 사실은 소장동지의 착상이예요.》

소장동지는 원쑤들의 폭격으로 길이 끊어졌을 때 폭탄구덩이에 물을 대고 얼겨서 목재 실은 자동차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지금도 학교다닐 때 소장동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잊지 않아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바치겠다고 맹세한 우리들이 어떻게 눈사태때문에 계획을 못했다고 보고드리겠어요.》

상벽은 불시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안개라도 낀듯 눈앞이 탁 흐려졌다.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며 뛰놀고있는 눈기둥과 우등불의 불길이 한데 범벅이 되어 어둡무려지고 남숙의 모습이 물속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같아보였다.

림상벽의 귀전에는 신심을 가지라던 남숙이와 덕운의 목소리, 시와 이야기에서 기동선동대원들이 웨치던 신념에 찬 목소리가 스쳐지나갔다.

나는 어째서 자신이 체험한 일마저 잊어버리고 말았겠을까?

나는 저도 모르게 실무화되어 청년들의 충성의 열도를 보지 못하고있는게 아닌가. 그렇기때문에 눈사태앞에 겁부터 앞세우며 주저하고 동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는사이에 남숙은 청년들에게 신심을 안겨 주고 날개를 달아준것이다.

그리고보면 남숙은 신심을 가진 인간에게만 눈사태를 짓눌려버리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은 어떤 난관도 이겨낼수 있다는것을 알고 나에게 그것을 바랐던것이다.

깊이 뉘우쳐지는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문득 그는 힘이넘치고 날개라도 돋친듯 맘이 가벼워져서 언제나 회파람을 불며 다니던 지난시절의 일이 되살아났다.

그에게는 하늘을 찌를듯이 소소리 솟아오른 메부리도, 숲이 우거진 수려한 산발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것만 같아서 격랑처럼 밀려드는 눈보라도 휘몰아치는 비바람도 용감하게 맞받아나갈수 있었고 험악한 산악도 가뭇없이 휘여잡을수 있었다. 그런데 소장이 되어 정치사업도 안하고 노래도 쥐어버리고 타산만 앞세우는 인간으로 변했다.

그리고보면 남숙이가 자기만 보면 사기가 떨어진다고 한것도, 어데 아픈가고 물은것도 결국은 신념이 부족한 이 상벽이에 대한 질책이 아닌가.

림상벽은 남숙이와 반장들이 지켜본다는것도 있고 그자리에 오래도록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소장의 얼굴을 지켜보던 남숙이가 속삭이듯 말했다.

《소장동지,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리고는 상벽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짹짹하게 언 소장의 팔소매를 붙잡고 사람들이 있는데로 돌아섰다.

《소장동지가 오셨어요!》

남숙의 맑은 목소리는 눈바람을 타고 산발에 메아리쳐 울렸다.

《야! 소장동지가 오셨구나!》

모두가 환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남숙의 손에 팔을 잡히운채 끌려가던 림상벽은 우뚝 서버렸다. 큰바위처럼 웅장한 몸집의 자기가 조그마한 처녀의 나긋나긋한 손에 끌려가고있는것을 웅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 꺾들거렸다.

심각한 낯빛을 하고 서버린 소장은 말이 없었다.

안타까운 시간이 흘렀다.

림상벽은 이윽해서야 저으기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덕운이! 담배 있소?》

《없습니다.》 덕운이 본능적으로 아래웃주머니

를 만졌다.

남숙이가 얼른 《곰반장》한테 달려가 담배를 가지고 돌아왔다.

남숙이가 내미는 담배를 받아쥐는 림상벽의 눈에 물이 펴 피었다.

담배를 피워무는 림상벽소장을 바라보는 《곰반장》의 얼굴이 찡그러졌다.

그러나 상벽소장은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남숙의 입가에 피어오르는 귀여운 미소를 보고있었다.

처녀의 아릿답고 깨끗한 미소는 사납고 혹독한 날씨를 봄날처럼 따뜻하게 해주는상싶었고 눈덮인 겨울의 정서를 한껏 돋구어주는상싶었다.

(눈사태를 노래사태로 덮어버린 처녀!)

림상벽은 입속말로 외우고나서 누구에게라없이 소리쳤다.

《노래를 부르고 쟁파리를 울리라구. 그래야 일자리가 폭폭 나오.》

그리고는 《곰반장》을 향해서 《지원대를 몽땅 여기로 데려오우!》 하고 웨쳤다.

이때 《곰반장》이 슬며시 림상벽이 앞으로 다가 왔다.

《저 기슭을 메꾸려면 세월이 없을것 같습니다.》

아닌게아니라 이쪽 아우봉기슭에는 눈사태로 30미터깊이로 움푹 패워져있었다.

그러나 상벽소장은 신심에 넘친 음성으로 말했다.

《걱정할게 없소.》

순간 그의 눈빛이 세차게 번쩍거렸다.

사방을 휘돌러보던 림상벽의 머리에 한가지 생각이 섬광처럼 떠올랐던것이다.

상벽은 두툼한 털모자를 벗어던지고 산비탈을 툴아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눈이 켜해서 주먹같은 썩살이 박힌 림상벽의 목덜미를 바라보았다.

눈을 헤치고 진대통을 타고넘으며 산비탈을 툴아오른 상벽소장은 눈을 가장 많이 머리에 쓰고 있는 잣나무로 올라갔다. 나무꼭대기에 올라선 그는 굵은 나무가지를 쥐고 왁살스럽게 흔들며대기 시작했다.

소소리높은 잣나무에서는 장막처럼 뽕안 눈가루가 흩날리고 눈덩어리가 툭툭툭 툭 떨어졌다. 눈덩어리는 굴러가면서 다른 나무 밑둥을 치고 수십개로 부서진다. 부서진 눈덩이는 대굴대굴 구울면서 호박만해지고 또 굴러가면서 집채만큼 커지고 그것은 또 다른 눈덩이를 밀어내면서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산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듯 와르릉 쿵 평음을 지르며 골짜기로 쏟아져내렸다.

부딪치며 엉키며 내리밀리는 눈폭포, 부서지며 솟구쳐오르는 나무사태, 쾅쾅 뽕박질을 하는 돌폭포, 폭포...폭포...폭포...

폭포소리에 산이 웅웅 울고 하늘이 몸부림쳐

다.

이에 화답하듯 청년들속에서 노래소리가 터져 올랐다. 노래소리는 폭포치는 눈사태의 굉음과 함께 우렁찬 메아리가 되어 모든 산밭을 세차게 뒤흔들고있다.

아!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거창한 광경인가.

(신념을 가진 인간은 그 무엇도 다 정복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온 하늘에 대고 이렇게 소리치고싶은 충동이 흉벽을 뒹 치는 순간 림상벽은 자기 몸이 그대로 눈의 장막속을 뚫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쾌감을 느꼈다.

어느덧 하늘에 구멍이 뚫어졌다.

검은 구름장들이 짹짹 버그러지고 갈라지며 뭉치뭉치 동강이 나 덩군다. 쪼각쪼각 푸른 하늘이 드러나고 새노란 해빛이 뚫어진 구멍으로 흘러 내리고 먼발치엔 부채살같이 해빛이 쏟아졌다.

이렇게 찬란한 해빛이 저 하늘높은곳에는 그냥 있었구나싶은 야릇한 감정이 피어오른다.

콧솔머리가 입에 손오가리를 해대고 소리를 지른다.

《소장동지-이-내려-오-세-요-》

그 소리는 숲언저리를 활으며 산밭에 메아리친다.

림상벽은 수천수만의 눈가루들이 은빛으로 반  
**고전시**

작거리고 조용히 떨어지는 현란한 색깔의 눈송이를 따라 아래로 눈길을 주었다.

눈사태가 내려 평평하게 덮인 골짜기에는 청색, 녹색, 자주색의 가지각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붐비고있는데 그 가운데는 북통을 멘 안해의 얼굴도 나팔을 든 덕운의 얼굴도 유표한 교수머리 벌목공청년도 얼굴을 잔뜩 재끼고 올려다보고있다. 아래를 휘휘 둘러보던 림상벽의 눈길은 남숙이에게 가서 딱 멎었다.

오뚝 서있는 남숙의 가슴에는 두툼한 털모자가 안겨있었다. 마치 진귀한 보물이라도 끌어안은 것 처럼.

무지개색으로 령롱하게 빛나는 눈송이들을 얼굴에 함뿍 받으며 서있는 남숙의 승엄한 모습이 점차 크게 안겨왔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인가.

림상벽의 눈앞에는 지금 눈사태우에 수정같이 맑은 얼음이 깔리고 그 길로 통나무행렬을 끌고 줄기차게 내달리는 프락뜨르의 모습이 떠올랐다.

두산을 건너놓은 얼음의 다리, 그것은 신념의 다리, 충성의 다리였다.

이 다리우로 남숙이를 비롯한 충성의 대오가 프락뜨르를 앞세우고 돌진하는 모습이 어려왔다....

## 본데로 적는다 외1편

허균

귀밑머리에 서리 내리고  
두눈마저 어두운  
나이 많은 아낙네  
마을에서 통곡하네

남편은 빗때문에  
이웃집에 갇혀있고  
아들을랑 번살이로  
변방으로 떠났다네

전란을 겪은 뒤라  
베를마저 불에 타고  
산속을 헤매노라,  
치마까지 잃었노라

살림살이 구차하니  
살아갈길 난감한데  
어이타 고을아전  
또 와서 주인 찾나

## 또 읊노라

시골 녀인 서로 모여  
눈물지으며 이르는 말  
올해에는 부역일이  
레년보다 더 잦다네

남은 낱알 밤새 쪼개  
길량식에 보태주고  
주어모은 푸성귀로  
아침저녁 끼니 잇네

지난 봄에 부역으로  
농사일 다 망치고  
원통하다고 하소했다가  
억울하게 매만 맞았네

천년이 지나도록  
어진 관리 못봤거니  
백성들을 돌봐줄이  
이 세상엔 다시 없네

## 깊어지는 생각

홍승덕

내가 출장길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다.

아래방에서는 인민학교 3학년에 다니는 막내아들이 네활개를 쭉 펴고 이불도 덮지 않은채 단잠을 자고있었다. 무슨 즐거운 사연이라도 있었던 듯 그 애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있었다.

건강에 넘치는 막내아들의 꽃망울 트는것 같은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얼마 길지 않았던 출장기간이지만 몸이 더 든든해진 우리 집안의 귀염둥이를 한동안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 막내아들에 대한 대견스러운 생각을 굴리고있는데 바느질감을 주무르고있던 안해가 웬일인지 푸념이 뻗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제야 오셨어요. 좀 빨리 오실거지...》

《기다렸됐소? 그저 이일저일 마저 보다나니 좀 늦었구만. 그래 그새 무슨 일이라두 있는 모양이구만.》

나의 대답이자 되묻는 말에 안해는 저으기 눈을 흘기며 또 말문을 여는것이였다.

《그새 일이 있어두 여러번 있었지요 뭐. 줌전에 또 진료소담당의사선생이 왔다갔어요.》

《진료소의사선생이?...》

《네, 인민반에서 다들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당신만이 빠졌다면서 벌써 몇번이나 찾아왔었어요.》

《아 그랬됐소. 그럼 빨리 진료소엘 가봐야지.》

우리 내외간이 이르고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귀에 익은 손기척을 듣고 그 문두드리는 소리의 입자가 틀림없이 진료소담당의사임을 자신만만하게 알아맞혔다.

나는 언제나 봐도 친절한 우리 인민반담당녀의사를 방안으로 맞아들이면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정말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저때문에 벌써 여러번 수고로운 걸음을 하셨더군요요.》

《참, 별말씀을 다... 우리 의무인데요 뭘, 도리어 이렇게 늦은 밤에 출장길에서 돌아보시자마자 찾아와 오히려 더 송구스럽습니다.》

꽃향기같이 부드러운 웃음을 입가에 띠운 녀의사는 날렵한 솜씨로 위생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더니 나에게 예방주사를 놓는것이였다.

한해에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차례 맞는 예방주사이지만 이날따라 나는 어쩐지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오르면서 온 가슴이 찢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한낮에는 물론 이른새벽, 늦은 밤을 마다하지 않고 때없이 찾아와서 인민들의 건강을 살뜰히 보살펴주는 진료소의사들의 문두드리는 소리!

무릇 마를줄 모르는 대양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저네들의 생의 터전인 물의 헤력과 고마움을 그닥 느끼지 못하고 살듯이 우리들도 참으로 살기 좋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바다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의 품에 안겨 세상만복을 다 누리며 살다보니 그 사랑의 깊이와 은덕의 위대함을 다는 모르고있는것이 아닌가.

정녕 어제날같은 세상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은덕을 매 순간마다에 받아안으며 빛나는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은 말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근로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습니다.》**

이럴진대 때없이 집집마다 울려오는 이 문두드리는 소리를 한갓 어찌 집주인을 찾는 의사들의 손기척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의사들의 문두드리는 소리!

실로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다심한 어머니의 애무어린 손길보다 언제나 더 살뜰히 보살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한없는 은정이 사람마다의 가슴속깊이에 흘러

드는 뜨거운 사랑의 물결소리인것이다.

외진 섬마을에도, 두메산촌의 외딴집에도, 머나먼 아프리카에 가있는 우리 외교일군들에게도, 인디아양의 바다우에 뜬 조국의 무역선에도 그리고 온 나라의 도시와마을 할것없이 우리 인민들이 있는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뜨겁게 안겨지는 위대한 사랑을 눈물겹도록 속삭여주는 문두드리는 소리...

나는 이 정겨운 문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환자의 가슴에 가닿아야 할 의사의 청진기가 먼저 돈주머니에 가닿는 사회, 매일매시각마다 술한 목숨들이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며 죽어넘어지는 저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의 참상을 이야기한 어느 한 신문의 글줄이 머리에 떠오르곤한다.

...서울에 사는 한 가난한 청년이 어느날 생명이 위급한 누이동생을 업고 병원을 찾아 달려갔다.

늦은 저녁이어서인지 병원문은 잔뜩 포식한 야생동물의 입처럼 굳게 닫혀져있었다.

외토리녀동생을 등에 업은 청년은 여윈 손으로 병원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하였지만 포만 의 식곤증으로 하여 깊은 잠에 폴아떨어진 그 어떤 흡혈귀의 아가리같이 병원문은 좀처럼 열릴줄 몰랐다. 그러다가 한참만에야 잔뜩 배를 채우고도 또 굳침을 삼키며 교활하게 입을 다시는 독사의 사나운 주둥이같이 병원문이 반쯤 열리더니 기름이 번질거리는 의사의 번대머리와 함께 고향 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니 누가 이 재밤중에 소란을 피우는거냐?》

《선생님, 내 동생이 죽어가요! 어서 좀 살려주십시오. 예?!...》

의사한테 간청하는 청년의 울음섞인 목소리는 황막한 들판을 속절없이 메아리하는 머슴목동의 피리소리마냥 가냘팠다.

잔뜩 늑장을 부리며 차돌같이 랭담한 두 눈알을 데룩거리던 의사놈은 청년한테 병치료를 할 돈을 가지고왔는가 하는것부터 캐물었다. 의사놈이 부르는 돈은 너무나도 엄청난것이어서 그 청년이 웅근 한해동안을 땀빠지게 일해도 결코 장만할수 없는 거액의 돈이었다.

무서운 죽음의 손아귀가 가엾은 누이동생의 목숨을 각일각 옥죄이고있는 위급한 순간에 돈부터 먼저 《진찰》하는 의사놈의 살인적이며 비인간

적인 행위에 더 어쩔수 없게 된 청년은 그달음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갔으나 역시 만나는 의사들 모두가 썩은 개바닥의 거마리들처럼 매한가지였다.

《내 눈알을 팔아서라도 돈을 꼭 가져오겠으니 불쌍한 내 누이동생을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하면서 청년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으나 인간의 생명을 돈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이 저주로운 사회는 랭소만 던질뿐이었다.

끝내 청년의 녀동생은 앙상한 오빠의 잔등에 업히워 때아닌 거칠은 바다바람에 너무나도 일찌기 모래불우에 떨어지고만 해당화꽃처럼 영영 숨지고말았다.

말할수 없는 분노가 인생의 하많은 상처로 하여 피눈물만 고인 청년의 가슴에서 창끝처럼 치솟으며 번뜩이었다. 숨진 동생을 등에 업은 청년은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병원문을 썩은 세상을 들부시듯 마구 두드렸다. 청년의 나무등걸같은 주먹에서는 선지피가 흘러내렸다.

그 문두드리는 소리는 저주로운 세상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남녘인민들의 분노의 웨침이기도 하였으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있는 전대미문의 불행과 고통을 말하는 신음소리이기도 하였다....

행복과 죽음의 대조를 이루는 이 문두드리는 소리를 가슴저미도록 생각하며 나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한없는 사랑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그처럼 살뜰히 보살펴주는 우리 나라의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에 대하여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게 되는것이다.

조금이라도 앓을세라 미리미리 병을 막아주고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병치료를 해주며 의사들이 먼저 집집과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인민들의 건강을 돌봐주는 으뜸가는 보건제도로 하여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탄해마지 않는 살기 좋은 내 나라!

어버이수령님께서 뜨겁게 안겨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한없이 부어주는 위대한 사랑의 물결소리가 대하처럼 굽이치는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 오늘 우리 인민은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며 행복의 꽃바다를 활짝 펼쳐가고있는것이다.



## 영원한 전사

올레시 곤차르

## 1

전투마당에서 두눈에 화상을 입은 부교수가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있다. 대학생들은 학습장을 앞동무의 등에 대고 선채로 강의를 받는다. 웅덩이그런 강의를실에는 책상도 의자도 없다. 강점자들이 깡그리 불태워버린것이다.

휴식시간에도 녀학생들은 전쟁전처럼 앞을 다투어 로대로 달려나가지 않았다. 로대로 통하는 문은 못을 쳐서 막아버렸는데 로대는 약간 다치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질 지경이었다. 대학생들은 마사진 창문가에 모여서 활기있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화창한 봄날이다. 도시에는 봄빛이 넘쳐흘렀다. 지붕들이 유쾌히 번쩍이고 유보도의 밤나무도 움이 났다.

부교수는 지팡이를 짚고 교단에서 내려왔다. 이 순간에 그는 누구인지 뚜벅뚜벅 마주 걸어오는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걸음소리는 군인들이 거수경례를 할 때 멈춰서는 거리에까지 와서 똑 그쳤다.

《드미프리 이와노위치...》

부교수는 시력만 잃지 않았던들 대학에 갓 온 청년군관을 알아보았을것이다.

《드미프리 이와노위치!》 하는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당신을 알고있습니다. 당신은 전에 우리 중대 전사였습지요.》

《당신은?...》

《고로보이입니다!》

《고로보이중위요?!》

《아니, 이젠 군위 대위 고로보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생 고로보이입니다.》

《매우 반갑소.》 하면서 부교수는 손을 내밀었다. 《이건 뭐요? 어째서 왼손을 내미오?》

《오른손은 없습니다. 드미프리 이와노위치.》

화상을 입은 부교수의 시꺼먼 얼굴이 병적으로 찌그러졌다. 둘은 금시 묵묵히 있었다.

《당신은 어째서 나를 깡그리 이름과 부칭으로 부르오?》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요.》

《부탁이니, 그때처럼 그저 글로바동무라고 하시우. 그러면 내가 당신의 제4중대에 있던 때를 생각하게 될테니말이요. 시력을 잃지 않은 그때를.》

## 2

글로바는 고로보이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있

었다. 성미가 급한 젊은 중위를 생각할적마다 서러움과 모욕감이 북받쳐오르곤하였었다.

이것은 준엄한 시기인 41년 8월에 있는 일이었다.

고로보이중대가 다른 구분대와 함께 전선에서 이동하게 된 어느날 밤이었다. 무덤속처럼 캄캄했었다. 초저녁부터 미적지근한 굵은 비방울이 떨어졌다. 움직이는 끝없는 밀림과도 같은 그 비발속을 뚫고 중대는 강행군을 계속했다. 대렬선두가 소리없이 멎으면 뒤사람은 앞동무의 등에 이마를 쫓고 잠을 깨곤하였다. 벌써 며칠째 자지 못한 그들이었다.

휴식참에도 다른 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다른 자리는 있지도 않았으며 명령이 내린 그 자리에 진창이건말건 죽은 사람처럼 길가에 나가 쓰러졌다. 부드러운 흙을 깔고 눕는다는것은 병사들이 맛보는 더없는 쾌감이었다. 지휘관들만이 이런 쾌감을 맛볼수 없었다. 그들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당번을 서야 했다.

글로바는 지금도 기억하고있는바이지만 5분간 휴식시간에도 몸을 펴고 누워 외투자락으로 보충을 덮고 철갑모를 바로 벤 다음에는 잠드는것은 물론 꿈까지 꾸었었다. 그가 꾸 꿈은 여러가지였으며 시외의 봄처럼 가없고 알록달록했다. 그러다가 누가 발길로 옆구리를 차는바람에 깨어나면 그게 모두 5분간에 벌어진 일이었다는것이 믿어지질 않았다.

한번은 휴식하다가 떠날 때 어둠속에서 그를 보지 못하고 깨우지 못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사방은 지척을 분간할수 없는 어둠뿐 무시무시하게 조용한데 비만 내렸다. 글로바는 외롭고 무서워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고싶었다. 마치 무인고도에 혼자 떨어진듯한감이 들었다. 벌떡 일어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어둠속에다 대고 소리쳤다.

《어-이!...》

귀를 기울이고 서있었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뒤로 돌아서서 소리쳤다.

《어-이!...》

그러나 밤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앞으로 와락 내뛰기 시작했다. 등뒤에 철벽거리의 진창소리는 마치도 누가 뒤쫓아오는듯

했다.

길옆에 나무숲이 시꺼멓게 자라있었다. 저게 어디서 나타났을까? 마치 잠자는 사이에 자라난 것 같다. 병사인 그는 지금까지 그런것은 눈여겨 살피지 않았었다. 자기에 대해서는 지휘관들이 돌봐주었었다.

글로바는 더럭 공포에 질렸다. 악독한 승냥이 떼가 소리없이 줄곧 따라오는것만 같았다. 참으로 맹랑하고 무서운 일이다.… 지원하여 전쟁에 나와 전투를 그렇듯 갈망하다가 지금이야 비로소 주머니마다 노란 탄환을 가득 채우지 않았는가!… 중대는 강행군으로 전진하고있다. 중대는 전투를 하고있을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동무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도주자? 탈주병?… 이것이 죽음 보다 더 무서웠다.

그는 달려갔다. 보총의 가죽띠를 꼭 잡고 절망에 차 신음하면서 호주머니에 가득 채워넣은 예비 탄환을 절령거리며 달려갔다.

《셋! 누구야?》

철갑모를 쓴 두 그림자가 어둠속에서 불쑥 나타났다.

《아군이요…》

《아군이면 누구요? 어디로 뛰어가우?》

《대렬에서 떨어졌소… 깨워주길 않아서…후! … 그래 부대를 찾아가는길이요…》

《찾아간다!》 두사람은 웃었다. 《어데서 부대를 찾겠소! 부대는 전방으로 나갔는데…》

《나도 그리로 가우…》

《당신은 후방으로 뛰고있단말이요!》

《뛰요!》 글로바는 소름이 끼쳤다. 《후방으로?》 둘은 또 웃다가 그의 군부대를 물었다. 알고보니 그들 셋은 한 대대의 병사들이었다.

《180도로 돌아서라구.》 하고 그들은 글로바에게 말했다. 《함께 가지요. 우리와 함께 가면 실수 없을게요. 우리도 부대를 찾아가는길이니까…》

이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역시 전번휴식때 어디인가 날가리미에서 자다가 뒤편어진것이였다. 그러나 인차 따라잡으리라고 믿은 그들은 그리 걱정하지 않았다. 하긴 둘이었으니까 그랬는지도 모른다. 둘이서는 마음이 한결 든든해지는 법이니까.

대대를 따라잡았을 때는 동이 흰히 트기 시작하였다. 고로보이는 자기 중대의 병사 하나가 없어 졌음을 알고있는것 같았다. 중위는 중대와 함께 걸으면서 줄곧 뒤를 돌아다보았었다. 글로바는 외투자락을 혁띠밑에 쓸어넣고 한달음에 중대를 따라잡았다. 자기의 지휘관을 본 그는 멀리서 부터 반색하며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마음대로 하라던 형제나 다름없이 달려가 그의 목에 매달렸을 것이다.

고로보이는 이를 악물고 길옆에 멈춰섰다.

《어델 돌아다니였소, 글로바?》

《뒤편어졌습시다, 중위동지… 그만 듣질 못하고…》

《못들었다! 귀가 멀었구면!》 중대장은 증오의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다. 마치도 그 눈초리로 그를 죽일수만 있다면 죽이기라도 할것 같았다.

《원췌는 벌써 드네쁘르강을 건너오고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듣질 못하오!… 그러니 당신과 같은 늙은대기를 어떻게 책임지란말이요!》

글로바는 변명을 하려 했다.

《중위동지…》

고로보이는 그의 말을 중등무이하고 등을 밀쳤다.

《걸음을 크게 내딛고 따라잡으시오!》

글로바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는 섭섭하고 아프고 피로왔다. 아직 전쟁에서 체험이 적었던 그는 백발 병사인 자기를 마치 광장에 얹어놓고 불기치는것만 같았다. 그는 돌아서서 무자비하게 엄격한 이 청년에게 마음 시원히 털어놓고 이야기하고싶었다.

그러나 글로바는 규정을 알고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건만 중위가 한 말은 가슴을 허비고들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그는 젊은 중대장의 엄격하고 날카로운 성미를 스스로 이해해주려고 애썼다. 사실말이지 그때는 긴장할대로 긴장한 준엄한 시기가 아니었던가. 이러한 때에는 과도하게 긴장된 신경을 억제하며 자제한다는것이 좀처럼 쉽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보면 잠을 못자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이 청년이 자기의 한 부하를 그렇게 꾸짖었다고 해서 이상한것은 없다. 젊은 지휘관은 조용한 이 늙은 병사가 석달전만 해도 자기와 같은 새파란 젊은이들을 수백명이나 가르치고 있다는것을 알리 없는것이다. 또 안다고 해도 글로바가 전쟁전에 무엇을 했건, 존경하는 기사였던, 농사군이었던, 탁월한 사람이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고로보이에게 무슨 상관인가? 중위는 글로바를 4중대의 한개 병사로 알뿐이다. 이 병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중대장인 그가 책임진다. 준엄한 전선의 조건들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며칠후 고로보이는 병사 글로바가 중한 화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중위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게 무슨 소리요?》

글로바가 있던 전호로 적땅크가 공격해왔다는 것이다. 그가 전호에서 인화병을 꺼내서 머리위로 던지려는 순간… 인화병이 적탄에 맞았다. 불길이 글로바의 몸을 휩싸며 마치 물둥이에 물을

쏟아붓듯 전호를 덮썩웠다. 병사는 전호속에서 뛰어나올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랬으면 영낙없이 죽었을것이다. 그는 정신을 잃지 않았으며 적기 관총이 불을 토하는 밖으로 뛰어나오지 않았다. 타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목에까지 불길이 올라오는 좁은 전호안에 그냥 서있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소?》 중위는 낫색을 흐리며 다우쳐물었다.

《우리 로인은 그래도 정신을 잃진 않았습시다. 전호에서 다른 인화병을 꺼내들고...》

《그래서?》

《명중시켰습시다!》

《잘했소.》 고로보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얼마전에 자기가 그렇게 엄격하게 대해준 병사가 지금은 지어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사실 로인은 량심적인분입니다.》

그날저녁 중위는 전투인원손실명단에 글로바의 이름도 써넣었다. 그러면서 그와 더는 만나지 못하러니 생각했다.

### 3

대학에 온 고로보이는 실명한 부교수앞에 다가설 엄두를 인차 내지 못했다. 복도나 강의실에서 그를 만날적마다 어쩐지 어색한감이 들곤하였다. 고로보이는 지금까지 그때 행군시에 있었던 그 쓰라린 경우를 잊지 않고있었던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는 자기가 한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휘하였다는 긍지감을 가지고있었다. 41년말의 간고한 시련의 시기에 군말없이 전호를 뚫으며 그의 명령 한마디면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에로, 위훈에로 돌진하던 수십명의 젊은 이와 늙은이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는 이름 떨친 프락또르온전사와 광부들, 시인과 기사들, 지금은 강단에 서서 기억을 더듬어가며 청장생들에게 복잡한 공식들을 가르쳐주는 이미 백발이된 이 공학학사와 같은 사람도 또 있었을것이 아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로보이는 그때 매개인을 하나하나 죄다 살펴보지 못했었다. 제일선의 보병중대니만큼 사람들은 오래 남아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산 사람들은 물론이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그가 부하들을 푸접없이 대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으리라!...

그렇다, 그때는 전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그러니 지금 고로보이앞에 두눈을 화상당한 그전의 한개 전사가 《우로 나란이》하는 구령을 친 때처럼 고개를 한옆으로 돌리군하면서 고개를 높이 들고 새로 만든 강단에 올라서 있는것이 놀랄울건 하나도 없지 않은가. 실내의 모든 학생들이 그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귀담아들고있다. 고로보이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학업은 조련치 않았다. 핵물리학, 술한 동위원소... 때로 고로보이는 하나도 소화하지 못할것 같았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파고들어도 남보다 뒤떨어질것이다. 전쟁기간에 술한것을 상실한 그와 그가 축축한 참호에 앉아있는동안 과학은 멀리 앞서나갔다. 그가 전사들과 지뢰원을 헤치고 적진지의 일선으로 은밀히 나가던 그때의 그에게 동위원소가 필요했던가...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힘에 부치는 일처럼 생각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헌신짝같이 집어던지고 다른 길을 택할 마음도 나군했다.

그가 글로바에게 인사를 한후로 그들 두사람은 몇번인가 만나서 이야기도 하였지만 부교수는 오래전에 있는 그 불쾌한 일을 한번도 상기시키지 않았다. <혹시 잊어버렸는가?> 고로보이는 가끔 이렇게도 생각해보았다. <사실 빠개놓고 보면 하찮은 일이 아닌가, 격해서 그랬지.> 만약에 글로바가 그때 당한 모욕을 지금도 가슴속에 깊이 품고 있다면야 어떻게 자기를 것처럼 진정으로, 성의껏 대해줄수 있겠는가? 언제 무슨 말을 할때나 그런 빛도 안보인다.

어느날 고로보이는 녀학생들과 함께 (그들의 학급은 거의가 다 녀자들이였다) 글로바에게 끈쫄따짜야를 받으러 갔다. 처음에는 처녀들이 의문나는것을 물었다. 그런 다음 상례대로 부교수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것은 배운것을 얼마나 소화했는가 알기 위해서였다.

부교수는 언제나와 같이 검은 김나스쥘르까의 단추를 죄다 채워입고 책상앞에 단정히 앉아있었다. 상처자리가 짙쥘 패인 그의 얼굴은 줄곧 실룩 거렸다. 마치도 그의 생각이 그 얼굴로 끝없는 물결처럼 밀려가는것 같았다.

글로바의 질문을 받은 처녀는 한문제에 막혔다. 글로바는 다른 처녀에게 침착하게 물었다.

《야세네쓰까야동무는 알겠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야세네쓰까야는 짐작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럼 고로보이동무는?》 부교수는 상냥한 어조로 계속했다.

고로보이는 얼굴빛이 홍당무처럼 빨개서 일어섰다.

실은 그도 이 문제를 딱히는 몰랐으나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다. 오래동안 병사들에게 긍정적대답만을 하도록 가르쳐왔으며 자기도 그렇게 해온 그였다.

《어서 대답하시오.》 글로바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환해졌다. 그는 지난날의 상관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여기 모인 학생들앞에서 그를 자랑으로 여기는것이였다. <전선에서 싸운 사람이 역시 다르단말이야.> 처녀들은 소곤거리

면서 아직 원기왕성한 두 불구자-로병들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고로보이는 대답하면서 차츰 약이 올랐다. 갈피를 놓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글로바는 참을성있게 들었다, 그러나 고로보이는 자기가 벌써 허튼 말을 하고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지난날 잃어버리고 되찾지 못한것에 대한 원한과 절망과 분노가 치밀어오름을 느꼈다. 드디어 고로보이는 악에 반쳐 손을 내흔들고 마치 책상에 대고 말하듯 소리쳤다.

《인젠 끝장입니다.》

교원은 흠칫했다.

《무엇이 끝장이란말이요, 고로보이동무?》

《그만두겠습니다…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고로보이? 한번 더 말해보우.》

《거기서도 밤낮이 없었고 여기서도 밤낮이 없습니다. 전 더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전 4년을 뒤떨어졌습니다…》

《따라잡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소.》

《따라잡으려고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나 다 따라잡을순 없는겁니다!》

《따라잡으려고 해보았구요?》 격분한 부교수는 이렇게 속삭였다. 상우에 놓인 두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못따라잡겠단말이지요?》

처녀들이 깜짝 놀란듯이 수군거렸다.

《나가시오… 저리!》 하고 부교수는 참지 못하고 처녀들에게 소리쳤다. 《잠시 나갔다 오시오.》 녀학생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운듯이 복도로 휩뎡쳐나갔다.

강의실에는 그들 둘만이 남았다.

《그래 무슨 생각을 했소?》 분개한듯 말했다.

《헐 한 길을 찾겠단말이지요? 여기서선 어렵단말이지요? 여기서선 못따라잡겠단말이지요? 기억하지요?…》

고로보이는 숨막힐듯 뜨거운 심연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글로바가 지금 그 옛날에 있던 일을 상기시키려는것임을 그는 깨달은 것이다. 글로바는 사실 그 말을 꺼냈다.

《노워-모쓰쥬스끼부근의 초원에서 있는 그 지옥같이 무서웠던 밤을 기억하고있소?》

《예.》

《아마 잊지 않을거요, 내가 뒤떨어졌을 때 당신이…》

《예.》

《당신이 그때 한 말도 기억하고있소? <못들었다… 귀가 멀었구먼…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책임지겠소…>》

《생각납니다.》

《나도… 기억하고있소. 그때 당신은 나에게 많은것을 가르쳐주었소, 고로보이동무, 처음엔 내가 심히 모욕감을 느꼈지만 후에는… 후에는 당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당신을, 당신의 행동을 옹계 보았소. 당신은 우리 병사들에 대해서 조국앞에 책임을 져야했소. 때문에 나를 질책한것은 옳은 일이었소. 지금은 조국이 시키는대로 우리 립장이 바뀌었소. 그러면 내가 지금 당신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고있는가? 당신이 뒤떨어져서 쉬운 일을 찾겠다고 핵물리를 집어던지는것이 내겐 가슴아프지 않은줄 아우? 말해보시오, 당신의 그런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겠소?》

고로보이는 글로바앞에 차렷자세로 섰채 말이 없었다.

《우리 생활이란 그런것이요.》 하고 부교수는 저르기 누그러져서 계속했다. 《우리는 항상 호상간 책임을 지게 되어있소. 오늘은 당신이 나를 책임졌다면 래일은 내가 당신을 책임져야 하오… 당신이 그때 큰소리로 내게다…》

《걸음을 크게 내디디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고로보이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랬소… 그때 나는 목덜미를 끄들려가는 사람처럼 힘껏 내달렸소. 그래서… 따라잡은 것이요.》

《그때는 그래도 헐했습니다.》

《이미 극복한것은 뭐나 다 헐해보이는거요.》 부교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난 그 일을 끄집어내어 말하고싶은 생각은 없었소. 우연히 그 말이 나온거요. 날 찢덕진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마우.》

《저도 그렇겐 생각지 않습니다.》 하고 고로보이는 말했다. 사실 그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

《자 이제 다시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합시다.》 부교수는 성난 사람처럼 경고했다.

《알았습니다.》

《중대는 물리학으로 진군하고있소. 그래 물리학으로. 그러니 고로보이, 당신도 따라가야 하우.》

고로보이는 빙그레 웃었다.

《들었습니다.》

《가시오!》

문밖의 처녀들은 주먹으로 입을 싸쥐고 웃음을 참고있었다.

《엇듣는건 좋지 못하오!》 부교수는 그들에게 소리치고나서 강의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 새벽 이슬

홍창원

갈증에 타는  
전사들의 입술  
물... 물은 고지에 없는가?  
  
엄폐호밖으로 나선 전사  
고지후면으로 떠난다  
포화에 타다남은 풀포기 찾아  
  
해는 지고 날은 저물고  
바위에 축축히 물기가 도니  
풀잎들엔 이슬이 맺히리  
  
새벽녘에 잡아드니  
반갑다! 기다리던 풀잎들엔 방울방울  
소리없이 피여오는 맑은 이슬 맑은 이슬  
  
물이어 바위가 타고 시내물은 말라도  
불비속에서도  
땅이 주는 물은 있구나  
  
뜨겁게 입맞추노라  
이슬은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조국의 진주알...  
  
한방울... 두방울...  
탄피속에 받아가는 이슬방울엔  
사철 마를줄 모르는 고향샘물이 어려왔고  
  
오곡을 가꾸는 너인들의 맑은 웃음  
소방울소리와 벼이삭 설레임소리...  
한없이 귀중한 그 모든것이 비껴왔기에  
  
오, 빼앗길수 없는 조국  
그대에게 바치는 사랑은 얼마나 뜨거워야 하는가  
맑은 이슬은 속삭이누나  
  
방울방울 물은 작았어도  
너의 속삭임, 너의 빛갈  
온 조국땅을 담고 빛났거니  
  
전사는 차마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토록 빛나는 아침이슬속에서  
승리한 조선의 래일을 바라보고있었다

## 가렬한 싸움의 옛 전장에

김정순

무엇이 불타고 무엇이 남았느냐?  
  
가렬한 싸움의 옛 전장에  
꽃은 폈구나 바람은 맑고나  
하늘은 높고 푸르고나

수류탄 입에 문 전사  
적진으로 굴러떠난 이 산정에  
과일은 탐스럽게 익었구나  
향기에 뜨거움에 목이 메노나  
  
턱으로 중기압철 누르며

사수가 몸부림치던 저 바위에  
보화덩이같은 꿩들이 내려앉누나  
쌍쌍이 부리를 비비며 거니노나

아, 화점으로 내닫던 최후의 만세소리  
총창의 부딪침, 육박의 소음 뿜던곳에  
뜨거운 피 점점이 젖어든 곳곳에  
지금은 고요히 꽃들이 피어웃노나

무엇이 불타고 무엇이 남았느냐?  
무엇이 쓰러지고  
무엇이 살아 숨쉬느냐?

선혈이 뿌러지고 꽃이 피었다!

전사의 아들이기도, 형제이기도 한  
그의 부모처자, 벗이요, 친우이기도 한

고향이 살아 꽃피는구나!  
전사의 노래요, 꿈이기도 한  
기름진 들의 물줄기, 흰연기 펼쳐든 저 하늘  
조국이 살아 부강하노나!

심장이 멎고 뱃이 숨쉰다!  
이 꽃이기도 한, 저 열매이기도 한  
창공을 가르는 저 아름다운 새이기도 한  
조국의 모습과 숨결에 합쳐진 영생들이  
수령님 해빛아래 길이 꽃피노나!

## 손수건 흔드네

김영길

석양노을 흐르는 보퉁길로  
전사들 가네  
하루의 농장일손 도와주고  
포전끝에 잇닿은 저기 초소길로  
농장의 이 밤을 지켜  
조국의 이 밤을 지켜

해종일 들판에서  
충성의 구슬땀 함께 흘린  
농장의 처녀들  
잘 가라고 잘 가라고  
손수건 흔들어주네

아, 총메고 가는 길 보퉁아래  
노을 안은 물결은 너울치고  
처녀들의 머리우에도  
그너머 지평선 한끝까지

타오르는 붉은 노을 붉은 노을...

심장을 바쳐 가꾼  
사랑하는 이 땅을 지키려가는  
전사들의 모습  
전호가에 사라졌어도  
수호자의 불타는 마음  
저 노을속에 펼쳐두고 갔거니

아아, 잘 있으라고 잘 있으라고  
손수건 흔들어 화답하지 않았어도  
하늘에 땅에  
펼쳐있는 저 노을은  
이 밤도 안녕하라고 안녕하라고  
조국을 향해 흔들고 흔드는  
전사의 붉은 손수건

##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예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를 편집출판하였다.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중에서 1930 년 카륜회의이후부터 1931 년초까지의 력사적시기를 형상하고있다.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소설은 김성주동지께서 카륜회의로선을 가지고 5.30 폭동의 후과를 수습하기 위해 이미 할빈지구에 가서 공작하고있는 혁명시인 현옥의 사업을 방조하도록 그의 애인인 《길림의 피팔새》 유선아를 할빈으로 파견하시는데로부터 시작된다.

김성주동지께서는 차광수와 함께 몸소 고유수에서 카륜정거장까지 나오시여 유선아를 바래주신다.

그런데 이때 길림의 지하조직원이며 공청원인 한영희가 교하에서 폭동이 터졌다는 소식을 가지고 카륜역에 나타난다. 국제반전일이 다가오자 5.30 폭동의 후과가 채 가시기도전에 종파분자들이 저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또다시 8.1 폭동을 일으킨것이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신 김성주동지께서는 한영희를 시급히 교하로 파견하시고 해룡으로 떠나신다.

할빈에 도착한 유선아는 현옥이를 도와 카륜회의 연설문이 편집된 출판물 《불세위크》를 각 조직에 배포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친다. 유선아는 이제 현옥이와 함께 김성주동지께서 계시는 고유수로 돌아가 그이를 만나게 되리라는 기쁨과 환희에 잠긴다.

그러나 그 기쁨과 환희는 너무나도 때이른것이였다.

할빈에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돌아치던 조청산

이 마창구에 나타나 폭동을 준비하고있다는 소식이 날아든다. 그 뜻밖의 소식에 격분을 금치못한 현옥은 선아와 홍룡양행에서 만나자는 짧은 한 마디를 남기고 곧 송화강을 건너간다.

그의 필사적인 노력에 의하여 다행히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밀정의 감시속에 들어있던 그는 놈들의 추격을 받게 된다.

현옥은 자기가 김성주동지를 흠모하여 지은 《조선의 별》 노래를 불러 조직에 위험신호를 보내는것으로 그이를 잘 보위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3 층에서 뛰어내린다. 의식을 잃고 포석우에 쓰러진 그는 놈들에게 체포되어 려순감옥으로 호송된다. 현옥이가 체포되는것을 목격한 선아는 슬픔을 누르고 조직선들을 은폐시킨 다음 고유수로 돌아온다.

한편 현옥의 체포소식을 들은 차광수는 그를 구원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차광수의 행동이 조직에 엄중한 피해를 가져다줄수 있다는것을 느낀 현옥이 자신이 그의 탈환을 방해해 나선것이다.

교하로 한영희를 떠나보내신 김성주동지께서는 조직을 수습하기 위하여 밀정들의 추격을 따돌리시고 해룡에 도착하시였으나 후꾸다의 《신진혁명군》에 의해 희생된 강재수소조의 비통한 소식을 접하신다.

강재수소조는 카륜회의방침에 따라 무장투쟁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경지대에 파견된 무장소조였다.

그이께서는 슬픔을 누르시고 《신진혁명군》의 책동에 대처하여 취할 행동방향을 가르쳐주시고 조직을 수습하신후 그 밤으로 길림에 들려 허재물리와 함께 다시 고유수로 돌아오신다.

김성주동지께서는 강재수의 희생과 현옥의 체포, 돈화와 교하에서의 8.1폭동과 그 후과를 수습할 대책을 취하시고나서 현옥의 옥중투쟁을 고무하기 위해 선아를 려순으로 파견하신다.

이어 허재물리를 국내로 내보내신 그이께서는 몸소 위험을 무릅쓰시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교하로 들어가신다. 그러나 8.1폭동의 후과로 많은 조직원들이 놈들에게 무참히 희생되고 뿔뿔이 흩어져 조직선을 찾을수가 없었고 거리는 살벌하여 마음대로 나다닐수조차 없으시였다. 그이께

서는 이전부터 잘 알고계시는 정미소주인 신재림의 집에 피신해계시면서 사람을 찾으려고 결심하시고 그를 찾아가신다.

그러나 신재림은 자기 신변의 위험을 먼저 생각하면서 《태화루》식당에 가서 한끼 식사나 대접하는것으로 굶뻐버리고만다.

그이께서는 한때 《정의부》의 호랑이중대장으로서 명성을 떨친 그의 행동을 놓고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되지 않는한 그렇게밖에는 달리 될수 없음을 통감하신다.

그와 갈라지신 김성주동지께서는 놈들의 추격을 받으신다. 그러나 수수한 어느 녀인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신다.

가까스로 한영회를 만나신 그이께서는 그와 함께 조선사람들이 피신해있는 하북골짜기를 찾으시고 조직을 복구하시는 한편 그들에게 살아갈길을 가르쳐주신다.

김성주동지께서는 처음 계획대로 폭동의 중심지인 돈화와 간도로 나가실 생각이시였으나 교하에서의 사태에 비추어 국제당과 원칙적인 토론을 해야겠다는 결심밑에 한영회와 함께 할빈에 들리신다.

《오텔빈잔》의 고급호텔에 숙소를 정하신 그이께서는 옥서창마을을 찾아가시여 현옥의 사건으로 끊어진 조직선을 몸소 복구하시고 국제당통신 연락소 책임자 주사인을 만나시여 조선혁명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토의를 하신다.

그이께서는 이때 뜻밖에 국내무장소조의 체포소식을 한영회가 가져온 신문을 통하여 읽으신다.

그이께서는 삼촌이 하던 일을 자신께서 해야겠다는것을 결심하시고 한영회를 러순으로 보내신 후 돈화를 거쳐 국내로 들어가신다. 온성출신인 허재룡이 그이를 모시고 함께 온성땅으로 향한다.

온성땅에 들어가신 그이께서는 돌재마을 야학선생 오석하를 중심으로 국내에 조직을 꾸려주신다.

김성주동지께서 국내에서의 사업을 끝마치시었을 때 길림을 거쳐 고유수를 다녀온 허재룡이가 오가자소식을 전한다.

조선혁명군이 혁명화하러 들어간 오가자에서 총소리가 울릴 위험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길로 오가자를 향해 떠나신다.

어느덧 철은 바뀌여 가을도 지나고 초겨울에 접어든다. 진눈까비날리는 가없는 벌판으로 그이께서는 걷고걸으신다.

겹쌓이는 시련을 헤치시며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느라 단 한순간도 편히 쉬어보신적없는 그이의 몸에는 몸살이 덮쳐든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인민을 찾아 걷고걸으신다.

오가자에 도착하신 김성주동지께서는 《리상촌》건설을 제창하는 변태익로인을 비롯한 이곳 좌상의 로인들을 육친의 정으로 따듯이 일깨워주신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시면서 《리상촌》건설의 허황한 꿈을 깨뜨려버리신다.

그리하여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이 국치일이 되면 《국치일가》나 부르던 오가자땅에 혁명가요가 울려퍼지고 모든 조직들이 혁명조직으로 튼튼히 꾸려진다.

김성주동지께서는 해마다 기념하던 국치일 대신에 10월혁명 13주년을 기념하도록 조직하시는 한편 조직적으로 결속되어가는 농민들의 혁명기세를 반지주투쟁으로 조직동원하신다.

그이의 세련된 조직력과 지도에 의하여 지주사가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커다란 승리를 거둔다.

어느날 종파분자 조청산이가 자기의 발판을 꾸리려고 오가자에 나타나 조선혁명군의 편에 서는 척하면서 변태익로인을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을 공격한다. 그러나 김성주동지를 비롯한 조선혁명군대원들은 조청산의 교활한 술책을 까뻑힌다.

그토록 《리상촌》건설을 제창하던 변태익로인은 김성주동지의 위대한 령도력과 비범성에 감탄하면서 그이의 성함을 조선의 별이라는 뜻에서 한별동지라고 부르던것을 조선의 태양이 되여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날일자 이룰성자의 뜻을 붙여 **김일성**으로 고쳐 불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가자회의에 모여왔던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이의 성함을 **김일성**동지로 고쳐 부를것을 결정한다.

오가자회의를 끝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군 성원들을 각지로 파견하신후 자신께서도 새로운 투쟁을 위해 안도로 향하시는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독자들은 이 소설의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 배우게 될것이다.



## 불빛

김명익

깊은 밤, 교대는 이어지고 마지막 통근빠스도 떠난지 이슥한데 공사장구내의 어느 한 방에서는 좀처럼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사람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방 안에서 비쳐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서로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 생각만은 저마다 깊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설비들을 알뜰히 관리하여 린비료생산을 부족 높이자고 직장마다 기대마다 찾아와 일깨워주던 소조원들, 날마다 밤마다 무엇을 그리도 고심하며 모대기는것일가. 그들의 눈앞에는 얼굴이 너부죽하고 눈이 서글서글한 3대혁명소조책임자 주생규동무며 만나면 언제나 다정하고 친근한 김선일, 김옥란소조원들의 모습이 그 불빛속에 우렁이 안겨왔다.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에 찬 의혹은 오래 가지 않았다.

《세 척 뿔프의 날개바퀴를 강화수지로 대용하자.》

3대혁명소조원들의 발기는 삽시에 온 공장에 퍼졌다. 듣는 사람마다 무릎을 쳤다. 뿔프날개바퀴를 1년이상이나 갈아대지 않고도 뿔프를 돌릴 수 있다니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혁신이 아닐수 없었다. 류산을 퍼올리는 린비료공장의 세척뿔프들은 그 어떤 재질의 날개바퀴일지라도 견뎌내지를 못하고 녹아내린다. 주철품은 3일, 연주조품은 7일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새로운 날개바퀴부속으로 바꾸어 맞추어야 한다. 7일과 365일 그것은 대비도 안된다. 기적이라 할수 있다. 뿔프에 날개바퀴를 갈아맞출 때마다 풍겨나는 역한 가스냄새, 기대를 멈춰세워야 하는 아까운 시간들, 이제는 이 모든것들도 수리공들과 운전공들의 마음을 더는 괴롭히지 않게 될것이였다. 류산생산의 정상화, 이는 곧 린비료를 의미했다.

소조책임자 주생규동무는 그 달음으로 도면을 말아쥐고 기사장실로 달려갔다.

기사장은 기쁨보다 놀라움이 더 컸다.

《이건 기적이요. 성공만된다면말이요.… 그런데 터놓고 말해서 나는 고분자화학계통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잖소. 하긴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사장의 낮빛은 차츰 흐려졌다. 그의 어조속에는 이제 자기 사업을 마치고 곧 돌아가게 될 소조원들의 수고에 대한 동정심도 없지 않았다.

소조실로 돌아온 주생규동무는 자못 심각해졌다. 사실 소조원들중에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누구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 신중히, 과학적으로

타산되어야 한다. 그는 방안을 거닐었다.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하며… 그런데 얼핏얼핏 떠오르는 기사장의 흐린 얼굴이 자꾸만 생각을 동강냈다. 아, 그는 무엇을 그리도 주저하는것일가. 풍부한 경험도 강력한 기술진도 가지고있고 두려울것이 무얼가. 처음 해보는 일, 기술적인 문제?!… 과연 그것때문일가? 아니 그것은 아니다. 부지중 머리를 가로챘던 그는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자신들은 당에서 파견한 3대혁명소조원이라는 자각이였다.

그는 가슴속에 늘 품고다니는 자그마한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교시가 또박또박 적혀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구절구절을 가슴속에 새기던 그는 도면을 책상우에 주르르 퍼놓았다. 그리고 뿔프의 축과 날개바퀴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그밑에 《기사장-소조원》이라고 써넣었다. (그렇다. 축이 없이야 어떻게 날개바퀴가 돌아갈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날개바퀴만을 중시해왔거던…)

그는 슬그머니 주먹을 부르쥐었다.

늦게까지 소조실에서는 회의가 열리였다. 또 그 밤으로 부문도면들이 그려졌으며 강화수지에 대한 재료분석과 형타제작도 밀고나갔다. 군대가 싸움에서 이기자면 무기가 좋아야 한다. 설비는 무기며 그것은 생산이다. 소조원들의 가슴에는 불이 일었다.

설비-무기-생산. 지금은 전공부문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저마다 한가지 일감씩 자진해 말아나섰고 말은 일은 끝까지 책임질줄 알았다.

형타제작을 맡은 소조원 김옥란동무는 손바닥이 다 헤졌다. 정으로 모서리를 따내고 줄칼로 갈고 연마지로 다스렸다. 밤이고 낮이고 그칠새 없이 울려나오는 마치질소리. 조용히 부르는 노래소리… 티한점없이 거울처럼 다스려낸 형타를 불안고 혼곤히 잠이 든 새벽, 그를 바라보는 주생규동무의 목구멍은 꼭 메여 입을 열지 못했다.

(옥란동무, 지금 우리는 단지 날개바퀴만을 위해 밤을 지새는게 아니요. 그보다 더 귀중한것을 얻게 될거란말이요.)

이렇게 만들어진 형타와 재질분석표를 가지고 선일동무가 천리도 더 먼 명간의 수지전문공장에 가서 날개바퀴를 만들어가지고왔다. 그러나 첫 시운전에서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두번째도 역시 그랬다.

마침내 세번째 시운전날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되리라고 모두 믿었다. 밤인데도 류산3직장 세

척뿔프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윽고 4호뿔프에 스위치를 넣었다. 고르로운 음향... 뿔 프안에서는 연주조품대신 강화수지로 찍은 날개바퀴가 고속회전으로 돌아가고있었다.

한시간 또 한시간... 기계의 소음도 좋고 수압도 아직은 이상이 없다.

누구인가 조용히 다가와 주생규동무의 손목을 지그시 붙잡았다. 운전공아바이였다.

《소조책임자동무...》

아바이는 더 말을 잊지 못한다. 혹시 자기의 축하가 때이른것으로, 그래서 그를 더 괴롭게 하게 되거나 앓을가 주저하는상심었다.

주생규동무는 창문쪽으로 피곳 눈길을 돌렸다.

장가에는 옥란동무가 팔굽을 앞가슴에 가드라트린채 돌아서서 무심히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파도우에 뛰노는 푸른 달빛, 정다웁게 출렁이는 물결소리... 떠 나온 대학의 교정, 헤여진 동무들, 정든 고향집, 넓은 바다수면위에 금빛기둥을 드리우며 높이 떠오르는 둥근달은 처녀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추억을 불러왔으리, 그러나 그의 온 신경은 하나로 모아져 4호뿔프의 소음에 귀기울이고있음을 주생규동무인들 어이 모를수 있으랴.

한시간만 더 견지하라. 시간이 박두할수록 긴장과 초조감은 사람들의 가슴속을 허비고들었다.

그러나 주생규동무만은 여전히 침착하고 진중한 얼굴빛이었다. 인민군정찰병출신인 제대병사-대학생은 흥분을 억제할줄 알았다. 그랬으나 그도 시간이 갈수록 시계를 바라보는 회수가 잦아졌다.

이제와서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하나뿐이 아니었다. 운전공아바이는 물론 한쪽켠에서 웅성거리며 말을 주고받던 기사장과 참모일군들도 벽시계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렇게도 마음조이며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 부서져나가는 소리가 나며 뿔프가 부르르 떨었다. 스위치를 뺐다. 해체해보니 날개바퀴가 부서지고 축키홈에 금이 갔다.

엄숙하고 침울한 공기가 뿔프실안에 짙 들어왔다. 그것은 가스의 쓰리고 역한 냄새보다 더 참기 어려운것이였다. 이때 누구인가 철사다리를 밟으며 급히 달려내려갔다. 푸들푸들 몸부림치듯 들려오는 철사다리의 아츠리운 소리는 주생규동무의 마음을 애리게 굶었다. 사람들앞에 약한 마음을 보이지 않으려는 옥란동무의 심정인들 오죽 하랴싶었다.

선일동무도 쭈크리고앉아 깨어져나간 날개바퀴를 주무럭거린다. 기를때 묻고 류산에 문질러져서 툴게 덧기운 그의 작업복소매자락이 별스레 눈에 띄었다. 그것도 주생규동무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각오한바이지만 그래도 실패는 역시 가혹한 것이였다.

아니 내가 왜 이러는걸가. 그래서 안된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원인을 찾아내자. 비록 세번째도 성공은 못했지만 시험시간으로 거의 다달으

고있지 않는가.

그 자리에서 기술협의회가 열렸다. 4호뿔프주위에 모두들 둘러앉았다. 기술적견해들은 예견했던 것보다 차이가 많았다. 시간은 흐르고 흥분된 목소리들은 차츰 높아졌다.

《가만, 실패의 원인을 지나치게 과장분석하는데 나는 찬성할수 없소. 날개바퀴가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서져나간것은 수지에 섬유질배합률이 잘 맞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오. 안그렇소?!》

조용하나 확신에 넘친 주생규동무의 목소리였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렸으나 가닥지를 치던 견해들이 한곳으로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원인은 밝혀졌다.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인것인지는 시운전을 다시 해보기전에는 누구도 확언할수 없다. 네번째시운전을 지체할수 없다. 그러나 누구도 이에 대하여 결심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월말, 생산이 한껏 긴장된 때다. 사람들은 기사장이 어떻게 나오겠는지 궁금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기사장의 얼굴색을 보느라고 두리번거린다. 그러나 기사장의 얼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었다. 어데로 갔는가. 방금전에도 있었다. 누구인가 류산1직장에서 전화가 와서 조금전에 그리로 내려갔다고 귀띔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길은 약속이나 한듯 주생규동무에게로 쏠렸다. 그는 눈으로보다 육감으로 더 많이 그것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결심을 말하지 않았다. 그럴수 없었다.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후 그는 산하탑을 에돌아 바다가로 나왔다.

파도가 발결에서 철썩거렸다. 달빛은 물결우에서 구슬처럼 부서졌다. 바다가 모래불은 숨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그래도 괴롭고 착잡한 마음을 달랠길 없었다.

(아직도 기사장동지는 이 일을 우리 소조원들의 일로만 여기는것이 아닐까?)

이 밤따라 이런 생각이 걸음마다 되짚어지는것이였다. 그것은 세번째 실패에서 오는 후유증도, 응당 있어야 했으며 기술협의회를 계속지어야 할 때 마침 그가 자리에 있어주지 않았다는 그 리유 때문만도 아니였다. 그는 첫시운전때에도 송산관이 터졌다고 그리로 달려갔었다. 두번째도 어찌하여 없었다. 세번째 시운전날인 오늘에는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었다. 이로써 그에 대한 감정은 봄눈처럼 녹아버렸었다.

파도는 그의 마음을 달래듯 쇄 하고 모래불을 적시고 또 련달아 적시는것이였다.

깊은 생각속에 걸음을 옮기던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놀랐다. 급히 다가오는 걸음소리. 그러나 그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다. 다만 귀만 강구었을뿐이였다.

《소조책임자동무!》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그의 곁으로 다가온것

은 기사장이었다.

《…지금이 초저녁인줄 아오? 어서 돌아가시오. …이제 바쁜 고비나 좀 넘기고 네번째시운전을 내일 어봅시다.》

기사장은 손우사람으로서의 위로심을 품고 말했다.

주생규동무는 아무 대답이 없고 기사장은 먼구 한듯 입맛을 다시며 따라걸었다.

어둠속 어데서인가 기적소리가 울렸다. 거쉬고 다급한 소리였다. 빈 차량들을 이끌고 기관차가 린비료출하장으로 들어서는것이다. 고요한 밤의 대기를 흔들며 기관차소리는 류달리 크게 들리었다.

무엇때문인지 기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조책임자동무, 저 기관차소리를 좀 찬찬히 귀담아들어보오. …<린을 내라 린을 내라!> 이렇게 웨쳐대는것 같지 않소?! …난 그래 그런지 잠결에도 저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다 철렁한단 말이요.》

기사장은 손을 내저으며 허구르게 웃었다.

그래도 주생규동무는 말이 없다. 그대신 잔파도가 달빛에 번들거리며 밀려와 모래불을 쓰다듬었다. 침묵이 흘렀다.

《…리해됩니다. 기사장동지, 그런 심정으로 말한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의 음성은 낮았다.

《아니 물론 거야 그럴것지만…》

《아닙니다. 생산면에서나 공장의 설비관리면에서 한가슴에 불안고 돌아가고 책임을 지고 하는것이 아무렴 우리만큼이야 하겠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서운한 일입니다.》

《소조책임자동무…》

기사장은 말을 더 못했다.

《기사장동지도 알다싶이 우리 공장이 어떤 공장 입니까.》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린비료가 없이는 알곡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벌써 10여년전에 몸소 바람세찬 서해기슭인 이곳을 찾아오시여 터전을 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고는 공장이 다 건설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또다시 찾아주시여 화학공장의 면모가 보인다고 하시며 공장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린비료가 체일입니다. 여기와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공장도 더 확장하고 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사람은 깊은 생각속에 나란히 걸었다. 누가 먼저 그랬는지는 모르나 두사람의 손은 어느사이 한데 모아쥐여있었다.

《그런데 죽이 돌아 안가니 날개바퀴가 어떻게 돌겠습니까.》

《죽이라구요?!》

기사장의 손이 경련이라도 인듯 푸르르 떨었다. 주생규동무는 기사장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물론 설비를 개조하고 관리하는 일이 당장은 생산밖의 일로 보일수도 있을겁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설비가 언제나 원만한 상태에 있어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합쳐 일한다면 아버지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습니다.》

확신에 넘쳐 말하며 그는 달빛이 흘러내리는 넓은 바다를 향하여 돌아섰다. 기사장도 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소리를 누르며 대형송풍기의 소음이 은은히 들려왔다. 그 소리는 두사람의 마음속에 심장의 박동처럼 소중하게 들려왔다.

네번째 시운전을 위해 선일동무가 형타를 지고 다시 명간으로 떠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다. 떠나간 사람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들인양 소조실에서는 어느날이나 밤늦게까지 불이 켜있었다.

류산에 부식되지 않는 대용재질로 설비부속품의 수명을 연장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며 소조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 그들중에는 기술자만이 아니라 로동자들도 자기의 서툰 도면을 들고 허물없이 찾아왔다. 희류산계통의 송산관들을 대용수지관으로 할수는 없겠는가. 이 문제는 요즘 소조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새롭게 흥분시키고있다. 한계통에 300여미터씩이나 되는 150미터 송산관들을 연관이 아니라 특수수지관으로 바꿀수만 있다면 설비의 수명은 3배로! 그뿐 인가, 절약되는 연과 로력과 수리시간은 또 얼마일텐가.

기술협회가 거듭되고 도면이 그려지고 재질을 시험하는 가운데 소조실로 문득 전보 한장이 날아들었다.

《24일 밤차에 도착함 선일》

그날은 비기 내렸다. 억수로 내렸다. 공장으로부터 역전까지는 20리길이였다.

주생규동무는 밤1시차를 맞기 위해 역으로 나갔다. 그가 가지고올 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보다 낮모르는 타지방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그를 앓아서 맛을수 없는 마음이었다.

역전의 나들문 처마밑에는 마중나온 사람들로 들어차있었다.

비는 그하냥으로 내리고 바람은 비방울을 휘뿌렸다. 때마다는 번개마저 병긋거렸다. 그러나 렬차는 제시간을 어기지 않고 역구내로 들어섰다. 봄비가 시작했다. 찾고 부르는 소리, 비속을 달리는 발구름소리들… 그속에서 자기 사람을 찾아내기란 수월치 않았다. 그러나 주생규동무는 첫눈에 선일동무를 찾아내었다. 후리후리한 키, 길쭉한 얼굴, 슬진 눈썹 그동안 눈확은 얼마나 더 우묵히 들어갔는가.

《선일이!》

사람들의 머리위로 손을 뻗치며 반가움에 넘쳐

마구불러댔다. 그런데 웬일인가 선일은 다른쪽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웃고있는것이 아닌가.

《기사장동지, 야, 바쁘실텐데 이렇게.》

선일동무의 목소리에 그는 어리둥절해졌다. 기사장이라니, 생산이 바빠 돌아간다고 그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조차 하지 않았는데.

《선일동무, 수고했소. 정말 수고 많았소. 자 어서 차에 오르지요.》

선일동무를 반갑게 불안고 돌아가는 기사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이 찡해왔었다.

그들은 모두 《갱생》에 올라탔다. 승용차는 비발을 헤치며 달렸다. 앞좌석에 앉은 기사장은 이야기를 하느라고 졸곤 몸을 돌리고있었다.

《이 다음번엔 내가 거길 갔다와야겠소.》

기사장이 등받이가름대를 꼭 틀어잡으며 말했다.

《아니, 기사장동진 안됩니다.》

소조책임자는 그 말을 톡으로 받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러자 기사장은 사뭇 신중한 눈빛이었다.

《아니요. 내가 꼭 가야 하요.》

그는 고집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번엔 아예 수지설비들을 보고와서 우리 공장에 한틀 차려놓아야겠단말이요. 나는 원래 남의 신세를 지는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미란말이요.》

《기사장동지!》

비발은 여전히 승용차의 전반을 소란스레 두드려대고 차창으로 비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차안에 앉은 그들의 마음은 그지없이 후덥기만 하였다.

밤새 비는 멎고 안개가 자우룩히 서리였다. 그들이 강화수지로 만든 날개바퀴로 네번째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척뿔프장을 나서니 희웁스름히 새벽빛이 서리어왔다.

주생규동무는 기사장과 나란히 출하장옆으로 지나고있는데 린비료를 가득히 실은 화물차가 구내를 벗어나고있었다.

두사람은 안개속으로 사라지는 렬차의 행렬을 눈으로 바래며 잠시 섰었다. 그런데 우연히 기관차소리를 가늠해 듣던 주생규동무는 느닷없이 놀라며 마음이 긴장해졌다. 기사장의 말처럼 기관차는 정말로 《린을 내라 린을 내라》 하고 자기에게 대고 지긋게 웨쳐대는것 같았다. 그렇다. 린이다. 뽕해를 이겨내는 알곡수확을 높이는데서 린비료는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

기사장도 무슨 생각에 잠겨 렬차를 하염없이 바라보고있더니 불쑥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소조책임자동무, 너무 근심 마요. 이제는 모든 설비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린비료생산도 문제없게 됐수다.》

나는 왜 그런지 오늘은 저 기관차소리가 달리들립니다.》

《다르게말입니까?》

그는 둥그래진 눈으로 기사장을 바라보았다.

《가만히 들어보오... <걱정 말라, 걱정 말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는것 같지 않소?》

기사장은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었다.

《기사장동지... 고맙습니다.》

그는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의 손을 와락 그러잡았다.

《아니 이러지 마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모든게 깨달아지게 되요. 나는 죽이 되구 소조원동무들은 날개바퀴가 되자고 하던 그 말의 참뜻이말이요. 정말 동무들은 뽕프의 날개바퀴만 개조한것이 아니거던.》

기사장은 껄껄 소리내여 웃었다.

소조책임자 주생규동무는 소리없이 따라 웃었다. 그랬으나 이전 일인지 그는 자꾸만 눈곱이 축축해지는것을 억재할수 없었다. 그런중에도 처음 도면을 들고 기사장을 찾아갔던 일이며 그때문에 온밤을 모대기던 일이 언뜻 떠오르는것이었는데 그것은 벌써 아득히 먼 과거일처럼 느껴졌다.

아, 3대혁명소조들과 일군들이 합심하여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당의 요구라고 한 당의 방침은 얼마나 정당한것인가. 진실로 우리 소조원들과 일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된다면 넘지 못할 산악과 헤쳐나가지 못할 풍량이 어이 있을수 있으랴.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기술혁신보다 귀중한 생활의 진리였다. 소조책임자 주생규동무는 승엄한 감정에 잠겨 당중앙이 자리잡고있는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새 마음을 다지였다. 영원히 당의 혁명전위로 빛나게 살리라고. 참으로 그에게 있어서 이 밤은 더없이 행복한 밤이였다.

린비료를 차판마다 가득히 실은 렬차는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멀어져가고 그들 두사람은 갈림길에서 헤어졌다.

그러나 기사장은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일 줄 몰랐다. 소조책임자가 사라져간 3대혁명소조의 창문에서는 불빛이 비치고있었다.

그에게 이 밤의 저 불빛은 스쳐보이지 않았다.

저 불빛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고 앞장서 나아가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충성의 불빛이였다.

##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싸운 우리 인민의 슬기와 용맹을 보여준 생동한 화폭

-중편소설 《설죽화》에 대하여-

박영래

《소란스러운 시절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벌써 몇번째나 고려땅에 들이닥쳤다가 매번 쫓겨간 거란의 말발굽이 어느덧 찾아들었는가도싶던 1018년 화창한 어느 봄날.

구주성(구성)북쪽 험준한 굴암산 어느 산정에는 말안장에 편히 앉아 투래질하는 말을 달래며 한가로이 거니는 한 소년이 있었다.

머리엔 수건을 질끈 동이고 수수قم한 저고리에 통이 좁은 바지를 입었다.

허리춤엔 깃털이 포르르한 화살들이 빼죽이 내여민 전통이 데를거리고 왼팔엔 시위가 팽팽한 활이 건듯 걸려있었다.》

이것은 거란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활쏘기와 무술익히기에 힘쓰는 주인공 설죽화의 강의하고 의로운 모습을 펼쳐보여주는 중편소설 《설죽화》의 첫대목이다.

설죽화는 예쁜 처녀다.

하지만 포악하고 흉악한 거란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가슴속에 사무치게 서려있다.

그는 거란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용악 싸움터에 나섰다.

《너자는 갑옷을 걸치고 창검을 들수 없었던 시절》이었던만큼 설죽화는 남복차림으로 무술을 익힌다.

그리고 서경에서 전통적으로 벌어지는 사냥경기가 진행되자 남복차림에 《메나》라는 이름으로 경기에 참가한다. 경기에서 발휘한 뛰어난 그의 활쏘기와 무술은 강감찬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 리하여 후에는 강감찬이 지휘하는 홍화진전투에 참가하게 되는것이다.

침략자를 용납하지 않은 우리 인민의 견결성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설죽화의 형상에 참으로 진실하게 체현되어있다.

설죽화는 우기군소년선봉장으로 구주대전에 참가하여 아버지를 죽인 적장 아들을 통쾌하게 요정내고 이 싸움에서 애석하게 희생된다. 구만리 앞길을 남겨놓고 설죽화가 희생된 다음에야 강감찬과 전장에 참가했던 고려의 군사들은 그가 어린 처녀였음을 알게 된다.

(아, 설죽화 설죽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근 1000년전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11세기초 거듭되는 거란침략자들의 침입을 최종적으로 쳐물리친 고려인민들의 제3차반거란전쟁이 바로 이 작품의 시대적배경으로 되고있다.

소설은 역사적으로 우리 인민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침략자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는것, 그 어떤 침략자도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의 애국적기개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을 취급하는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직접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소설은 옛날의 역사에서 소재를 취하여 당대의 현실을 방불하게 그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잘 알려주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할뿐아니라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데 작용한다.

그러나 작품이 오늘의 현실생활과 가까운 문제를 사상주제적과제로 내세울수록 인식교양적의의는 더 커지게 되며 근로자들의 사상미학적요구도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줄수 있는것이다.

중편소설 《설죽화》는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을 보여주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제힘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인민은 어떤 힘으로도 굴복시킬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러한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유린할수 없다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문제를 사상주제적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우리 인민의 역사는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는 북으로는 수, 당의 침략과 거란, 원의 침략을 물리치고 남으로는 왜적의 침공을 견제하여 온 반침략조국방위의 역사이며 근세에 와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반제투쟁의 역사,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이다.

따라서 작가가 거란침략자들을 최종적으로 쳐물리친 제3차반침략전쟁을 기본주제로 잡은것은 옹당하며 이것은 작품의 현실적의의를 강화하고

교양적가치를 높여준다.

소설은 역사적인 사건과 실재한 인물들을 작품의 구상속에 구현하고 생활의 본색을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예로부터 외래침략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애국적이며 영웅적인 기개를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조국의 절반땅에서 민족적자주권이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는 절통함에 가슴을 꿰이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미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고야말리라는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주고있다.

이것은 작품이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그러한 사상주제적과제를 내세웠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역사소설로서의 이 작품의 인식교양적의의와 현실적가치가 있는것이다.

소설은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이러한 사상주제적내용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은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구체적이며 생동한 인간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작품은 화폭의 중심에 서있는 주인공 설죽화를 비롯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생활과 성격의 본리에 맞게 그렸을뿐아니라 현실속의 산 인간처럼 생동하게 안겨오도록 형상하였다.

특히 주인공 설죽화의 형상은 누구나 만나보고 싶도록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그려졌다.

《은방울 굴리듯 또랑또랑한》 고운 목소리, 《반달 같은 눈썹》에 《함박꽃같은 미소》를 머금은 예쁜 얼굴, 예로부터 우리 나라 녀성들의 고유한 미덕을 그대로 갖추고 움트는 봄날의 연두색 싹처럼 바야흐로 활짝 피어나고있는 열여섯의 아름다운 처녀 설죽화.

그러나 그 아릿다운 용모에는 대비도 할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끄는 소중한 미가 있으니 그것은 설죽화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이다.

소설에서 설죽화의 숭고한 애국심은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부모에 대한 애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고향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또 본적도 없는 증조, 고조할아버지도 살아왔고 죽어서는 뼈를 묻은 땅이었다.

어쩌면 제가 거닐고있는 이곳엔 몇천년 대를 두고 살아왔다는 조상의 뼈가 묻히고 묻혀선 혼백이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저도 이제 죽으면 묻히여 한줌의 흙이

되어버릴것이며 백년 아니 천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 후손들은 이 땅을 거닐게 될것이다.

여기는 고향, 조상의 땅이었다.》

《구구성, 저 성안에 자기를 낳은 집이 있고 거기엔 어머니가 계신다. 외딸인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는 어머니, 저 하나만 잘되기를 바라며 홀로 빈집을 지키는 어머니이다.

몇해전 갑인년(1014년)전란때 통주성을 지키던 싸움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다시는 볼수도 안길수도 없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가슴이 저러왔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억속에서만 더듬어보며 주먹을 꼭 쥔 때면 마음은 자못 비장해지곤하였다.》

이렇듯 자기 고향땅과 부모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가슴속에 흘러넘치는 처녀이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용약 싸움터로 달려나가는것이다.

붉은 땀 대신 검은 끈을 드리고 메나라는 남자의 이름으로 전장에 나서는 설죽화의 형상-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는 한 녀성의 복수심에서만 출발된것이 아니라 반침략투쟁에 떨쳐 나섰던 당대 인민들의 애국적기상과 견결성을 보여준 생동한 형상으로서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고있다.

소설에는 주인공의 의로운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감명깊게 형상화되고있다.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기막힌 소식앞에 슬픔을 금치못하면서도 그 소식에 가슴을 두드릴 어머니를 생각하는 눈물겨운 세부를 통하여 마음씨 곱고 효성이 지극하며 사리에 밝은 그의 성격적특성을 보여주었고있으며 련민의 정을 큰일을 위하여 억제하면서도 자신이 녀자임을 몰라주는 오세울을 야속히 생각하는 세부를 통하여서는 설죽화의 녀성다운 인간미를 잘 보여주었고있다.

그러면서도 설죽화의 이러한 성격적특질들이 그의 숭고한 애국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원수를 물리치려는 강렬한 지향의 발현임을 형상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소설은 설죽화의 어머니 홍씨와 그의 외삼촌 홍예, 그리고 오세울의 성격도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무관의 가문에서 자란 홍씨는 누구보다도 군사가 된다는것이 힘겨운 일이며 《전장에 일단 나서면 그 목숨은 나라를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홍씨는 《성벽을 베고 죽을지언정 거란의 노예는 될수 없고 나라가 없이 팔도 있을수 없다.》는 웅심깊은 마음에서 설죽화에게 병서를

읽히고 오라비 홍예를 타일러 교련을 주게하며 외딸을 서슴없이 싸움터로 내보내는것이다.

이러한 홍씨의 형상은 당대 조선의 어머니들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전형적인 형상이 아닐수 없다.

작품에서 홍예의 형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홍예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가 달성하려고 한 사상미학적의도는 단순히 그가 설죽화를 처녀장수로 키웠다는것을 보여주자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작가는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기 힘을 믿고 일치단결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서면 그 어떤 원쑤도 이길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문제를 밝혀주고있다.

홍예는 거란의 2차침략때 중랑장으로 싸운 사람이다. 그는 장수들을 키우며 군사를 잘길러 나라를 수호하는 장군이 되려는 큰뜻을 품었던 사람이었다.

그랬으나 원쑤와의 싸움에서 한팔을 잃게 되자 성 쌓고 남은 돌이 되었다는 허탈감에 사로잡혀 허구한 날을 술로 보냈다. 설죽화와 홍씨의 견결성에서 심각한 자책을 느끼게 된 그는 원쑤를 막는 성벽이 될것을 결심한다.

그리하여 홍예는 설죽화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원쑤들이 덤벼들자 다시 전장에 나선다.

홍예의 사상정신적변화과정을 깊은 내면세계의 개방을 통하여 굴곡있게 그린것은 오늘 우리 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도 의의가 있다.

작품에서는 고려청년들을 대변한 오세울의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용감한 성격도 독특한 형상으로 인상깊게 그렸다.

소설은 그의 형상을 통하여 당대 청년들의 이상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사랑도 청춘도 기꺼이 바칠줄 아는 그지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통주성싸움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리관랑장의 무덤을 알려주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쳐 그 가족을 찾으려 애쓰는 마음씨도 가락하지만 것처럼 찾던 사람이 100날을 하루같이 함께 무술을 익혀온 메나이더 그가 다름아닌 처녀임을 알고 사랑의 감정에 나라 지킬 큰뜻이 어지러워질가봐 《화살이 비발 치는곳에 있겠다.》는 말을 남기고 결연히 굴암산을 떠나는 행동은 얼마나 의로운것인가!

슬기로우이 넘치는 오세울은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누구보다 강한 청년이며 증오심이 불타는것만큼 자기 민족,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

사냥경기에서 설죽화에게 1등의 영예를 양보하

며 그의 굳은 절개에 공명하여 서슴없이 남자로 대해주는 생활들은 아름답고 정의로움을 사랑하는 오세울의 고상한 성품을 잘 보여주고있다.

오세울의 이러한 성격적특질이 주인공과의 극명한 관계속에서 밝혀지고 설죽화의 형상을 부각시킴으로써 작품은 민족적향기가 더욱 짙게 풍기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오세울의 성격형상의 매력이 있으며 예술적인 진실성과 개성적인 생동성의 힘이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소설은 인간관계를 극명하게 맺어주고 설죽화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을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구체적이며 인간미가 흐르게 형상화함으로써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두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싸운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모습을 높은 사상 예술적수준에서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편소설 《설죽화》는 또한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상예술성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이것은 문학작품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작품은 11세기초 거란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고려인민들의 반침략애국정신을 반영한 고전설화 《설죽화》에 대한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 창작되었다.

따라서 작가앞에는 설화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과 예술적형상의 특성을 다같이 살리면서도 거기에 반영되어있는 비로동계급적인것을 극복하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그려야 할 어려운 과제가 나서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물론 전설에는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절절하게 체험하고 체득한 사상감정 즉 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저주의 감정이 반영되어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비로동계급적인것이 적지 않은것이다.

이로부터 작가앞에 당성, 로동계급성을 책임적으로 구현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것이다.

중편소설 《설죽화》는 우리 당의 주제적문제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전설이 나온 사회력사적환경과 당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등에 대한 예리한 분석에 기초하여 등장인물들의 내적지향선을 로동계급적선에서 명백히 함으로써 자주성이 강한 우리 민족의 정신도덕적품모를 높은 경지에서 보여줄수 있었다.

작품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당적요구를 옹계 구현하고있는것은 또한 력사에 나오는 개별적인물들과 실재한 사실에 대한 평가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력사에 나오는 개별적인물들에 대한 성격을 옹계 규정하고 형상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력사주제작품창작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이 생기게 되는것도 바로 이 문제를 옹계 해결하지 못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작품에서는 강감찬이 거란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애국정신과 투쟁업적을 보여주면서 결코 그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있다.

나라를 위하여 발휘한 강감찬의 애국정신은 비록 좋은것이였지만 어디까지나 봉건관료였던 그는 결코 근로인민을 진정으로 대표하지 못하였으며 그가 구상한 나라도 근로인민을 위한 나라는 아니었던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은 력사적사실에 근거하여 경술년란리때에 나라를 위협속에서 건져낸 공적으로 서경류수로 임명된 71살의 강감찬이 고려군을 통솔하는 상원수대장군의 중책을 지니고 출중한 계획으로 거란의 3차침략을 최종적으로 물리치는 생활을 보여주면서도 그는 결코 봉건량반으로서의 계급적 립장과 사상관점에서 벗어날수 없었다는것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홍예의 시점속에 실재한 력사적인물인 강조가 잠간 등장한다.

력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강조는 경술년란리때 행영도통사(고려군총사령관)를 지낸 사람이다.

그는 일시적승리에 자만도취하여 적을 깔보면서 바둑을 놀다가 싸움을 실패하고 자신은 포로되어 사형당하였다.

그리하여 강조는 조국반역의 죄를 지은 사람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물론 강조는 민족앞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죄를 지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조는 거란왕 성종이 자기를 섬기라고 하자 침을 뱉고 민족의 자존을 지켜 장하게 죽었다.

작품은 이러한 력시적사실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형상에 구현하고있다.

이외에도 고려군사들의 용맹성을 고무려인민들과의 전통적견지에서 보여준것을 비롯하여 력사적 인물들과 사건사실들을 주체의 력사관에 철저히 서서 보여주고있으며 작품의 주제사상과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형상하였다.

이것은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

대성의 원칙을 옹계 결합하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지킬데 대한 주체적인 문예리론을 형상창조에 철저히 관철하여나가는 행정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로 된다.

중편소설 《설죽화》는 또한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력사적사실자료들과 사건들을 예술적으로 재가공함으로써 력사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작품의 품위를 응당한 높이에서 보장하였다. 고려봉건국가가 평양을 중시한 자료를 비롯하여 작품에는 적지 않은 력사적자료들이 인입되고있다. 하지만 단순히 라렬하지 않고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가공함으로써 력사소설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생활의 본색을 훌륭히 드러내고있다.

력사소설이지만 한문투와 고투를 대담하게 피하고 평범한 인민적인어를 쓰면서도 당대의 생활과 현대적미감을 살리고 민족생활의 짙은 향기를 그윽하게 풍기며 고유한 색깔을 창조하였다.

작품은 처녀장수 설죽화를 찬양하여 지은 다음과 같은 시구로 깊은 여운속에 끝나고있다.

그 모습 아릿다워 설죽화라 하였더니  
굳은 절개 고이 지켜 설죽화라 불렀더니  
설한풍 몰아쳐도 푸른 빛 잃지 않은  
가룩하고 예쁜 마음 설죽화라 불렀다네  
가룩하고 예쁜 마음 설죽화라 불렀다네

평범한 시어로 이어졌으나 얼마나 친근하고 다정하며 조선적인 맛이 풍기는것인가!

중편소설 《설죽화》는 이렇듯 고려의 한 나어진 처녀가 나라를 지켜싸우다 전사한 아버지의 뜻을 이어 사랑도 청춘도 목숨도 다바쳐 싸운 이야기를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결합하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옹계 구현하여 품위있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층 더 북돋아주고있다.

따라서 열렬한 애국사상과 강한 자주정신을 지니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제힘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이런 힘으로도 굴복시킬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러한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유린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애국열의를 끊임없이 북돋아주어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과업을 점령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